

납북사건 보도 자료집

(증보판)

통 일 부
사회문화교류국

목 차

1. 50년대 (1950~1959)

- ▶ 대성호 납북(55.5.28) 3
- ▶ 구우호, 궁지호, 덕길호, 동어호, 불새호, 어성호, 장복호, 해룡호 납북(57.11.9) 4
- ▶ 구우호, 궁지호, 덕길호, 동어호, 불새호, 어성호, 장복호, 해룡호 귀환(57.11.24) 6
- ▶ 명규호 납북(58.4.24) 8
- ▶ 금구호, 신명호 납북(58.11.7) 9
- ▶ 광영호, 금능호, 단국호, 어성호, 창선호, 풍어호, 하영호 납북(58.12.6) 10
- ▶ 광영호, 금능호, 단국호, 어성호, 창선호, 풍어호, 하영호 귀환(58.12.20) 12
- ▶ 대창호, 북성호, 산길호, 수복호, 수영호, 용유호, 창성호 납북(59.7.30) 13
- ▶ 대창호, 북성호, 산길호, 수복호, 수영호, 용유호, 창성호 귀환(59.8.22) 14
- ▶ 신용호, 용진호, 흥신호 귀환(59.12.8) 15

2. 60년대 (1960~1969)

- ▶ 금강호, 대덕호, 덕길호, 순광호, 영신호, 용흥호 납북(61.4.7) 21
- ▶ 금강호, 대덕호, 덕길호, 순광호, 영신호, 용흥호 귀환(61.4.22) 23
- ▶ 만리호 귀환(63.5.29) 24
- ▶ 고려호, 반도호, 신성호, 판부호, 학성호, 해북호 귀환(62.9.4) 25
- ▶ 제1보승호, 제2보승호 귀환(64.4.15) 26
- ▶ 갑진호, 강인호, 강화호, 광덕호, 광왕호, 길영호, 대복호, 대안호, 덕성호, 동성호, 동안호, 명길호, 목선호, 무궁호, 물경호, 복덕호, 복룡호, 복해호, 봉성호, 부성호, 부영호, 삼능호, 삼산호, 삼판호, 성신호, 송강호, 순덕호, 순복호, 순익호, 순일호, 순풍호, 순흥호, 신광호, 신성호, 신흥호, 어장호, 연흥호, 영신호, 영종호, 영충호, 영풍호, 외포호, 용정호, 장흥호, 제2광명호, 청룡호, 해룡호, 흥근호, 흥일호, 황일호, 흥천호 귀환(64.9.15) 30
- ▶ 제2광명호 귀환(64.11.12) 36
- ▶ 복미호 귀환(64.1.18) 39
- ▶ 제6대영호, 제17대영호 납북(65.4.26) 40
- ▶ 제6부포호 귀환(65.5.16) 42
- ▶ 승리호, 영락호, 용미호, 용복호, 칠복호 납북(65.10.29) 43
- ▶ 덕삼호, 치수호, 해성호, 대동호, 진양호 귀환(65.12.20) 45
- ▶ 안흥호 귀환(66.1.9) 46
- ▶ 동명호, 영풍호 납북(66.1.26) 48

▶ 명덕호, 행영호 귀환(66.2.8)	51
▶ 동명호, 영풍호, 춘곡호 귀환(66.5.2)	53
▶ 제2대성호 귀환(66.8.29)	55
▶ 부안호 귀환(67.2.13)	56
▶ 복성호 귀환(67.2.27)	57
▶ 천대11호 납북(67.4.22)	58
▶ 제3용진호 귀환(67.6.3)	60
▶ 남성호, 당수호, 대천호, 덕성호, 백마강호, 선덕호, 순덕호, 승용호, 안흥호, 제7갱생호, 창성호, 태양호, 한진호 귀환(67.9.25)	61
▶ 제21동립호 귀환(67.9.26)	64
▶ 거성호, 경인호, 금성호, 금윤희호, 금창호, 남풍호, 순광호, 어성호, 영명호, 영흥호, 용명호, 정성호, 해양호, 홍미호 납북(67.11.3)	65
▶ 금성호 납북(67.11.11)	68
▶ 성신호 납북(67.11.25)	69
▶ 무진호, 제성호, 태아3호, 태아9호 귀환(67.12.19)	70
▶ 홍진호 납북(67.12.20)	73
▶ 부승1호, 부승2호, 송양호, 정진호 귀환(67.12.24)	74
▶ 송영호 귀환(67.12.25)	75
▶ 광영호, 보수호, 성진호 납북(67.12.25)	76
▶ 거성호, 경인호, 금성호, 금창호, 순광호, 어성호, 영흥호, 용명호, 정성호, 해양호, 홍미호 귀환 (67.12.26)	77
▶ 신광호 납북(68.1.6)	78
▶ 덕인호, 홍익호 납북(68.1.6)	79
▶ 금철호, 창덕호 납북(68.1.11)	80
▶ 광명호, 금성호, 보수호, 성신호, 성진호, 장성2호, 장성호, 홍진호 귀환(68.3.21)	81
▶ 광진호, 신광호, 신양호, 신창호, 제1장진호, 제2태창호, 제장호, 행덕호, 홍익호 귀환(68.3.23)	82
▶ 성운호 납북(68.5.28)	83
▶ 금영호, 세창호, 순복호, 양성2호, 축복호 납북(68.6.17)	84
▶ 요나호 납북(68.6.26)	85
▶ 대복1호, 덕수2호 납북(68.8.7)	86
▶ 기성호, 길성호, 백악호, 어재호, 영창호, 용명호, 해진호 납북(68.10.30)	87
▶ 백악호, 신길호, 어재호, 영창호, 용명호 납북(68.10.30)	88
▶ 기성호, 해진호 납북(68.10.30)	89
▶ 가덕호, 만복호, 태양호, 풍년호 귀환(68.11.1)	90
▶ 대창호, 양성호, 축복호 귀환(68.11.1)	91
▶ 대창호, 선수호, 세창호, 양성호, 제5공진호 귀환(68.11.1)	92

▶ 가덕호, 만복호, 태양호, 풍년호 귀환(68.11.1)	93
▶ 월진호 납북(68.11.1)	94
▶ 덕산호, 영신호, 제2성북호, 제6복성호, 취영호, 해양호 귀환(68.11.1)	95
▶ 건설호, 동일호, 준호, 청길호 납북(68.11.7)	96
▶ 대동호, 수진호, 풍성호 납북(68.11.8)	97
▶ 동호2호, 흥덕호 귀환(69.11.3)	98

3. 70년대 (1970~1979)

▶ 해군 I-2정 납북(70.6.5)	101
▶ 신진호 귀환(70.6.19)	104
▶ 만복호, 신양호, 어신호, 우진호, 제1만복호 납북(70.7.9)	105
▶ 봉산21호, 봉산22호 귀환(70.11.29)	107
▶ 시영호 납북(71.1.6)	110
▶ 만복1호, 만복2호, 무진호, 신영호, 어신호, 제7남일호 귀환(71.3.20)	111
▶ 금강산호, 어신호 귀환(71.3.20)	113
▶ 동해호 귀환(71.5.31)	117
▶ 탁성호 납북(71.8.30)	119
▶ 명성3호 납북(71.10.25)	120
▶ 안영35호, 안영36호 납북(72.2.4)	121
▶ 금해호 납북(72.5.3)	123
▶ 창동호, 협동호 귀환(72.5.10)	124
▶ 근진호, 동림호, 일성호, 창동호, 협동호 귀환(72.5.10)	125
▶ 건진호, 동림호, 일선호 귀환(72.5.11)	126
▶ 고흥호, 대복호, 대청호, 명성3호, 승운호, 제2승해호, 제6해부호, 탁성호 귀환(72.9.7)	127
▶ 태양호, 무진호, 삼창호, 해성호 귀환(72.9.15)	128
▶ 해영호 귀환(72.12.27)	131
▶ 금성호, 미조호, 일신호 귀환(73.8.1)	132
▶ 금성3호, 일진6호 귀환(73.8.1)	133
▶ 수원32호, 수원33호 납북(74.2.15)	134
▶ 해경 863함 납북(74.6.28)	137
▶ 제3신진호 납북(76.8.30)	139
▶ 제3신진호 귀환(76.10.14)	141

4. 80년대 (1980~1989)

▶ 해왕6호, 해왕7호 납북(80.1.26)	145
--------------------------------	-----

▶ 제2남진호 납북(80.9.8)	147
▶ 해왕6호, 해왕7호 귀환(80.11.12)	148
▶ 제2남진호 귀환(81.5.20)	151
▶ 제2태창호 귀환(81.8.4)	153
▶ 제1공영호 납북(81.6.11)	154
▶ 제1공영호 귀환(81.12.18)	156
▶ 제5마산호 납북(82.7.13)	157
▶ 제5마산호 귀환(82.9.29)	160
▶ 제12광남호, 제2동주호 납북(85.2.5)	164
▶ 제12광남호, 제2동주호 귀환(85.3.2)	165
▶ 제2계영호 납북(85.10.6)	167
▶ 제2계영호 귀환(85.10.19)	169
▶ 제27동진호 납북(87.1.15)	171
▶ 제37태양호, 제38태양호 납북(89.1.28)	178
▶ 제37태양호, 제38태양호 귀환(89.2.12)	179
▶ 명성2호 납북(89.5.7)	183
▶ 명성2호 귀환(89.5.24)	184

5. 90년대 이후

▶ 남해어6호 납북(91.2.5)	187
▶ 제86우성호 납북(95.5.30)	189
▶ 제86우성호 귀환(95.12.26)	191

남북사건 보도 자료집

50년대 (1950 ~ 1959)

- ▶ 대성호 납북(55.5.28) 3
- ▶ 구우호, 궁지호, 덕길호, 동어호, 불새호, 어성호, 장복호, 해룡호
 납북(57.11.9) 4
- ▶ 구우호, 궁지호, 덕길호, 동어호, 불새호, 어성호, 장복호, 해룡호
 귀환(57.11.24) 6
- ▶ 명규호 납북(58.4.24) 8
- ▶ 금구호, 신명호 납북(58.11.7) 9
- ▶ 광영호, 금능호, 단국호, 어성호, 창선호, 풍어호, 하영호 납북(58.12.6) 10
- ▶ 광영호, 금능호, 단국호, 어성호, 창선호, 풍어호, 하영호 귀환(58.12.20) 12
- ▶ 대창호, 복성호, 산길호, 수복호, 수영호, 용유호, 창성호 납북(59.7.30) 13
- ▶ 대창호, 복성호, 산길호, 수복호, 수영호, 용유호, 창성호 귀환(59.8.22) 14
- ▶ 신용호, 용진호, 흥신호 귀환(59.12.8) 15

조기잡이漁民逮捕 佛僞平壤放送自認

「東京廿五日設A.P.合同
 「本誌特約」平壤放送廿二
 十五日 萬若浦韓漁民들이
 武裝을 하지 않고 北僞側
 에서 定規規則을 遵守하
 면 조기잡에 있어서 北
 僞海城內에서 漁捕하는 것
 을承諾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東京에서 獲取한同放送은
 韓國政府가 漁船隊를 運
 하여 武器를 北僞으로密
 輸하였다는 消息을 反復
 하였다. 同放送은 지난五
 月二十日과 二十一日에北
 僞水城으로 들어간 마지막
 「그들」이 逮捕되었다
 고 말하였다.

同放送은 「이同放送에對한
 調査를 進하여 假設으로平
 和的인 漁民이었다는 것이
 알려졌다」고 말하였다. 同
 放送은 이러한 「참으로平
 和的인漁民들」은 二十六
 日 그들의 漁獲物과 魚骨
 을 釋放된 것이라고 말하
 였다. 同放送은 어어 큰기
 관의 限하여 이 船泊은 上
 午七時부터 下午五時 까지
 이 區域을 하지 않는 條件
 下에 「部漁船으로 進入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구우호, 궁지호, 덕길호, 동어호, 불새호, 어성호, 장복호, 해룡호
 납북(57.11.9)

조선 원보 (1957年十一月十二日 (火曜日))

東海岸에서 八隻

동태잡이漁夫 47名과 함께

東京 〔명태잡이물장던기
 船 (機帆船) 八척이 유
 선군방에서 피외선에 계
 치당한 사건의 발생하
 다 죽지 않았을 때 오
 경 유전선군방인강현보
 성군 현내면지진 (高城
 郡 內面 地震) 〔
 昭陽 內面 地震〕 〔
 二 〕 〔아인〕 지진에서 선적
 을 거진 (巨津) 에 운 〔어
 성호〕 〔덕길호〕 〔구우
 호〕 〔해동호〕 〔장복호〕
 〔궁지호〕 등의 五척 파선
 격을 추문진 (注文津) 에
 운 〔불새호〕 〔궁지호〕 의
 二척 二리포마산 (馬山)
 에 선적운 〔궁지호〕 등
 八척이 오기물장다가 피
 외선에 계 남지당해 갔다
 는데 이 八척의 배에 탄 선원
 은 四十七명으로 알려져 있다

傀儡의 漁船拉致에 對策을 取하라

자난九日 東海岸休戰線近海에서 漁船中인 우리 漁船八隻과 함께 이 배를 타고 있던 漁夫四十七名을 傀儡武裝船이 非法拉致해간事實에 對하여 우리 는 그 종의 變行에 憤恨을 느낀 大同陸에 軍大將 關心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그 배가 무슨 理由로 우리 漁船을 拉致해간 것인가를 알아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들은 이 漁船들이 休戰線을 넘어서 漁撈하고 있기 때문에 禁捕했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두 배이면 모르되 九隻이나 되는 漁船이 休戰線을 侵犯하고 漁撈했음은 理는 없을 것이다. 萬若 前記 漁船들이 休戰線以南에서 漁撈하고 있었음이 確實하다고 하면 이것은 即 傀儡의 不法 侵犯을 證明하는 것이 될 것이다. 或은 우리 漁船이 休戰線을 잘못 알고 北쪽에 다 들어갔다고 假定하더라도 이것은 民間人이 한 일임에 不過하지만 傀儡의 武裝船이 休戰線을 넘어 왔다고 하면 이것은 軍事的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둘째 休戰後 傀儡武裝船이 우리 漁船을 拉致한 事件은 西海岸에서는 數次 있었지만 東海岸에서는 別로 없었던 것임에 지금 그와 같이 協約的인 行動을 取하게 된 裏面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數年來로 平和統一을 부르짖고 南北交易을 提唱하고 人物往來를 許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傀儡徒黨이 이번이 그와 같이 多數한 漁船을 拉致해간 것을 보면 一種의 示威 行動이라고 할 수도 있다. 即 그들의 武

力 特別히 海上 勢力의 增強을 誇示하려 할지도 알 수 없다. 且 昨 八隻이나 되는 漁船이 拉致된 事實을 中 一 隻이 逃避해 옴으로써 알기 된 듯 한데 萬若 이것이 事實이라고 하면 이 近海에는 海上 警備가 充分 없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微弱한 海軍力으로 東西兩岸의 休戰線 沿海를 지키고 日本의 사이에 있는 平和線을 監視한다는 것이 容易한 일은 아니겠지만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이 東西兩方에 있는 休戰線 近陸路도 모르고 오지만 海上으로도 많이 넘어 오고 있다. 이렇든지 東西兩海岸만은 監視를 徹底히 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八, 九隻이나 되는 漁船이 休戰線 近海에서 拉致되는 것을 防止 못했는가 하는 疑問이 없을 수 없다. 當局에서는 時急히 이 事實을 調査하여 軍 事 休戰委員會로 하여금 敵例에 嚴重 抗議케 하여 拉致된 漁夫와 漁船을 即時 釋放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今後 이 어한 일의 再發을 防止하기 위하여 積極的인 對策을 取해야 할 것이다.

구우호, 궁지호, 덕길호, 동어호, 불새호, 이성호, 장복호, 해룡호
귀환(57.11.24)

被拉漁夫45名歸還

海軍 發表 二名은 繼續抑留中

二十三일 해군에서는 지난
 十一월九일 동해안영해
 내에서 어로중인 우리나
 라 어선八척과 어부들남
 치해간 북한피되는 불행
 만행을 자인한 나머지 二
 十三일 상오포지 어선八
 척과 어부四十五명을 석
 방하였다고 말하고 아직도
 二명은 계속의류중에 있다
 고 발표하였다
 이들은 통일十一기 북한

의 장전(長戰)항구로부
 터 남한에 귀환하여 군
 일 계속 어로작업에 중
 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送遠된漁夫 45名 곧 歸鄉

二十八일 정보관계당국에
서 알은한바에 의하면 앞
서 동해상에서 피뢰에게
납치되었다가 송환된 어부
四十五명은 그간해군당국
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二十
八일내부로도 이관되어온
귀향케 되었다 한다. 그런데
이들 어부 四十五명은 납치
한 피뢰측에서는 평양을 미
뜻한 원산 함흥 등지의 좋은
지역만을 구경시키오나서
북한에 잔류할 것인가? 그
렇지 않으면 남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다지었으나 이
들 四十五명은 모두 고향인
남으로 돌아올 것을 주장
하였던 것이다 한다. 한편 오
늘날까지 송환되지 않고 있
는 나머지 二명의 어부는 그
들의 본적지가 함경도라는 이
유로서 송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다.

傀儡漁船을 拉致

조기잡이 배를 砲擊하고

延坪島北方서 不祥事

三十一 日 海軍總務 省 消息 據 延坪島 北方 海面上 發現 朝鮮 漁船 一艘 該船 係 延坪島 漁民 所乘 該船 係 延坪島 漁民 所乘 該船 係 延坪島 漁民 所乘

한편 이와같은 사실을 알
포함해 군 당국에서는 이 남
조선에 현행도 북한에서는
되어 되었고 무장검열이
배회하고있고 중공의 무
장어선단까지 출어해제
있다」고 기습 강조하
「이것은 적의 어민살상
불인난치의 실증」이라고
답하고 우리해군은 적의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력충돌하고도 관
호 이등실력으로써 적의
시찰치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와같은 사실을 알
포함해 군 당국에서는 이 남
조선에 현행도 북한에서는
되어 되었고 무장검열이
배회하고있고 중공의 무
장어선단까지 출어해제
있다」고 기습 강조하
「이것은 적의 어민살상
불인난치의 실증」이라고
답하고 우리해군은 적의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력충돌하고도 관
호 이등실력으로써 적의
시찰치이라고 말하였다

漁夫11名漁船7隻拉致

海軍發表、東海岸서 傀儡들이

十日하고 해군발표에 의하면 동해안 해상에서 평 대장이 죽이던 우리어선 2척과 어부 11명의 북한 괴뢰에게 붙잡혀서 당장 사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죽지난 7일하고 드시 30분 동해공해대상인북위 318도 39분 15초 동경 128도 27분 40초 5초 지점의서 영대장이 붙잡던 우리어선 2척과 어부 11명 우함괴뢰의 어뢰 공격으로 추후포획된 채수정 등의대 강제납치당하였다 한다.

그런데 납치된어선은 거진(巨津)의 선적출판(출판호) 六號(船負 六號) 신성호(新成號) 船負 五號(船負) 판명되었다 한다.

이해관당국은 괴뢰 무장선의 불법적인 어선 납치사건에대기하여 어선 보초에 철저할기함은 노론

조선 원 본

(고령군 고령읍)

日誌一千九百五十八年十二月八日 (五福)

六일 하오 四사정 장원포
 고령군(高城郡) 유정현군
 당해역에서는 어포작업을
 하던 우리어선六척과 선
 員三十六명이 또 뒤의진
 단함정에 의해서 강제압
 지당함것으로보여지고있다
 경찰보고에 의하면 六일
 고성군 현내면대진항(高
 城郡縣內面大津港)을 출
 항한 명태잡이 어선창성
 호의 五척과 선원三十六
 명은 七일 아침까지 돌아

오지 않았고있어 현직경찰
 당국에서는 정미현을 통
 련해서 부근해상인민을수
 색중에 있는지 먼저알아
 은 아성호등포선장은 전
 기어선장이 유정현군방
 남쪽 해상에서 피의선박
 으로 보여지는 현정三척
 에포위당하고 있는것을우
 력하였다고 증언하고있으
 므로포피의등에게 강제압
 지된것이 아닌가 하여의
 고있었다

傀儡들 또 漁船六隻拉致?

船員 36名도 失踪

東海岸서 明太잡이하다가

西曆一千九百五十八年十二月九日

拉北된船員

身元判明

속보 〓 7월 안국에 모인 선박의 하역 6인 하오 장천도 조성(高城) 앞바다에서 부랑의 선박에 의해 저지된 30인 이선 6척과 선원 306명의 신원이 원지 경찰 의조사결과 판명되었는바 전함의 조수과 선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상선호(船籍 〓 漢州郡注 文津 〓 機艙長 二馬力) 船長 〓 朴윤하(三六) 機艙長 〓 김대준(三七) 船員 〓 보장대용(三〇) 〓 이대규(二九) 〓 김갑우(二八) 〓 김수영(二八)
- ▲하영호(船籍 〓 後山機艙 船 二馬力) 船主兼船長 〓 김영윤(四六) 機艙長 〓 김지담(四九) 船員 〓 이길용(四一) 〓 김현석(四一) 〓 김용익(五〇)
- ▲어성호(船籍 〓 高城郡巨

- 津機艙船 一五馬力) 船主兼 船長 〓 장기수(五一) 機艙 長 〓 김동현(三八) 船員 〓 김범우(一八) 〓 김의준(五二) 〓 장의상(二〇) 〓 김복순(四五) 〓 김용호(船籍 〓 馬山市海雲洞機艙 船 一五馬力) 船長 〓 김구석(五〇) 機艙長 〓 김구수(三九) 船員 〓 고재중(二六) 〓 이윤성(四二) 〓 김지락(三五) 〓 김장기(三二) 〓 광영호(船籍 〓 漢州郡注 文津 機艙船 二馬力) 船長 〓 정규하(四二) 機艙長 〓 양남길(五〇) 船員 〓 김천우(五四) 〓 장인우(四二) 〓 이인팔(五〇) 〓 이영환(四四) 〓 풍어호(船籍 〓 漢州郡注 文津 機艙船 一五馬力) 船長 〓 황남준(五九) 機艙長 〓 장만호(四二) 船員 〓 김용익(五六) 〓 이계현(三四) 〓 최관남(四九) 〓 서도환(二九)

경남일보 (西曆一千九百五十八年十二月二十二日)

船員 22 名과

六隻은 歸還

佛侶들의 拉致事件

치안국의 물어온 장안도
 경찰부보에 의하면 지
 남 6인 중 해안 유전선부
 근에서 이로작업을 하다
 가 피뢰침선에 강제압
 치되었던 어선 하영호(河
 榮號)의 표적과 창선 22
 2명이 20일 아침 5명
 서경 포성군거전(巨擘)
 파 해진(大津)항에 들
 아왔다 함과
 지남 6인 중 해안 유전선
 부근에서 활동한 피뢰침의
 신남치사건의 피뢰침선 7척
 과 창선 4척 11명이 강제
 포 복항에 압류된 것인 데
 어선 1척은 호(第 1 號 佛
 侶)와 창선 20명(佛侶 20
 名)과 창선 4척(佛侶 4 名)의
 5명 창선 14명(佛侶 14 名)과
 창선 5명(佛侶 5 名)과 창선
 11명(佛侶 11 名)등 22
 2명(佛侶 22 名)의 6척(佛
 侶 6 隻)은 20일 아침 5명

傀倭軍 生歸 行

우리漁船 七隻 拉致

지난 30日 黃海 休戰線 근처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被拉漁船七隻歸還

경향에서 알려진바에 의하면 지난 7월 19일경 해안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고기잡이 중 하다가 북한 피뢰부

장선대의해 강제납치되었던 우리 어선 7척이. 선원 三十六명 포함해 廿二일인 전향에 돌아왔다

경향에서 알려진바에 의하면 지난 7월 19일경 해안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고기잡이 중 하다가 북한 피뢰부장선대의해 강제납치되었던 우리 어선 7척이. 선원 三十六명 포함해 廿二일인 전향에 돌아왔다

경향에서 알려진바에 의하면 지난 7월 19일경 해안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고기잡이 중 하다가 북한 피뢰부장선대의해 강제납치되었던 우리 어선 7척이. 선원 三十六명 포함해 廿二일인 전향에 돌아왔다

被拉漁夫19名歸還

漁船세隻과 함께 八日東草港에

【嶺東支社】八일 상오六시에 남치의였던 어선용
 船十五隻속초항(東草港) 진호(龍津號) 신용호(新
 龍號) 흥신호(興信號) 등 여 19인. 군사령부는 지
 에는 지난달十三, 四양인 있는 군사정전위원회를통
 간에 걸쳐 동해안에서 어 삼척과 어부十九명이 귀환
 보작업을 하다가 북한과 하였다. 동남치사건에 대하
 려브내라고 요구한 바 있다

남북사건 보도 자료집

60년대 (1960 ~ 1969)

- ▶ 금강호, 대덕호, 덕길호, 순광호, 영신호, 용흥호 납북(61.4.7) 21
- ▶ 금강호, 대덕호, 덕길호, 순광호, 영신호, 용흥호 귀환(61.4.22) 23
- ▶ 만리호 귀환(63.5.29) 24
- ▶ 고려호, 반도호, 신성호, 판부호, 학성호, 해복호 귀환(62.9.4) 25
- ▶ 제1보승호, 제2보승호 귀환(64.4.15) 26
- ▶ 갑진호, 강인호, 강화호, 광덕호, 광왕호, 길영호, 대복호, 대안호, 덕성호, 동성호, 동안호, 명길호, 목선호, 무궁호, 물경호, 복덕호, 복룡호, 복해호, 봉성호, 부성호, 부영호, 삼능호, 삼산호, 삼판호, 성신호, 송강호, 순덕호, 순복호, 순익호, 순일호, 순풍호, 순흥호, 신광호, 신성호, 신흥호, 어장호, 연흥호, 영신호, 영종호, 영충호, 영풍호, 외포호, 용정호, 장흥호, 제2광명호, 청룡호, 해룡호, 홍근호, 홍일호, 황일호, 흥천호 귀환(64.9.15) 30
- ▶ 제2광명호 귀환(64.11.12) 36
- ▶ 북미호 귀환(64.1.18) 39

- ▶ 제6대영호, 제17대영호 납북(65.4.26) 40
- ▶ 제6부포호 귀환(65.5.16) 42
- ▶ 승리호, 영락호, 용미호, 용복호, 칠복호 납북(65.10.29) 43
- ▶ 덕삼호, 치수호, 해성호, 대동호, 진양호 귀환(65.12.20) 45
- ▶ 안흥호 귀환(66.1.9) 46
- ▶ 동명호, 영풍호 납북(66.1.26) 48
- ▶ 명덕호, 행영호 귀환(66.2.8) 51
- ▶ 동명호, 영풍호, 춘곡호 귀환(66.5.2) 53
- ▶ 제2대성호 귀환(66.8.29) 55
- ▶ 부안호 귀환(67.2.13) 56
- ▶ 복성호 귀환(67.2.27) 57
- ▶ 천대11호 납북(67.4.22) 58
- ▶ 제3용진호 귀환(67.6.3) 60
- ▶ 남성호, 당수호, 대천호, 덕성호, 백마강호, 선덕호, 순덕호, 승용호,
안흥호, 제7갱생호, 창성호, 태양호, 한진호 귀환(67.9.25) 61
- ▶ 제21동림호 귀환(67.9.26) 64
- ▶ 거성호, 경인호, 금성호, 금운호, 금창호, 남풍호, 순광호, 어성호,
영명호, 영흥호, 용명호, 정성호, 해양호, 홍미호 납북(67.11.3) 65
- ▶ 금성호 납북(67.11.11) 68
- ▶ 성신호 납북(67.11.25) 69
- ▶ 무진호, 제성호, 태아3호, 태아9호 귀환(67.12.19) 70
- ▶ 홍진호 납북(67.12.20) 73

- ▶ 부승1호, 부승2호, 송양호, 정진호 귀환(67.12.24) 74
- ▶ 송영호 귀환(67.12.25) 75
- ▶ 광영호, 보수호, 성진호 납북(67.12.25) 76
- ▶ 거성호, 경인호, 금성호, 금창호, 순광호, 어성호, 영흥호, 용명호,
정성호, 해양호, 홍미호 귀환 (67.12.26) 77
- ▶ 신광호 납북(68.1.6) 78
- ▶ 덕인호, 홍익호 납북(68.1.6) 79
- ▶ 금철호, 창덕호 납북(68.1.11) 80
- ▶ 광명호, 금성호, 보수호, 성신호, 성진호, 장성2호, 장성호,
홍진호 귀환(68.3.21) 81
- ▶ 광진호, 신광호, 신양호, 신창호, 제1장진호, 제2태창호, 제장호,
행덕호, 홍익호 귀환(68.3.23) 82
- ▶ 성운호 납북(68.5.28) 83
- ▶ 금영호, 세창호, 순복호, 양성2호, 축복호 납북(68.6.17) 84
- ▶ 요나호 납북(68.6.26) 85
- ▶ 대복1호, 덕수2호 납북(68.8.7) 86
- ▶ 기성호, 길성호, 백악호, 어재호, 영창호, 용명호, 해진호 납북(68.10.30) 87
- ▶ 백악호, 신길호, 어재호, 영창호, 용명호 납북(68.10.30) 88
- ▶ 기성호, 해진호 납북(68.10.30) 89
- ▶ 가덕호, 만복호, 태양호, 풍년호 귀환(68.11.1) 90
- ▶ 대창호, 양성호, 축복호 귀환(68.11.1) 91
- ▶ 대창호, 선수호, 세창호, 양성호, 제5공진호 귀환(68.11.1) 92

▶ 가덕호, 만복호, 태양호, 풍년호 귀환(68.11.1)	93
▶ 월진호 납북(68.11.1)	94
▶ 덕산호, 영신호, 제2성북호, 제6복성호, 취영호, 해양호 귀환(68.11.1)	95
▶ 건설호, 동일호, 준호, 청길호 납북(68.11.7)	96
▶ 대동호, 수진호, 풍성호 납북(68.11.8)	97
▶ 동호2호, 흥덕호 귀환(69.11.3)	98

경

합 직 보

(1961年4月10日)

西曆一九六一年四月十日

(月曜日)

拉北漁夫 名單發表

【東敦機關】十日 會報部
 總務室 趙正南 七日 會報部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船名

金剛호 大德호 德길호 順光호 永新호 龍興호
 金剛호 大德호 德길호 順光호 永新호 龍興호

▲船長名

金剛호 (船)	大德호 (船)	德길호 (船)	順光호 (船)	永新호 (船)	龍興호 (船)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金剛호 (船)	大德호 (船)	德길호 (船)	順光호 (船)	永新호 (船)	龍興호 (船)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趙正南

倭艦艇東海에侵入

漁船六隻 43名을拉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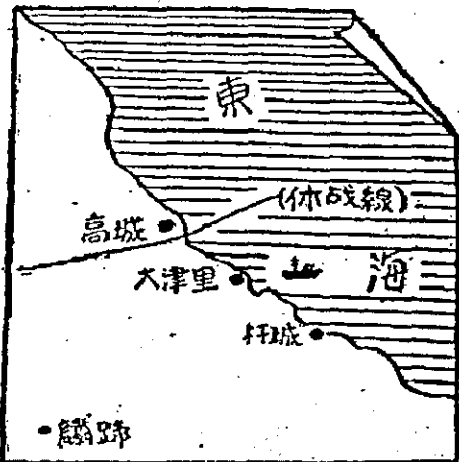
休戰線南方 40分交戰 끝에逃走

【東京支社】七일상오 十시 四十分 東해안 휴戰線 남방에 倭艦艇 六隻 43名을 拉致한 사실이 傳聞되나 倭艦艇 六隻의 南進은 休戰線 남방 40分 交戰 끝에 逃走한 것으로 傳聞되고 있다.

海軍선 非常警備에突入

【東京支社】七일상오 十시 四十分 東해안 휴戰線 남방에 倭艦艇 六隻 43名을 拉致한 사실이 傳聞되나 倭艦艇 六隻의 南進은 休戰線 남방 40分 交戰 끝에 逃走한 것으로 傳聞되고 있다.

海軍本部發表



(休戰線以南에 倭艦艇 六隻의 南進을 傳聞되고 있다)

倭艦艇 六隻 43名을 拉致한 사실이 傳聞되고 있다. 倭艦艇 六隻의 南進은 休戰線 남방 40分 交戰 끝에 逃走한 것으로 傳聞되고 있다.

(土曜日)

日曆一九六一年四月二十二日

(第三版(木曜時))

22日 아침소모원員歸還

德備艦艇에 拉北왔던 漁夫들

지남七일제복 휴전선출발전

한미회담결의 당초부터였다

미어선六척과 어부四十三명

전원의 二十一日 아랑어현

미해협을 통과

이튿날 오전九시경 대우항에 도착

정신정모용이던 우리인원도

휴전선착륙이후부터 당하야

한 1척의 어선(대우항)을 하역

전날 정사함정복을 직수입한

정사함정용정복과 어부복원만

유머민하야 마칠(歸還)할

이러한 선종(종교)

어선(어선)과 어부(어부)의

정장(정장)과 정복(정복)의

일(일)과 정복(정복)의

정장(정장)과 정복(정복)의

정장(정장)과 정복(정복)의

정장(정장)과 정복(정복)의

정장(정장)과 정복(정복)의

정장(정장)과 정복(정복)의

정장(정장)과 정복(정복)의

정장(정장)과 정복(정복)의

정장(정장)과 정복(정복)의

정장(정장)과 정복(정복)의

정장(정장)과 정복(정복)의

萬里號歸還

拉北된지 24日만에

【加支社】전남도인 연평도 어포지진선 한해에서 피뢰 무장선한테 강제납북당했던 만리호(萬里號)一九〇三 船長金夏壽(58)가 24일 만인 29일하오 8시출선된九명승 태우고 인천항에 귀환했다.

당국조사에의하면 이어선 은 남치원부인 8일새보 8

시15분쯤 황해도태주용담포(龍塘浦)항에 골려가 8일간 체류하면서 하라는데로 공장파시가적구경올한후 다시 황암으로골려가서 14일간 있었으며 지난25일에 는 함흥에가서 3일간 체류한후 다시 평양을 거쳐 이날하오 귀환했다는 것이 다.

조선일보 (1942년 9월 4일) (木曜)

이젯밤 仁川入港

漂流漁夫四陣: 未歸還者一名

【仁川訊】네월「이젯」호 전부구의 도착했다. 이 호가 이젯호로 떠났던 신안호는 39명의 어부가 4시간 동안 5월 2일 6시에 6명의 어부가 2시간 동안 도착했다.

정인호 이 8명중 판부호의 단골이던 이선호(9시)인 전 파수부구의 귀환했다. 8일까지 4차에 걸쳐 27척 1명 41명의 어부가 귀환했다. 이 호는 신안호와 노령호의 전부구 1명 41척 3명의 어부중 1척의 전부구로 판부구로 전부구로 전사중이다. 이 호는 신안호의 전부구 39명의 어부만 귀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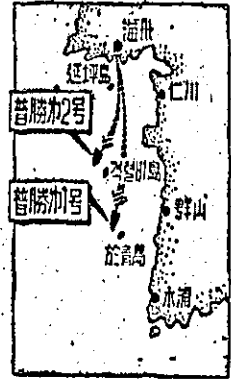
◇판부호 (船名=장화 4명) 판부호 (39=船長) 1명
 장 (38=船長) 노인원 (30=船長) 장문진 (60=船長)
 ◇신성호 (船名=德根 3명) 장기호 (27=船長) 장승환 (58=船長) 장문자 (22=船長)

◇학성호 (船名=忠南 8명) 하순남 (43=船長) 이근영 (47=船長) 이근순 (57=船長)
 장문선 (19=船長) 장정봉 (44=船長)
 ◇반부호 (船名=德根 4명) 장완수 (38=船長) 장문선 (54=船長) 장문진 (42=船長) 장문진 (17=船長)
 ◇판부호 (船名=忠南 4명) 장문진 (47=船長) 장문진 (51=船長) 장문진 (33=船長) 장문진 (33=船長)
 ◇판부호 (船名=德根 8명) 장문진 (39=船長) 신명순 (44=船長) 장문진 (33=船長)

漁北 25日만에 26名無事히 돌아오다

第1 於青島에 第2 連絡杜絶

【釜山에서本社特派員 朴善植(釜山) 釜山 15日電】 北朝鮮의 漁民들이 25日만에 26名無事히 돌아오다. 이 26名은 第1보승호(普勝號)와 第2보승호(普勝號)의 漁民들이며, 이들은 25日에 釜山에 도착하였다. 이 26名은 25日에 釜山에 도착하였다. 이 26名은 25日에 釜山에 도착하였다.



소시되고 기뻐하는 漁夫

於青島로 警備艇이 到着

【서울 15日電】 北朝鮮의 警備艇이 25日 於青島에 到着하였다. 이 警備艇은 25日에 於青島에 도착하였다. 이 警備艇은 25日에 於青島에 도착하였다. 이 警備艇은 25日에 於青島에 도착하였다.

1. 漁民들이 25日만에 26名無事히 돌아오다. 이 26名은 第1보승호(普勝號)와 第2보승호(普勝號)의 漁民들이며, 이들은 25日에 釜山에 도착하였다. 이 26名은 25日에 釜山에 도착하였다. 이 26名은 25日에 釜山에 도착하였다.

洞里가 歡喜속에 最高로 기뻐다



【서울 15日電】 北朝鮮의 漁民들이 25日만에 26名無事히 돌아오다. 이 26名은 第1보승호(普勝號)와 第2보승호(普勝號)의 漁民들이며, 이들은 25日에 釜山에 도착하였다. 이 26名은 25日에 釜山에 도착하였다. 이 26名은 25日에 釜山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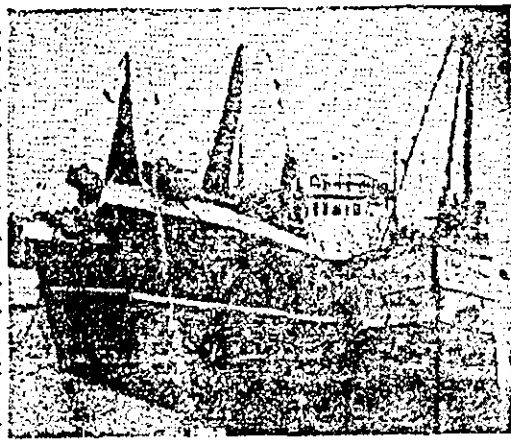
第2普勝號 침몰

11名溺死 2名은救助 小延坪島南方海上서 海軍警備艇을現場에急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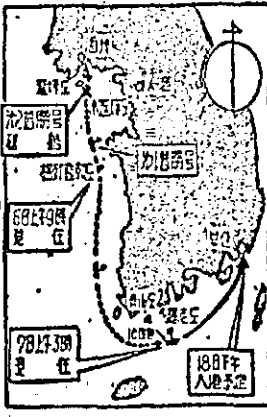
仁川에서 本社特派員 黃丹堉·金龍起·劉錫
 澤·金汝錫發] 北해역에 拉北號의 沈沒과 溺死한 11名의
 救助를 위한 海軍警備艇을 現場에 急派한 消息이 仁川에서
 18日 오후 1時 30分경에 仁川에서 傳聞되었다. 이 消息은 18日 오후 1時 30分경에 仁川에서 傳聞되었다.

拉北 26日만에 풀렸건만 안개속을 漂流 끝에 慘變

▲3月20日(수요일) 仁川에서 出항한 拉北號의 沈沒消息이 18日 오후 1時 30分경에 仁川에서 傳聞되었다. 이 消息은 18日 오후 1時 30分경에 仁川에서 傳聞되었다.



○仁川에서 本社特派員 黃丹堉·金龍起·劉錫澤·金汝錫發] 北해역에 拉北號의 沈沒과 溺死한 11名의 救助를 위한 海軍警備艇을 現場에 急派한 消息이 仁川에서 18日 오후 1時 30分경에 仁川에서 傳聞되었다.



- 拉北當時의 第二 普勝號船員 (9名 14名)
- ▲船長 李正基 (40)
 - ▲副船長 朴正基 (40)
 - ▲一等水手 朴正基 (40)
 - ▲二等水手 朴正基 (40)
 - ▲三等水手 朴正基 (40)
 - ▲船醫 朴正基 (40)
 - ▲船員 朴正基 (40)
 - ▲船員 朴正基 (40)
 - ▲船員 朴正基 (40)
 - ▲船員 朴正基 (40)

▲4月18日(수요일) 仁川에서 出항한 拉北號의 沈沒消息이 18日 오후 1時 30分경에 仁川에서 傳聞되었다. 이 消息은 18日 오후 1時 30分경에 仁川에서 傳聞되었다.

死線넘은 두船員 어제仁川에

그때 우린을면서 헤어졌다

甲板위에선 '죽으려고 떠나는나, 말리기도

처음 13名모두 「드림」통에 百미터를漂流하다 燈臺소리를 듣고

2船員
還歸日記

仁川에서本社特派員金宗南君(金宗南)의 2船員(2船員)의 還歸日記(還歸日記)을 소개한다. (仁川에서本社特派員金宗南君(金宗南)의 2船員(2船員)의 還歸日記(還歸日記)을 소개한다.)



拉北에서生還까지

황해의심연안에서 기쁜기색숨기고

約略1週日, 難航속인平壤구경

○2船員(2船員)의 還歸日記(還歸日記)을 소개한다. (2船員(2船員)의 還歸日記(還歸日記)을 소개한다.)

기쁜의 무성함어두 밤이(음)과 離別

仁川에서本社特派員金宗南君(金宗南)의 2船員(2船員)의 還歸日記(還歸日記)을 소개한다. (仁川에서本社特派員金宗南君(金宗南)의 2船員(2船員)의 還歸日記(還歸日記)을 소개한다.)

仁川에서本社特派員金宗南君(金宗南)의 2船員(2船員)의 還歸日記(還歸日記)을 소개한다. (仁川에서本社特派員金宗南君(金宗南)의 2船員(2船員)의 還歸日記(還歸日記)을 소개한다.)

喜悲엇갈린

仁川埠頭

送還漁夫를 기다리는 焦燥한 血線을

○仁川에서 本社特派員 鄭光毅·孫光六·金
 ○鄭光毅·孫光六의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本社特派員 鄭光毅·孫光六·金

○仁川에서 本社特派員 鄭光毅·孫光六·金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소식 歸鄉은 꿈같은 웃고 울며 名單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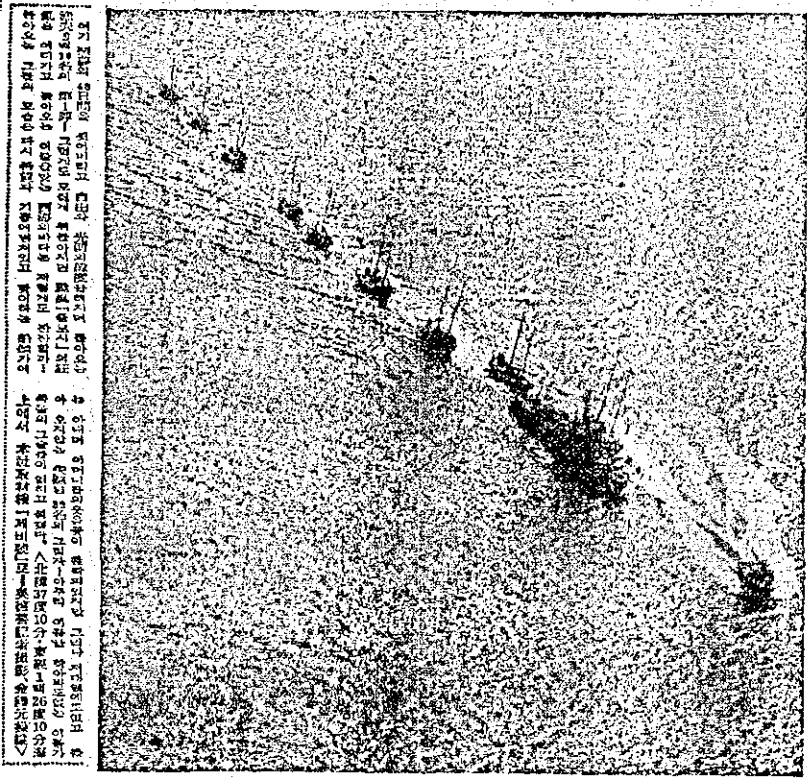
도둑의 「妻」... 주저앉은 「漁夫」의 嘆息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仁川에서

꿈은 아니었다 - 自由의 배길



北朝鮮의 自由를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는 北朝鮮의 志士들. 그들은 自由를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 그들은 自由를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 그들은 自由를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

韓家漁夫言仁加上陸

62名의 生死 끝내 감감

【仁川 17日電】 北朝鮮의 漁夫들이 仁川에 上陸한 後, 仁川의 各處에 散佈되어 있는 韓家 漁夫들 62名의 生死를 究明하지 못했다고 한다. 北朝鮮의 漁夫들이 仁川에 上陸한 後, 仁川의 各處에 散佈되어 있는 韓家 漁夫들 62名의 生死를 究明하지 못했다고 한다.

歸總인내일다

【仁川 17日電】 北朝鮮의 漁夫들이 仁川에 上陸한 後, 仁川의 各處에 散佈되어 있는 韓家 漁夫들 62名의 生死를 究明하지 못했다고 한다. 北朝鮮의 漁夫들이 仁川에 上陸한 後, 仁川의 各處에 散佈되어 있는 韓家 漁夫들 62名의 生死를 究明하지 못했다고 한다.

○ 仁川에 上陸한 北朝鮮의 漁夫들이 仁川의 各處에 散佈되어 있는 韓家 漁夫들 62名의 生死를 究明하지 못했다고 한다. 北朝鮮의 漁夫들이 仁川에 上陸한 後, 仁川의 各處에 散佈되어 있는 韓家 漁夫들 62名의 生死를 究明하지 못했다고 한다.

送還漁夫名單

△7面에서繼續▽

◇잡인호

- ▲최중봉 (42 || 강화양사면)
- ▲장창호 (57 || 중남서산면)
- ▲고종의 (25 || 강화양사면)
- ▲이봉업 (54 || 강화양사면)
- (28 ||)

◇순덕호

- ▲송영환 (37 || 부천덕적)
- ▲이원웅 (22 ||)
- (36 ||)
- ▲배병립 (30 ||)
- ▲최근중 (31 ||)

◇순의호

- ▲이종만 (54 || 강화군삼선면)
- ▲조호준 (34 || 강화군호도면)
- ▲최준식 (46 ||)
- ▲유천우 (39 ||)
- ▲김윤재 (37 ||)
- ▲김영환 (28 ||)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강석주 (28 || 동)

▲김정연 (19 || 동)

▲심인수 (27 || 부천영)

▲강정선 (61 || 강화내)

▲김용식 (36 || 동)

▲정철수 (36 || 동)

▲고병학 (41 || 동)

▲박유산 (57 || 동)

▲병욱 (55 || 동)

▲송강호 (54 || 대동)

▲황근석 (46 || 강화교동)

▲정진우 (43 || 강화삼선)

▲장용선 (46 || 동)

▲김봉연 (36 || 인천송림동)

▲이동현 (35 || 인천화평동)

▲김지부 (56 || 강화서도면)

▲김종열 (61 || 강화교동)

▲유선주 (22 || 강화서도면)

▲정갑인 (27 || 강화서도면)

◇용정호

▲한규오 (31 || 강화화도)

▲한규혁 (40 || 상동)

▲문찬혁 (87 || 화선)

◇제오방면호

▲방유복 (44 || 강화도면)

▲한기순 (80 || 동)

▲이영환 (52 || 강화교동면)

▲정선환 (42 || 강화화도면)

◇호정호

▲이성배 (44 || 인천 송림동)

▲이성환 (27 || 강화 화동)

▲안기선 (28 || 동)

▲이영개 (46 || 동)

▲김준철 (22 || 동)

◇부흥호

▲합규석 (38 || 강화군길산면)

▲신창균 (48 || 동)

▲이선혁 (52 || 동)

▲김동배 (48 || 동)

김충식(52) 강화도면
▲신복현(57) ▲최영현(37) ▲채영현(39)

◇농업

▲정원현(55) 강화삼산면
▲이길현(24) ▲박인후(40) 강화도면 ▲손정신(44) 강화대가면 ▲김수인(29) ▲김길수(26) 강화도면 ▲정영대(26) 강화대가면 ▲문근현(54) 평포현면 ▲류승도(50) 인현 ▲장주석(32) 평포현 ▲임광영(52) 강화대가면 ▲박동식(53) 평포현 ▲손기석(50) 평포현
◇강화현
▲최윤식(27) 강화도
▲장호선(26) 강화삼산

박정식(41) 강화사도 ▲김광환(40) 강화도

◇수목

▲최중현(48) 강화양사 ▲박의훈(46) ▲최영현(18) ▲오길재(28) ▲김영우(62) ▲장대홍(49) 강화양사 ▲이상억(50) ▲고학수(50) ▲김종열(44) ▲조기석(36) 강화현 ▲장영원(36) 강화양사 ▲장영도(62) ▲강천욱(34) ▲고오현(26) 강화 ▲장상석(26) 강화대가
◇삼현
▲유호선(45) 강화삼산 ▲홍익식(20) ▲고정근(20) ▲박정선(50) 김

조대근 ▲우영우(31) 강화도 ▲정순현(30) 강화양

◇수목

▲정영현(35) ▲정만중(19) ▲김창현(55) ▲김종자(21) ▲김홍식(22) ▲이광주(43) ▲박기선(43)
◇신광현
▲김순택(28) 강화삼산 ▲최상현(27)
◇농근현
▲이인부(49) 강화도 ▲김영주(46)
◇배안현
▲박창현(55) 평포 ▲박수홍(55) ▲권지환(44) ▲구자시(42)
◇부영현

▲이광단(30) 평포현 ▲박이환(29) ▲김상영(39) ▲이진지(48)

◇수목

▲정영웅(28) 인현사 ▲이서남(56) 북포사 ▲민승환(18) 화성장 ▲임정수(57) 인현양 ▲장수연(57) 인현만
◇신광현
▲박유복(30) 부천면 ▲우송환(56) 강화삼산 ▲박순섭(42) 평포현 ▲손명근(55) 웅진향 ▲박영원(51) 평포현 ▲박진영(33) 강화삼산 ▲김연재(30) ▲최영석(39) 강교동
(以上 2百19名)

西曆1964年11月18日

조선신문보

(제302호)

拉北「光明號」護送

동해관경비중이던 해군함정 612함이 11일 하오 10시 동해적진단(猪津端) 동북방 20.5 「마일」 해상에서 남 북되었던 정인광명호(光明號)를 「백이대」로합쳐, 발 견하고 호송중이있다.

제2광명호는 지난 28일 새벽 4시 거진(巨津) 동수리 앞바다에서 조업중 수원단(水源端) 동포양동식(東浦陽洞食) 함정 「101」 3척과 이양식(伊陽食) 함정 「102」 3척과

漁船한隻 또 拉北

高城앞바다서 北傀警備艇에 끌려

16일 상오 동해 고성 앞바다에서 어로중이던 우리어선 1척이 북괴경비정(D·T) 3척에 의해 납북되었다고 군당측에 보고되었다.

어선의 이름과 선원수 등은 일체 확인되지 않았다.

漁船한隻 또 拉北

高城앞바다서 北傀警備艇에 걸려

1. 高城 앞바다에서 한隻의 漁船이 北傀警備艇에 걸려서 擄려졌다.
 2. 該 漁船은 高城 앞바다에서 漁獲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3. 北傀警備艇은 該 漁船을 발견하고는 該 漁船을 擄려서 北傀領海로 끌고 갔다.
 4. 南傀政府은 北傀政府에 該 漁船의 擄려 사실을 알리고서 該 漁船의 擄려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5. 北傀政府은 南傀政府의 요구를 묵살하고서 該 漁船을 北傀領海에서 擄려한 채로 있다.

복미호 귀환(64.1.18)

복 미 호 귀 환

(1964年1月18日)

西曆1964年1月21日

拉北漁夫の歸郷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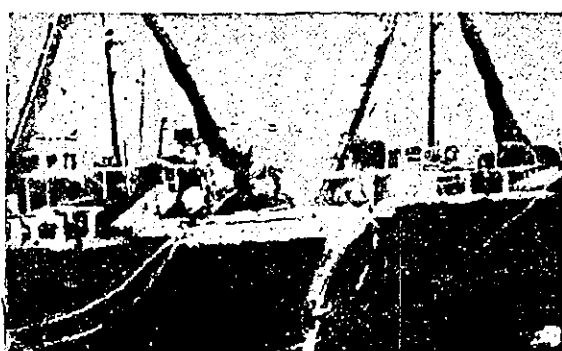
【歸郷港】北緯 35° 30' 東經 125° 30'

北緯 35° 30' 東經 125° 30' 北緯 35° 30' 東經 125° 30' 北緯 35° 30' 東經 125° 30'

제6대영호, 제17대영호 남북(65.4.26)

延坪島 近海 漁船 早 復舊 拉北

第6,17大榮號 船員 25名 도



○상단 사진은 제17대영호(右)와 제6대영호(左)의 선상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래 사진은 구조된 25명 선원들의 모습이다.

【서울 26일 특보】 제6대영호(右)와 제17대영호(左)의 선상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래 사진은 구조된 25명 선원들의 모습이다.

【서울 26일 특보】 제6대영호와 제17대영호의 선상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래 사진은 구조된 25명 선원들의 모습이다.

【서울 26일 특보】 제6대영호와 제17대영호의 선상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래 사진은 구조된 25명 선원들의 모습이다.



風浪 심해 航海 困難

拉北 前 無 霧

【서울 26일 특보】 제6대영호와 제17대영호의 선상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래 사진은 구조된 25명 선원들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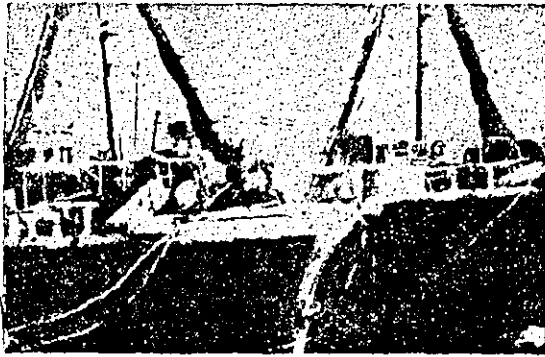
悲報 듣자 울음바다

離散 族 族 族 의 悲 劇

【서울 26일 특보】 제6대영호와 제17대영호의 선상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래 사진은 구조된 25명 선원들의 모습이다.



○위 사진은 구조된 25명 선원들의 모습이다.



제6대영호(상) 제17대영호(하)의 납북현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延坪島
近海

漁船 延平 北

第6·17大榮號船員25名도

【延平】 제6대영호(상) 제17대영호(하)의 납북현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상) 제6대영호는 (하) 제17대영호와 함께 납북되었다. (상) 제6대영호는 (하) 제17대영호와 함께 납북되었다. (상) 제6대영호는 (하) 제17대영호와 함께 납북되었다.

【延平】 제6대영호(상) 제17대영호(하)의 납북현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상) 제6대영호는 (하) 제17대영호와 함께 납북되었다. (상) 제6대영호는 (하) 제17대영호와 함께 납북되었다. (상) 제6대영호는 (하) 제17대영호와 함께 납북되었다.



延平島 北 延平島 北 延平島 北

風浪 심해 航海 困難

【延平】 제6대영호(상) 제17대영호(하)의 납북현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상) 제6대영호는 (하) 제17대영호와 함께 납북되었다. (상) 제6대영호는 (하) 제17대영호와 함께 납북되었다. (상) 제6대영호는 (하) 제17대영호와 함께 납북되었다.

悲報 延平 北

【延平】 제6대영호(상) 제17대영호(하)의 납북현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상) 제6대영호는 (하) 제17대영호와 함께 납북되었다. (상) 제6대영호는 (하) 제17대영호와 함께 납북되었다. (상) 제6대영호는 (하) 제17대영호와 함께 납북되었다.



延平島 北 延平島 北 延平島 北

안개 낀 江華浦口

밤지새우며痛哭

拉北漁夫家族들... 안타까운 몸부림만...

〈모두 가난한 영세민〉 婦女者들도 끌려가...

每件 經緯 私服武装軍人들이 갑자기包圍

【江華島에서】本社特派員 張光太 金榮準 吳漢成 趙東福 盧炳錫 金德英 梁正福 等記者가 江華島에서 北朝鮮의 軍人들이 突然히 包圍한 事를 報じた。北朝鮮의 軍人들은 江華島에서 南朝鮮의 漁夫家族들을 包圍하고 私服武装軍人들이 갑자기 包圍한 事를 報じた。北朝鮮의 軍人들은 江華島에서 南朝鮮의 漁夫家族들을 包圍하고...

北朝鮮의 軍人들은 江華島에서 南朝鮮의 漁夫家族들을 包圍하고 私服武装軍人들이 갑자기 包圍한 事를 報じた。北朝鮮의 軍人들은 江華島에서 南朝鮮의 漁夫家族들을 包圍하고...



○안타까운 기대되고 있는 남북어부 가족들

拉北江華漁夫들... 31日現在... 北朝鮮의 軍人들이 突然히 包圍한 事를 報じた。北朝鮮의 軍人들은 江華島에서 南朝鮮의 漁夫家族들을 包圍하고...

漁夫97名拉北

咸朴島 개펄서 조개잡이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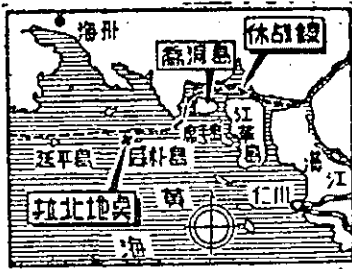
北傀武装軍人 이 奇襲

漁船 1 隻은 沈沒

【江華島에서本社特派員張光大金泰準吳浩成趙東鎰盧炯鉉金奎京張星植發】29일 오후 4시 15분경 남해상에서 한 남측의 어선이 북측의 어선과 충돌하여 남측의 어선 1척이 침몰하고 97명의 어민이 인양되지 못한 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남측의 어선인 '용복호'와 북측의 어선인 '승리호'가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남측의 어선 1척이 침몰하고 97명의 어민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남측의 어선인 '용복호'와 북측의 어선인 '승리호'가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남측의 어선 1척이 침몰하고 97명의 어민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4隻과 百35名脱出

대부분 注文·阿此島住民을



이 사고로 남측의 어선 4척과 북측의 어선 1척이 충돌하여 남측의 어선 1척이 침몰하고 97명의 어민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남측의 어선인 '용복호'와 북측의 어선인 '승리호'가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남측의 어선 1척이 침몰하고 97명의 어민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남측의 어선인 '용복호'와 북측의 어선인 '승리호'가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남측의 어선 1척이 침몰하고 97명의 어민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의 어선 4척과 북측의 어선 1척이 충돌하여 남측의 어선 1척이 침몰하고 97명의 어민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남측의 어선인 '용복호'와 북측의 어선인 '승리호'가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남측의 어선 1척이 침몰하고 97명의 어민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남측의 어선인 '용복호'와 북측의 어선인 '승리호'가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남측의 어선 1척이 침몰하고 97명의 어민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拉北의 海賊行爲 即刻發還管要求 洪公報長官

北傀의 海賊行爲 即刻發還管要求 洪公報長官

1965年12月21日 (火曜日) 중 앙 일 보

한 달만에 귀환

拉北됐던漁夫35명

남1명
고1명

【束草】 지난달 20일 밤 12시 동해어로 저지선 부근에서 덩태 잡이를 하다가 실종됐던 어부 36명이 어선 6척과 함께

무장경비정 1척으로부터 기 관총 위협 발사를 받고 강 제 납북됐었다.

남북되었다가 1개월만인 20일 하오 1시 30분쯤 그중 35명(1명은 미귀환)이 江原도 高城군 巨津항에 돌아왔다. 이들 어선은 지난달 20일 자정께 동해어로 저지선 부근에서 덩태 잡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돌연 나타난 북괴

이반에 돌아온 어부 35명은 지난 20일 상오 1시 30분쯤 북한땅 「장전항」을 출발, 남하중인 것을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경비중이던 우리해군 57함정이 발견, 巨津항으로 호송했는데 어부들의 신병은 군당국의 심사를 끝낸 후 경찰에 인계되어 귀가 조치된다.

동해의 귀환이다. 안흥호

拉北됐던漁船 巨津港에歸還

잡이틀하다가 남북되었던 우
 리어선 1척(8톤·선명미
 상)이 9일상으로 東海군사
 본제선 부근해상에서 남하
 하는것을 순시중이던 해군
 경비정이 발견, 江原道高城
 군 巨津항으로 연행했다.
 이 배는 구탐21일상오4시
 巨津항을 출항, 명태잡이틀
 마치고 귀항도중 기판교장
 으로 표류하다 북도경미포
 해군 경비정에서 발견되었었다.

안흥호 귀환(66.1.9)

조선일보

(제1436호)

西曆1966年1月11日

拉北漁船歸港

抑留19日만에

서기관고장으로 귀환한다

선 12월 22일 북의경비정예단
부트원대어선(7·9동선
장 회동선·48) 1척이 9
일 낮 남하중 해군경비정의
인도할 밤아 낮 12시 40분쯤
거전항역 앞아왔다.

두隻은 끌려가고 反抗한 船長 피살

【東草 李云·楊順熙駐在記者】

우리어선이 中淸부장선에 납치되어

간지 불과 5일만인 26일하오동해 高城 앞바다 어로지선 근해에서 명태잡이불
하던 우리어선 5척이 북괴뢰속정 5척으로부터 피습, 선장은 피살되고 선원
3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어선 2척(漁夫 12명)이 강제 납치되었다. 이날 하오
北傀快艇은 우리漁船들에 3차에 걸쳐機關砲사격을 가해오다을, 남괴와것인대
바다는 無防備狀態에 있어 漁民들은 不安에 떨고있다. △詳報 8면에

東明號 永豐號 2隻을 拉北

東海 漁船被襲事件 續報

【東軍에서 本社特派員 李順江陵中樞電話로 보도】 東海漁場附近에서 北傀艦의襲撃을 받은 우리漁船 5척 중京

關號(13호·20馬力·선적巨津)와 永豐號(15호·20馬力·선적巨津)가 拉致되었다. 機關砲의 集中射擊을 받은 神仙號의 船長 金龍澤

(41)씨가 被殺되고 2명 이 부상을 입은채 神仙號 와 第2東洋號 光得號가 벗어났는데, 彈痕을 볼 수 있는 剝出에 成功 歸港했다. 西海岸에서 中共武裝船團 이 吉龍號를 拉致한지 5 일만에 잇달아 인연남 北 領의 發行으로 東海岸 漁

港을 恣恠하게 襲아 擄았다. (關係記事 3面에) 北傀의 好戰的 蠻行 洪公報非難 政府代辦人 洪鍾哲公報部 長官을 27日 心신호被擊事 件에 對하여 유감의 뜻을 표 하였고 『北傀艦의 恣恠적

인 發行을 또한 擄아 擄았다.』 이라고 규탄했다.

명덕호, 행영호 귀환(66.2.8)

1966年2月9日

(水曜日)

중 앙 일 보

(陰一月十九日 己亥)

두라北漁船은歸還

少年7名안보내고

【東寧】좌년11월말 동해어
투저지선 근해에서 명태잡
이하다 남획되었던明德호
(12톤·선장 金鍾沃·39||
선원18명)와 李東根(8톤
·선장 李東根·50||선원6
명)등 2개선의 어부생환
의식할려 8일 하오7시30

분함 해군함정의 보호를받
으며 귀환. 墨湖항에서 조
사를 받고있다.

그러나 明德호에 타고있
던 학생등소년들7명은 계
속 억류되고있는것으로 알
려졌다.

◇귀환어부

- ▲明德號||선장 金東育(48)
- 선원 趙대영(43) 金學伊
- (45) 趙장선(43) 趙학전
- (37) 金永泰(35) 賈仁洙(32)
- 金九學(25) 李제원(38) 李
- 실관(28) 원석주(31) 金大
- 泰(48)
- ▲南永號||선장 李東根
- (51) 선원 白하태(40) 金

- 서진(34) 임준익(32) 고정
- 길(26)
- ◇미귀환자

- ▲明德號||李빙기(17) 金
- 장원(16) 崔일준(18) 朱인
- 복(19) 金석만(18) 李창영
- (19)
- ▲南永號||朴용수(27)

明德號 海榮號

두라北漁船귀환

【경주】 지난 11월 11일 평양 동해안으로 진출한 두라에서 오

진어잡이를 하다가 남북통일

우리의선 명덕호(明德號)·

12번·선상 승무원(39)와 선

영장(海榮號)· 8명· 선상

주요장(가) 8인· 승무원 8

명의 부피의 일부에서 8

명의 선원 18명 중 12명

의 함정 돌아왔다.

이들은 귀환후 평양의 선

사관 장교인 김태영 장교

원인등부 선원등 2명 등

11명의 선원들은 계속 북한

의 임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종아순 선원과 아

직 종아오지않은 선원 1만

은 다음날이다.

◇歸還船員

▲明德號 11 선상 승무원 48

명(平壤 海軍區 海軍部 海軍

部 大尉 43· 升山 面 升山 洞 3

區 10번) 장교 장금 9명(25· 海

面 海軍區 1번) 선원 12명(이

48· 海軍區 勿洞) 승무원 37·

線 律 里 2區 4번) 尹錫 勇(31

· 同 線 律 里 2區 37) 朴 錫 光

(28· 西陽 郡 巨津 面 巨津 里 5
區 8번) 李 大 玄(38· 溟州
郡 文津 邑 3區 16번) 黃 仁 守
(32· 盈德 郡 海 面 蘇 津 里 2
區 4번) 鄭 長 石(43· 盈德 郡
丑 山 面 丑 山 里) 金 榮 河(35· 盈
德 郡 海 面 蘇 津 里 2區) 申
在 鳳(30· 巨津 里 1區 6번)
▲海榮號 11 선상 승무원 48
(40· 東 草 里 5區 39번) 기 東 根
장 金 石 稔(34· 巨津 郡 長 木
國 慶 所 里) 선 高 政 西(4031
· 東 草 里 5區 14번) 白 雲 泰(4031
· 盈德 郡 降 嶺 面 前 洋 邑) 林 壽

植(31· 東 草 里 5區 34번)
◇未歸還船員
▲明德號 11 선상 승무원 48
(31· 盈德 郡) 金 正 九(21· 盈德 郡)
德 郡) 金 正 九(21· 盈德 郡)
朱 仁 福(22· 盈德 郡) 金 昌 元
(17· 盈德 郡) 李 昌 明(21· 盈
德 郡) 崔 龍 珍(22· 盈德 郡)
盈德 郡) 崔 龍 珍(22· 盈德 郡)
金 相 萬(21· 盈德 郡) 李 炳 益
(19· 盈德 郡) 林 慶 壽(18· 盈
德 郡)
▲海榮號 11 선상 승무원 48
木 面 所 里) 金 鐘 玉(3121· 京
草 里 6區)

두라北漁船귀환

두라北漁船귀환(200톤)이 이십
 일 오전 10시에 동해안
 동명호, 영풍호, 춘곡호(200톤)이 이십
 일 오전 10시에 동해안
 동명호, 영풍호, 춘곡호(200톤)이 이십
 일 오전 10시에 동해안

가 2척이 파손되며, 또
 1척이 영풍호에 실려서
 파손된 후, 두라北漁船
 인 것을 확인하여, 이
 는, 파손까지 조사하
 상했다. 두라北漁船
 이, 파손된 후, 영풍호
 에 실려, 영풍호에 실려
 파손된 후, 두라北漁船
 인 것을 확인하여, 이
 는, 파손까지 조사하
 상했다.

오징어배 14隻 아직 안 돌아와

北傀의 東海岸漁船기습사건 詳報

漁船을 假裝한 北傀艇 6隻

操業中에 突然發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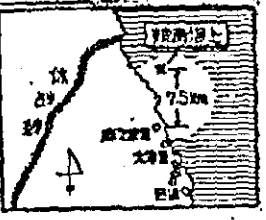
百57名의 우리漁夫生死不明

【本報記者 釜山 30日電】 北傀艇 6隻가 東海岸 漁船 14隻를 假裝하여 突如發砲한 사건이 30日 午前 10時경 發生된 것으로 傳聞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우리 漁夫 百57名의 生死가 不明한 것으로 傳聞되고 있다. 이 사건은 東海岸 漁船 14隻가 北傀艇 6隻에 의해 突如發砲된 것으로 傳聞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우리 漁夫 百57名의 生死가 不明한 것으로 傳聞되고 있다.

北傀艇 6隻가 東海岸 漁船 14隻를 假裝하여 突如發砲한 사건이 30日 午前 10時경 發生된 것으로 傳聞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우리 漁夫 百57名의 生死가 不明한 것으로 傳聞되고 있다. 이 사건은 東海岸 漁船 14隻가 北傀艇 6隻에 의해 突如發砲된 것으로 傳聞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우리 漁夫 百57名의 生死가 不明한 것으로 傳聞되고 있다.

海軍艦艇을 增派

大津港은 漁夫家族 管區 大混雜



○ 北傀艇 假裝한 漁船 14隻

北傀艇 6隻가 東海岸 漁船 14隻를 假裝하여 突如發砲한 사건이 30日 午前 10時경 發生된 것으로 傳聞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우리 漁夫 百57名의 生死가 不明한 것으로 傳聞되고 있다. 이 사건은 東海岸 漁船 14隻가 北傀艇 6隻에 의해 突如發砲된 것으로 傳聞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우리 漁夫 百57名의 生死가 不明한 것으로 傳聞되고 있다.

제2대성호 귀환(66.8.29)

1966年8月30日 (火曜日) 新 報 日 本

拉北88日만에

漁船1隻歸還

【江境】 지난 6월 3일 조기
몰사된것이 연평도 앞바다

에서 피뢰무장선박에 납치
되었던 제2대성호(11톤·
선장 김선학·38)가 88일
만인 29일 삼오시 선원 6
명운 태우고 충남장경에 되
돌아왔다.

拉北됐던 富安號 3개월만에 歸還

【江陵】지난해12월13일상오 7시쯤 거진항북쪽 어로지 거신근해에서 명패잡이하다 환(31)가 피납3개월만에선

원8명용태우고 돌아오다가 13일밤10시30분쯤 동해안의 로저지선근해를 경비중이던 해군709함에발견, 14일새벽6시 북호함으로 끌려돌아왔다.
7명의 선원 가운데 합재옥(34)씨 1명만 돌아오지 않았다. 이날 부안호선원들은 귀환즉시해군방첩대에 넘겨조사받았고있다.
돌아온선원 이름은 다음과 같다.
▲선장 김용환(31·고성군거진면거진리1구) ▲선원 한윤천(31·상동) ▲박창업(24·거진리2구) ▲김명선(29·상동) ▲한창덕(29·상동) ▲한태욱(36·거진리1구9반)

船員8명신고

90일만에歸還

拉北됐던「복성호」

【墨湖】 지난해 11월 29일 동해어로 저지선근해에서 명태잡이증 복피함정에 남북되었던 복성호(20톤·거진함소속)가 남북된지 90일만에 선장 황병익씨등 선원 8명을 신고 27일 새벽 3시 묵호항으로 돌아왔다.

▲선장 ॥ 황병익(고성군거진 1리 1구 1반) ▲기관장 ॥ 김용건 ▲선원 ॥ 장필우 이규도 이수영 이진용 김화동 최무성

中共에 被拉?

黑山近海서 15名탄漁船 실종

【釜山】11일 해경은 서해 대흑산도근해서 실종된 의 두리 저인망어선 제11천대 호(53톤·선장 최명환·39 선적 부산)를 찾기위해 경 찰함공기 505호와 경비 정 701정등 3척을동원, 입체적인 수색작전에 나섰다.

이배는 선장등 15명의선 원을 태우고 지난 4월22일

하오 7시33분에 서해 대흑 산도 서방15마일 해상에서 조업한다는 짧은 전문을보 낸후 20여일간 소식이 끊 어져있었다.

해경은 이배가 중공에납 치되었을 것으로보고 크게 긴장하고있다.

제11천대호는 김순해(영 도구대평동 1가39)씨 소유 선박으로 밝혀졌다.

西海에서 北傀空挑發

越北강요코銃擊

連이름 4명죽고 6명負傷

【三】27일 예이 28일 하
 오 2시쯤 연평도 북쪽어로
 저지선 남쪽에서 조기잠이
 하던 소속미상 잠선호(19
 본)의 북괴의선과 부장경
 비정의 잠선 화성기총대교
 함복을장요, 이대관용하자기
 관총을 단사하의 의부정창
 법(39·경기도부천군연평군
 북리)처중 3명이 북사하
 요정치국(54·충북리)씨
 등 2명이 중상을입었다.
 ◇사망자▲정창법(39)▲
 진상패(33·충북리)▲김순

선(19·충북리)
 ◇중상자▲정치국(54)▲
 김인현(32)
 「羅坪島」羅洪根기자」27일
 상오 7시반쯤 서해 연평도
 어로저지선남쪽에서 조기잠
 이하는 우리어선 20여척의
 대학의 북괴배속정의 약 1
 백발의 기관총과 소총사적
 유가해 우리어선 1명이 죽고
 4명이 부상했다.
 이날 북괴배속정은 해부
 가진 관총타서 우리어선단
 에 전선, 남북을 기도하다

가 피해버리자 뒤쳐진 대
 명호와 함강망어선 제3관
 명호(북포해운조합소속)에
 총격, 대명호의 신일호(47·
 유구군마면)씨가죽고 광민
 호선장 참명진(38·북포시
 금화동12)씨중 3명의 총
 상을입히고 달아났다.
 부상자들은겨울중환우리해
 당한전에서의료를받고있다.

제3용진호 귀환(67.6.3)

조선일보

(제3용진호(32))

西曆 1987年 6月 4日

77日만에歸港

拉北船員 8名

【本報訊】가 77日만에歸港

가 77일만에 3일오전 10시 9

의 24·속초시청학
 ▲김진진(43)·신광·속초함
 ▲장영구(45)·기판장

▲부수인(38)·신원
 ▲장영진(27)
 ▲장순원(34)·속초시청
 ▲장영진(49)·속초시청
 ▲장순원(31)·속초시청

남성호, 당수호, 대천호, 덕성호, 백마강호, 선덕호, 순덕호, 승용호, 안흥호, 제7갱생호, 창성호, 태양호, 한진호 귀환(67.9.25)

拉北어부歸還

84명 10척 仁川으로

지난봄에 잡혀가 11명 3척은 抑留

〔仁川 宋坪里·張洪根·宋寧鎬기자〕 남북의
 었던 우리 안강방어진 10척이 25일삼오7시쯤 북괴
 의 마수에서 불려남으로써 뱃길은잡아 인천으로 돌아오코
 풀아온다.

있다. 10척가운데 9척은 사해연평도 동남쪽 10킬로해상
 에서 우리해군의 보호를받고 다른1척은 대청도 앞바다
 에서 떨어져 예인중에 있는데 25일밤 8시쯤에 인천항에
 들어온다.

지난 5월과 6월사이에도
 피난 우리 9선 13척과 선원
 95명중 남북이었던 것인데
 이선의 배 3척과 선원 11명
 은 불려보내지않았다.
 처음의 불아오는것은포안
 앞인 의성호와 승성호·대
 마장호등 3척이 돌아오지
 않았으며 10척의 배가올라
 선원 1명까지 2명씩이 피
 귀환자로 아직 북괴요동도
 어있다.
 한편 배마장호는 배안역
 류되고 선원들은 모두 돌아왔
 으며 처음에는 이의가없었
 던 북괴요동가세로키었다.
 이때들은 대부분 조기철
 또는 태풍으로 악토져지선
 부근까지 밀려가 포기할참
 다가 북괴의 계획적인 남
 괴로 끌려간 의선이다.
 돌아온 의선의의류과 일
 부선원이들은 다육파갔다.
 ◇귀환 84 미귀환 11관
 호안은남북인선 ▲중호호 11
 7(8) 선장 박근동·34·
 5월28일 남북대청호 7
 (8) 20톤 선수 이기호·
 선장 김천복·5월20일▲순
 적호 7(8) 19톤선장 김
 건업·48·5월5일▲
 제7갱생호 8(9) 26톤선
 주 홍태삼·선장최의성·58
 55(이평선) 22(진상선) 18(8)
 5월23일▲남성호 8(8)
 5월28일▲태양호 6(8) 5
 원30일▲한진호 10(11) 5월
 23일▲당수호 6(6) 5월
 27일▲안흥호 8(9) 6월
 24일▲중보호 5(8) 6월
 파장호 12(12) 배간 불아
 오지않음 ▲대천호 2승
 기 30(의지창) 40(의승
 복) 42(사정화) 40(진남순
 55(이평선) 22(진상선) 18(8)
 ▲제7갱생호 11선장 김창수
 (30·인천시) 기관장 최
 용철(34·충청북1가2) 선
 원 이선복(26·관서동21)
 유복화(25·충청동29) 정봉
 환(29·가파동198) 한영
 철(29·도원동23) 김해동(20·
 노원동45) 오금화(26·전북
 유구동) 박영의(의성)

남성호, 당수호, 대천호, 덕성호, 백마강호, 선덕호, 순덕호, 승용호, 안흥호, 제7갱생호, 창성호, 태양호, 한진호 귀환(67.9.25)

夏衣 그대로 가을에 돌아오다



「船首長 남으로..」 남해 방면 어선이 북한-610함의 해인과 호송을 받으며 안흥호로 향하고 있다. 【(2) 김일성 위상 본선 南쪽에서 촬영한 사진】

拉北漁夫 88名 낙달만에 귀환

이젯밤 仁川港에 16名은 계수柳留

【서울 25일 특파원 보도】 북한-610함의 해인과 호송을 받으며 안흥호로 향하고 있다. 【(2) 김일성 위상 본선 南쪽에서 촬영한 사진】

북한-610함의 해인과 호송을 받으며 안흥호로 향하고 있다. 【(2) 김일성 위상 본선 南쪽에서 촬영한 사진】



○「남해방면」-1일동안 북한-610함의 해인과 호송을 받으며 안흥호로 향하고 있다. 【(2) 김일성 위상 본선 南쪽에서 촬영한 사진】

感激속에 만세 돌아온漁夫를 새옷입고 豫防接種

【서울 25일 특파원 보도】 북한-610함의 해인과 호송을 받으며 안흥호로 향하고 있다. 【(2) 김일성 위상 본선 南쪽에서 촬영한 사진】



○「남해방면」-1일동안 북한-610함의 해인과 호송을 받으며 안흥호로 향하고 있다. 【(2) 김일성 위상 본선 南쪽에서 촬영한 사진】

철저한監視 漁夫監視者會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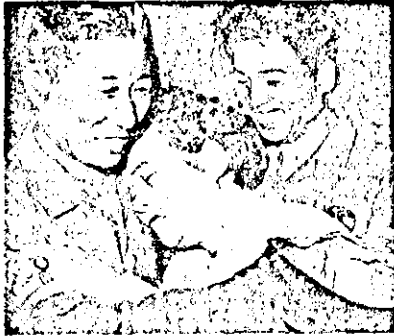
【서울 25일 특파원 보도】 북한-610함의 해인과 호송을 받으며 안흥호로 향하고 있다. 【(2) 김일성 위상 본선 南쪽에서 촬영한 사진】

船名	船首長	船員	船主
남성호	남성호	남성호	남성호
당수호	당수호	당수호	당수호
대천호	대천호	대천호	대천호
덕성호	덕성호	덕성호	덕성호
백마강호	백마강호	백마강호	백마강호
선덕호	선덕호	선덕호	선덕호
순덕호	순덕호	순덕호	순덕호
승용호	승용호	승용호	승용호
안흥호	안흥호	안흥호	안흥호
제7갱생호	제7갱생호	제7갱생호	제7갱생호
창성호	창성호	창성호	창성호
태양호	태양호	태양호	태양호
한진호	한진호	한진호	한진호

남성호, 당수호, 대천호, 덕성호, 백마강호, 선덕호, 순덕호, 승용호, 안흥호, 제7개생호, 창성호, 태양호, 한진호 귀환(67.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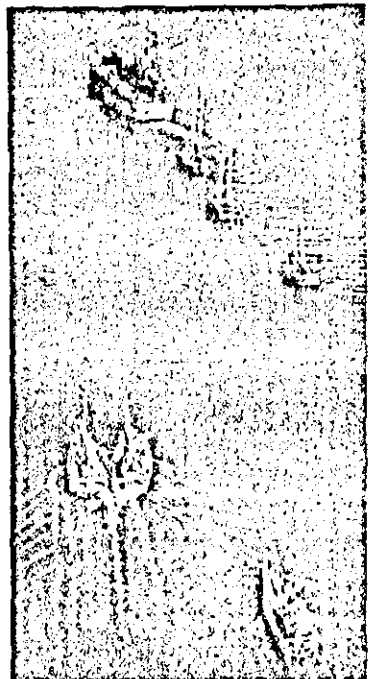
1967年9月28日 (火曜日) 華 南 日 報 (八月二十三日 癸巳)

北의 굴레 벗고 自由의 댕



△金日成(左)과 김정일(右)의 부인 최영희씨가 김에와 함께 웃고 있다.

【仁川=本報專電】北朝鮮의 北江省에서 1967年 9月 25日 午後 1時 30分 左右 仁川 附近의 海에서 北朝鮮의 漁船 1隻이 南朝鮮의 漁船 1隻과 衝突하여 南朝鮮의 漁船 1隻이 沈몰하고 9名의 漁夫가 死亡한 것으로 나타났다.



△北朝鮮의 平壤에서 1967年 9月 25日 午後 1時 30分 左右 仁川 附近의 海에서 北朝鮮의 漁船 1隻이 南朝鮮의 漁船 1隻과 衝突하여 南朝鮮의 漁船 1隻이 沈몰하고 9名의 漁夫가 死亡한 것으로 나타났다.

北으로 가자

記者會에서 밝힌 拉北결연의 非韓意味

北朝鮮의 北江省에서 1967年 9月 25日 午後 1時 30分 左右 仁川 附近의 海에서 北朝鮮의 漁船 1隻이 南朝鮮의 漁船 1隻과 衝突하여 南朝鮮의 漁船 1隻이 沈몰하고 9名의 漁夫가 死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찌든 얼굴의 92명

12명은 怨恨의 北에 묶여

北朝鮮의 北江省에서 1967年 9月 25日 午後 1時 30分 左右 仁川 附近의 海에서 北朝鮮의 漁船 1隻이 南朝鮮의 漁船 1隻과 衝突하여 南朝鮮의 漁船 1隻이 沈몰하고 9名의 漁夫가 死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옷 츙겠다

【仁川=本報專電】

北朝鮮의 北江省에서 1967年 9月 25日 午後 1時 30分 左右 仁川 附近의 海에서 北朝鮮의 漁船 1隻이 南朝鮮의 漁船 1隻과 衝突하여 南朝鮮의 漁船 1隻이 沈몰하고 9名의 漁夫가 死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동림호 귀환(67.9.26)

조선원보

4권

西曆1967年9月27日

遼北漁夫團 10名귀환

東海서 지난여름 끌려간 「제21동림호」

【전북춘천(26)소속】제21동림호 10명이 지난여름 춘천에서 북괴에 납치되던 중 자유연속체 21동림호(19)와 신안향(44)가 26일 오전 10시 신안향 10명 유보 추방한 데 귀환했다. 이 해는 지난 8월 1일 새벽 2시에 북괴에서 탈출한 뒤 공작진이 탈출한 후 동해안 북괴의 북괴정비진의 강제 납북당했다. 신안향은 모두 정북자 21동림호 출신이다. 4개 정비의 소부대의 출원정이다. 신안향의 유보 추방 귀환은 신안향 10명 유보 추방 4개 정비의 노력까지 많은 몫을 차지했다. 귀환 10명 유보 추방 4개 정비의 노력까지 많은 몫을 차지했다. 귀환 10명 유보 추방 4개 정비의 노력까지 많은 몫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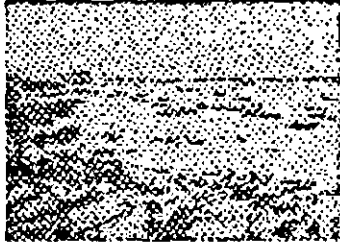
두산(30) 신안향(30) 심향호(26) 변향의(30) 민향우(30) 박향수(12)

거성호, 경인호, 금성호, 금운호, 금창호, 남풍호, 순광호, 어성호, 영명호, 영흥호, 용명호, 정성호, 해양호, 홍미호 남북(67.11.3)

漁船10隻拉北

東海서 北傀艦艇이 亂射

○경남 동해안에서 11월 3일 밤 11시경에 북한 경비정 10여 척이 남해상에서 남측을 향해 공격을 가했다. 남측은 경비정 10척을 격침시켰고, 남측 경비정 1척은 부상자를 내었다. 남측은 경비정 10척을 격침시켰고, 남측 경비정 1척은 부상자를 내었다.



남해상에서 10여 척의 경비정이 남측을 향해 공격을 가했다. 남측은 경비정 10척을 격침시켰고, 남측 경비정 1척은 부상자를 내었다. 남측은 경비정 10척을 격침시켰고, 남측 경비정 1척은 부상자를 내었다.

9個艦南侵 2百隻包圍

끌려간 漁夫만 60餘名 重傷 1名

남해상에서 10여 척의 경비정이 남측을 향해 공격을 가했다. 남측은 경비정 10척을 격침시켰고, 남측 경비정 1척은 부상자를 내었다. 남측은 경비정 10척을 격침시켰고, 남측 경비정 1척은 부상자를 내었다.

남해상에서 10여 척의 경비정이 남측을 향해 공격을 가했다. 남측은 경비정 10척을 격침시켰고, 남측 경비정 1척은 부상자를 내었다. 남측은 경비정 10척을 격침시켰고, 남측 경비정 1척은 부상자를 내었다.

또 漁船 拉北

沿岸선 3隻 침몰

【東津】 지난 11일 하오 3시쯤
거진항을 떠나 동해출선선남
쪽의 서안부 6명승 배우고
해안탐색이하던 중 선(호) 5·5

톤·선주 박무술(가 북피쿠
출함) 좌파 폐속정(정예의
배 남부되었다.
남부된 일부의 몸은 다음
과 같다.

- ▲ 교이촌 (45·선장·거진)
- ▲ 진명호 (45·기관장·거진)
- ▲ 김명천 (40·선원)
- ▲ 서정우 (20)
- ▲ 박병술 (40)
- ▲ 유관수 (40)

【仁川】 11일 하오 4시 50분쯤
장화관장화읍교동리쪽 떠나
인천으로 운항중이던 범선
광덕호(12톤·선주방수창·
장화관교동면동산리)가 이
곳 앞항동 읍도남방 0·5 마
인해상에서 장풍을 만나 침
몰, 선원 방희현(44·교동
면서한리) 방제동(33) 침몰
2명의 의사했다.

【瑞山】 12일 상오 1시쯤 출남
서산관원부면신두리 앞바다
에서 오토착입하던 어선호
(5톤)가 돌풍으로 전복
의부 4명승 김상만(54) 김
보영(보) 최영(보)의 실종.

漁船拉北 北傀、東海서

〔巨津에서 文星記者〕

25일 오전 10시 30분쯤 동해

안후전선부근 해상에서 북괴경

비정이 우리명태잡이어선성신

호(8톤) 20마력선장정종석(

와선원 8명을 납치해갔다.

이날 오후 6시 30분쯤 거

진항에 돌아온 거성호(8톤

20마력) 선장 임대범씨(거

진 2구 11반)에 의하면 휴

전선 근해에서 이날 새벽

5시 거진항을 떠난 30여척

의 어선이 명태를 잡고 있

었는데 북괴 경비정 1척이

이북 포외전앞해상에서 전속

력으로 남하, 이를 발견한 다룬

어선은 도망쳐 왔다는 것이다.



拉北어선 4척 歸還

【仁川】남북회담이 9월 4일 최파 선원 20명이 67일 만인 18일 하오 6시 인천항에 돌아오게 됐다. 이 남경기도경외의 하면 이 어선들과 선원들은 지난 10월 12일 상오 8시쯤 경기 도 용진군 백담면 연화리 서해

쪽 10킬로 해상에서 상어잡이등 하다 행방불명됐었다. 돌아온 배이름과 선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무진호(8·5분) 선장

장준빈(44) 기관장

장인화(31) 선원

박홍수(34) 김두만(34) 유분수(36)

▲제성호(4·8분) 선장

박정근(38) 기관장

신영남(31) 선원

최중하(45) 이경우(23) 백영모(34)

▲제3호(5분) 선장

최종수(50) 기관장

최영철(21) 선원

김문환(23) 식제연(25) 김준염(26)

▲제9호(6분) 선장

유봉선(36) 기관장

허상경(24) 선원

김만유(49) 유봉화(31) 김홍조(37)

조 선 교 회 4 교

西曆 1967年 12月 19日

拉北漁夫 20名 귀환

【三】

무진호	제성호	태아3호	태아9호
무진호 (58.12.19) ▲귀환 (58.12.24)	제성호 (58.12.19) ▲귀환 (58.12.24)	태아3호 (58.12.19) ▲귀환 (58.12.24)	태아9호 (58.12.19) ▲귀환 (58.12.24)

51 () ▲귀환 (57.12.28)

『北北漁夫20名記者회견 어제仁川에』

拉北漁夫20名 記者회견 어제仁川에

【仁川 20日電】北北漁夫20名가 記者회견을 가진 뒤 仁川에 도착했다. 이들은 12월 19일 오후 4시에 仁川에 도착했다. 이들은 12월 19일 오후 4시에 仁川에 도착했다.

“남과기에 女子動員”

이날 오후 3시에 이북측에서 남과기에 女子動員을 실시했다. 남과기에 女子動員을 실시했다. 남과기에 女子動員을 실시했다.

북측은 남과기에 女子動員을 실시했다. 남과기에 女子動員을 실시했다. 남과기에 女子動員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이북측에서 남과기에 女子動員을 실시했다. 남과기에 女子動員을 실시했다. 남과기에 女子動員을 실시했다.



◇仁川이다 万歳
【仁川 20日電】北北漁夫20名가 記者회견을 가진 뒤 仁川에 도착했다.



◇北北漁夫가 記者회견을 가진 뒤 仁川에 도착했다.

북측은 남과기에 女子動員을 실시했다. 남과기에 女子動員을 실시했다. 남과기에 女子動員을 실시했다.

漁船拉北

東海서 1隻 6名

【東海江陵중계】명태잡이물
하연우리 어선 1척과 선원 6
명이 북피 구축함에 포납
되었다.

20일 오전 8시 50분쯤 동
해안 휴전선근해에서 어선
2척여척이 그물을 던지고 고
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휴전선
북방에서 북피구축함 2척
과 쾌속정 1척이 갑자기 나
타나 기관총을 난사·홍진
호(7톤·선장주영선·38)
를 끌어갔다.

이날 당해원 선원 등 다
음포살당.

- ▲선장 주영선(38)·거진 2구()
- ▲기관장 이진영(39)·
- 거진 2구() ▲선장 임필기(33)·
- 거진 3구()
- ▲선장 한(34)·거진 3구()
- ▲선장 주영선(38)·거진 2구()
- ▲선장 주영선(38)·거진 2구()
- ▲선장 주영선(38)·거진 2구()

拉北어부 48명 歸還

墨湖·仁川 두곳서

【墨湖 仁炳燾·鄭然福 기자】

지난달의 북 북괴에 납북되었던 어선 3척이 어부 40명과 함께 24일 하오 8시쯤 6개 월만에 북조항에 돌아왔다.

이날 상오 해군 82함이 동해 휴전선 근해를 초계중 남

해방인 어선 3척을 발견, 북조항으로 호송한 것이다.

【仁川】 24일 하오 3시 해군 607함이 연평도 앞 바다

에서 남북어선 승양호(선)를 발견하고, 이 배는 7월 12일 하오 5시쯤 연평도에서 포기를 잡다 남북된 것이었다. 이 배의 승장 유씨 등 어부 8명이 타고 있었다.

적 전남부안군 홍이도면(중) 인천항으로 예인했다.

이 배는 7월 12일 하오 5시쯤 연평도에서 포기를 잡다 남북된 것이었다. 이 배의 승장 유씨 등 어부 8명이 타고 있었다.

송영호귀환

【서울 25일 특보】 송영호 장군이 25일 오후 8시 30분경 귀환했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송 장군은 귀환 후 서울로 곧바로 돌아왔다.

세漁船도라北

東海서

漁夫18名탄재, 다름 2隻도 未歸港

【北洋漁船中】5隻의 北洋漁船

가01호 北洋漁船 5隻의 北洋漁船
 가02호 北洋漁船 5隻의 北洋漁船
 가03호 北洋漁船 5隻의 北洋漁船
 가04호 北洋漁船 5隻의 北洋漁船
 가05호 北洋漁船 5隻의 北洋漁船
 가06호 北洋漁船 5隻의 北洋漁船
 가07호 北洋漁船 5隻의 北洋漁船
 가08호 北洋漁船 5隻의 北洋漁船
 가09호 北洋漁船 5隻의 北洋漁船
 가10호 北洋漁船 5隻의 北洋漁船
 가11호 北洋漁船 5隻의 北洋漁船
 가12호 北洋漁船 5隻의 北洋漁船
 가13호 北洋漁船 5隻의 北洋漁船
 가14호 北洋漁船 5隻의 北洋漁船
 가15호 北洋漁船 5隻의 北洋漁船
 가16호 北洋漁船 5隻의 北洋漁船
 가17호 北洋漁船 5隻의 北洋漁船
 가18호 北洋漁船 5隻의 北洋漁船

가01호 (4) ▲가02호 (4)
 가03호 (3) ▲가04호 (1) ▲가05호 (3)
 가06호 (3)
 가07호 (4) ▲가08호 (2)
 가09호 (4) ▲가10호 (4)
 가11호 (3) ▲가12호 (3)
 가13호 (3) ▲가14호 (3)
 가15호 (3) ▲가16호 (3)
 가17호 (3) ▲가18호 (3)
 가19호 (3) ▲가20호 (3)
 가21호 (3) ▲가22호 (3)
 가23호 (3) ▲가24호 (3)
 가25호 (3) ▲가26호 (3)
 가27호 (3) ▲가28호 (3)
 가29호 (3) ▲가30호 (3)
 가31호 (3) ▲가32호 (3)
 가33호 (3) ▲가34호 (3)
 가35호 (3) ▲가36호 (3)
 가37호 (3) ▲가38호 (3)
 가39호 (3) ▲가40호 (3)
 가41호 (3) ▲가42호 (3)
 가43호 (3) ▲가44호 (3)
 가45호 (3) ▲가46호 (3)
 가47호 (3) ▲가48호 (3)
 가49호 (3) ▲가50호 (3)

거성호, 경인호, 금성호, 금창호, 슬광호, 어성호, 영흥호, 용명호,
정성호, 해양호, 홍미호 귀환 (67.12.26)

拉北漁夫 65名歸還

53日만에 11隻 어제 밤 巨津에

【巨津】28일인후 53일간 북극해에서 수감되었던 북한 어민 65명(남자 53명, 여자 12명)이 26일 밤 11척의 어선으로 귀환했다. 이들은 26일 오후 10시경 巨津항에 도착했으며, 27일 오전 10시경 巨津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26일 오후 10시경 巨津항에 도착했으며, 27일 오전 10시경 巨津항에 도착했다.

북극해에서 수감되었던 북한 어민 65명(남자 53명, 여자 12명)이 26일 밤 11척의 어선으로 귀환했다. 이들은 26일 오후 10시경 巨津항에 도착했으며, 27일 오전 10시경 巨津항에 도착했다.	▲김정호 (50) ▲김기환 (52) ▲김민호 (55) ▲김영호 (58) ▲김철호 (61) ▲김재호 (64) ▲김동호 (67) ▲김현호 (70) ▲김태호 (73) ▲김석호 (76) ▲김문호 (79) ▲김서호 (82) ▲김희호 (85) ▲김의호 (88) ▲김남호 (91) ▲김북호 (94) ▲김동호 (97) ▲김서호 (100)	▲김정호 (50) ▲김기환 (52) ▲김민호 (55) ▲김영호 (58) ▲김철호 (61) ▲김재호 (64) ▲김동호 (67) ▲김현호 (70) ▲김태호 (73) ▲김석호 (76) ▲김문호 (79) ▲김서호 (82) ▲김희호 (85) ▲김의호 (88) ▲김남호 (91) ▲김북호 (94) ▲김동호 (97) ▲김서호 (100)	▲김정호 (50) ▲김기환 (52) ▲김민호 (55) ▲김영호 (58) ▲김철호 (61) ▲김재호 (64) ▲김동호 (67) ▲김현호 (70) ▲김태호 (73) ▲김석호 (76) ▲김문호 (79) ▲김서호 (82) ▲김희호 (85) ▲김의호 (88) ▲김남호 (91) ▲김북호 (94) ▲김동호 (97) ▲김서호 (100)	▲김정호 (50) ▲김기환 (52) ▲김민호 (55) ▲김영호 (58) ▲김철호 (61) ▲김재호 (64) ▲김동호 (67) ▲김현호 (70) ▲김태호 (73) ▲김석호 (76) ▲김문호 (79) ▲김서호 (82) ▲김희호 (85) ▲김의호 (88) ▲김남호 (91) ▲김북호 (94) ▲김동호 (97) ▲김서호 (100)	▲김정호 (50) ▲김기환 (52) ▲김민호 (55) ▲김영호 (58) ▲김철호 (61) ▲김재호 (64) ▲김동호 (67) ▲김현호 (70) ▲김태호 (73) ▲김석호 (76) ▲김문호 (79) ▲김서호 (82) ▲김희호 (85) ▲김의호 (88) ▲김남호 (91) ▲김북호 (94) ▲김동호 (97) ▲김서호 (100)	▲김정호 (50) ▲김기환 (52) ▲김민호 (55) ▲김영호 (58) ▲김철호 (61) ▲김재호 (64) ▲김동호 (67) ▲김현호 (70) ▲김태호 (73) ▲김석호 (76) ▲김문호 (79) ▲김서호 (82) ▲김희호 (85) ▲김의호 (88) ▲김남호 (91) ▲김북호 (94) ▲김동호 (97) ▲김서호 (100)	▲김정호 (50) ▲김기환 (52) ▲김민호 (55) ▲김영호 (58) ▲김철호 (61) ▲김재호 (64) ▲김동호 (67) ▲김현호 (70) ▲김태호 (73) ▲김석호 (76) ▲김문호 (79) ▲김서호 (82) ▲김희호 (85) ▲김의호 (88) ▲김남호 (91) ▲김북호 (94) ▲김동호 (97) ▲김서호 (100)
---	--	--	--	--	--	--	--

(중앙일보)

(3) 1968年1月8日

(月曜日)

6척 40여명 拉北

東海서 이틀 동안 北 傀艇이 포위

【東부】 6·7일 이틀사이 동해안 어르저지선 남쪽에서 명태잡이하던 우리 어선 6척, 선원 40명이 북괴 함정의 위협에 남북되었다. 6일 밤 12시쯤 동해안로저지선 남쪽에서 명태잡이하고 있던 20여척의 우리 어선단 중 북괴파괴원구출함 1척과 정미정 2척이 포위, 그 가운데 남괴포위되었다.

이와 7일 하오 3시쯤에 동해안 어르저지선 남쪽에서 명태잡이하던 잠진호(7·8톤·선원 6명)가 북괴 괴무장 배속전 2척에 의해 포위되었다.

北傀 東海서 또 행패

漁船 1隻沈沒시키고 3隻拉北

【東京 11日電】北傀(北朝鮮)의 漁船 1隻이 東海에서 沈沒(沈没)되고, 3隻이 北(北朝鮮)으로 拉北(拉北)되었다. 이 사건은 北傀의 漁船 2隻이 南(南朝鮮)의 漁船 2隻과 충돌(衝突)하여 南의 漁船 1隻이 沈沒(沈没)되고, 北의 漁船 1隻이 北(北朝鮮)으로 拉北(拉北)되었다.

北傀(北朝鮮)의 漁船 1隻(沈沒)은 東海에서 沈沒(沈没)되었고, 3隻(拉北)은 北(北朝鮮)으로 拉北(拉北)되었다. 이 사건은 北傀의 漁船 2隻이 南(南朝鮮)의 漁船 2隻과 충돌(衝突)하여 南의 漁船 1隻이 沈沒(沈没)되고, 北의 漁船 1隻이 北(北朝鮮)으로 拉北(拉北)되었다.

【東京 11日電】北傀(北朝鮮)의 漁船 1隻이 東海에서 沈沒(沈没)되었고, 3隻이 北(北朝鮮)으로 拉北(拉北)되었다. 이 사건은 北傀의 漁船 2隻이 南(南朝鮮)의 漁船 2隻과 충돌(衝突)하여 南의 漁船 1隻이 沈沒(沈没)되고, 北의 漁船 1隻이 北(北朝鮮)으로 拉北(拉北)되었다.

北傀(北朝鮮)의 漁船 1隻(沈沒)은 東海에서 沈沒(沈没)되었고, 3隻(拉北)은 北(北朝鮮)으로 拉北(拉北)되었다. 이 사건은 北傀의 漁船 2隻이 南(南朝鮮)의 漁船 2隻과 충돌(衝突)하여 南의 漁船 1隻이 沈沒(沈没)되고, 北의 漁船 1隻이 北(北朝鮮)으로 拉北(拉北)되었다.

北傀(北朝鮮)의 漁船 1隻(沈沒)은 東海에서 沈沒(沈没)되었고, 3隻(拉北)은 北(北朝鮮)으로 拉北(拉北)되었다. 이 사건은 北傀의 漁船 2隻이 南(南朝鮮)의 漁船 2隻과 충돌(衝突)하여 南의 漁船 1隻이 沈沒(沈没)되고, 北의 漁船 1隻이 北(北朝鮮)으로 拉北(拉北)되었다.

北傀(北朝鮮)의 漁船 1隻(沈沒)은 東海에서 沈沒(沈没)되었고, 3隻(拉北)은 北(北朝鮮)으로 拉北(拉北)되었다. 이 사건은 北傀의 漁船 2隻이 南(南朝鮮)의 漁船 2隻과 충돌(衝突)하여 南의 漁船 1隻이 沈沒(沈没)되고, 北의 漁船 1隻이 北(北朝鮮)으로 拉北(拉北)되었다.

두라北 漁船

【漣川(東洋)】 4日(金)에

두라北의 漁船들이 1척이 더 많은 2척이
추출되었는데 1척은 12시간 이상
바다에서 4시간 (4일)을
경리하는 4일 (4일)의 4일
가 15시간 이상을 12시간 이상
수확을 계속하고 있다. 4일 (4일)은
순항하고 있다.

◇ 4일 (4일) ▲ 4일 (4일)

▲ 4일 (4일) ▲ 4일 (4일)

▲ 4일 (4일) ▲ 4일 (4일)

▲ 4일 (4일) ▲ 4일 (4일)

▲ 4일 (4일) ▲ 4일 (4일)

▲ 4일 (4일) ▲ 4일 (4일)

▲ 4일 (4일) ▲ 4일 (4일)

▲ 4일 (4일) ▲ 4일 (4일)

▲ 4일 (4일) ▲ 4일 (4일)

광명호, 금성호, 보수호, 성신호, 성진호, 장성2호, 장성호, 흥진호
귀환(68.3.21)

1968년 3월 21일 (木曜日) 온 앙 인 보

拉北어부 51명 귀환

【종합】 21일 상오 5시쯤 남
북어선 8척과 선원 51명이 거
진항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지난해 겨울 휴전
선근해동해안에서 영대작이
하다 남북되었다가 4개월
만에 돌아온 것이다.
경향은 귀환어선과 어부
보조들이며 배마다
어부

모은 쌀 1가마, 열매 1작유
압수했다. 그런데 지난겨울
에 남북된 36척의 어선가
운데 아직도 13척 74명의 등
아오지 않고 있다.
▲금성호(5톤·15마력·
거진항소속·선장 김利俊동
6명 10월 11일 남북) ▲흥진

호(4톤·15마력·선장
明漢동 7명) ▲성신호(8톤·
20마력·거진항소속·선장鄭
錫錫동 8명 11월 25일 남북)
▲광명호(4톤·20마력·운
봉도소속·선장 崔在用동 6
명 12월 25일 남북) ▲성진호
(10톤·45마력·운봉도·선
장 김원순동 9명) ▲보수호
(4톤·12마력·운봉도소속
·선장 전의진동 6명) ▲장
흥호(6톤·15마력·선장홍
무·선장장정현동 9명) ▲
장흥호(5톤·9마력·선장
소속·선장도원동 6명)

광진호, 신광호, 신양호, 신창호, 제1장진호, 제2태창호, 제창호,
행덕호, 홍익호 귀환(68.3.23)

1968年3月23日

(土曜日)

본 안 원 보

拉北어선 9척귀환

【東京】23일상오9시경 동해유전선해협에서 남북어선 9척 선원77명이 돌아오는 것을 해군 동해전대함정이 발견, 모두 무조항으로 예인증이다.

▲광진호 (6톤16마력) · 大
 油항소속 · 선장김재도등6명 ·
 1원6일(남북) ▲신광호 (8톤
 17마력) · 속초소속 · 선장김우
 영등6명 ▲신양호 (16톤25
 마력) · 무호소속 · 이봉출등7
 명 ▲홍익호 (6톤15마력) ·
 무호 · 한습태등8명 ▲제1
 장진호 (8톤15마력) · 巨津 · 임
 상봉등6명 ▲제2태창호 (16
 톤40마력) · 무호 · 박영식등6
 명 ▲행덕호 (4톤12마력) ·
 巨津 · 吳福鎔등6명 ▲신창
 호 (群山항소속) · 선원26명)
 ▲제창호 (10톤20마력) · 속초
 · 金仁溆등6명)

漁船拉北

5名北傀銃擊에

【東草】28일오전11시5분쯤
 고성군현내면대진리앞바다에
 서 고기잡이를하던 성운호
 (3·1톤·선장 박만복·
 45)가 선원5명을 태운채
 북괴패습정에 납북됐다.

漁船5隻拉北

近海漁船員44名대안제

【本報 北平 18日電】北平 近海漁船 5隻 拉北 漁船 44名 대안제 實施 中 임. 北平 近海漁船 5隻 拉北 漁船 44名 대안제 實施 中 임. 北平 近海漁船 5隻 拉北 漁船 44名 대안제 實施 中 임.

조 선 일 본



北平 近海漁船 5隻 拉北 漁船 44名 대안제 實施 中 임. 北平 近海漁船 5隻 拉北 漁船 44名 대안제 實施 中 임. 北平 近海漁船 5隻 拉北 漁船 44名 대안제 實施 中 임.

北平 近海漁船 5隻 拉北 漁船 44名 대안제 實施 中 임. 北平 近海漁船 5隻 拉北 漁船 44名 대안제 實施 中 임. 北平 近海漁船 5隻 拉北 漁船 44名 대안제 實施 中 임.

北平 近海漁船 5隻 拉北 漁船 44名 대안제 實施 中 임. 北平 近海漁船 5隻 拉北 漁船 44名 대안제 實施 中 임. 北平 近海漁船 5隻 拉北 漁船 44名 대안제 實施 中 임.

조선 일보

8월

西曆1968年6月28日

두漁船拉北

【三】 지난 26일 오후 2

시 40분쯤 서해 소연평도서

반 15마일 해상에서 고기

잡이하던 소속된 선명미

함의 유령어선 2척이 북

미회수정(PH) 2척의 표

남북됐다.

경향은 27일 새벽 2시쯤경

경진바다 함산호를 항해중

일과 남북된 어선 필선

일선의 선원등 조사 등이

다.

漁船4척 失踪

船員69명 태운채... 拉北된듯

【東洋】7월9일10시에 귀
환하기 못하고 오징어잡이 다
간 우리어선4척과 선원69
명이 7월9후 5시간전까지
아직 찾지 못한 채 정황은
불명직이로 보고되고 있다.
6월 9일 오후 8시 포진해역
에서 2척의 어선(2·5명·경
장 안득식·선원10명) 포진
호(7명·선장 함희호·선
원23명)와 순경함양호(포진
호포구호) 19·48명·선장
함포구·선원19명) 3척은
11·9·7명·선장 함양호·

선원17명)가 포진해역에서
근해에서 오징어잡이를 하
다가 실종됐는데 함께 조
업중이던 선원함양호의 어선
부근에 미선박이 나뒀던
것으로보아 남북전쟁의 화
실시된다는 것이다.

漁船5隻拉北

東海서 漁夫42名과함께

[북경] 29일 아재호, 영랑호, 용명호, 신길호, 백악호 등 5隻의 漁船이 동해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 漁船에는 42명의 漁夫가 함께 있다. 이들 漁船은 29일 오후 5시에 동해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들 漁船은 30일 오후 5시에 북쪽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 아재호 (36.2) ▲ 영랑호 (35.2) ▲ 용명호 (34.2) ▲ 신길호 (33.2) ▲ 백악호 (32.2)

▲ 아재호 (36.2) ▲ 영랑호 (35.2) ▲ 용명호 (34.2) ▲ 신길호 (33.2) ▲ 백악호 (32.2)

▲ 아재호 (36.2) ▲ 영랑호 (35.2) ▲ 용명호 (34.2) ▲ 신길호 (33.2) ▲ 백악호 (32.2)

▲ 아재호 (36.2) ▲ 영랑호 (35.2) ▲ 용명호 (34.2) ▲ 신길호 (33.2) ▲ 백악호 (32.2)

拉北모두 7隻

지난 30日
東海에서

【東寧】속보 11월 30日 東海岸
漁撈阻止線근해에서 北僥快
艇에 11척의 漁船이 捕獲

모두 7척으로 捕獲되었다.
이 어선에는 54명의 어부가
탑승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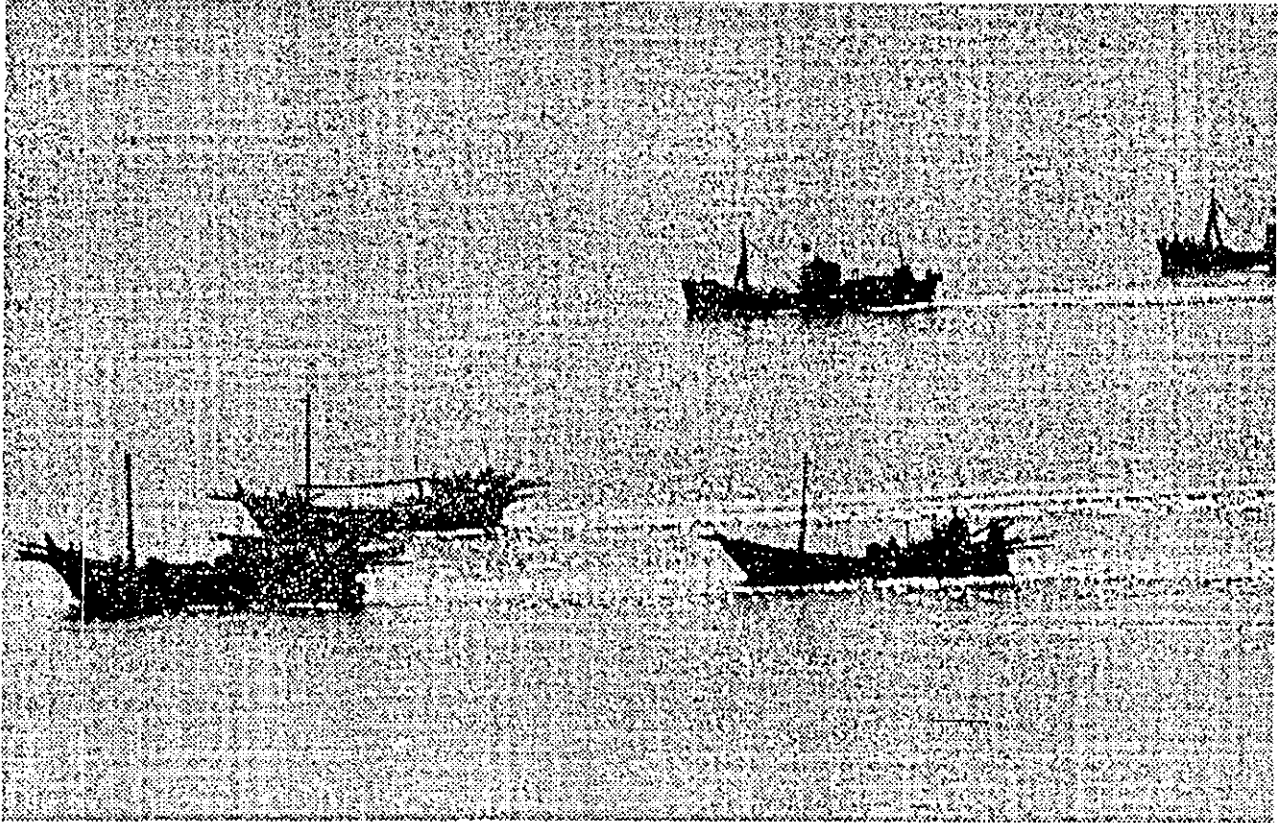
31일 어선의 보고된 나
머지 2척의 漁船 어선은 다
승과 같다.

▲海進號 (13·6명)	▲선장 卍 유철수 (32·속초)	▲기판장 卍 김중우 (28·")	▲선원 卍 유문호 (35·")	▲영선 (38·")	▲김용봉 (28·")	▲김성희 (33·")	▲김성규 (49·속초)
--------------	-------------------	--------------------	-------------------	-------------	--------------	--------------	--------------

▲기판장 卍 장봉환 (38·")	▲선원 卍 윤은제 (22·")	▲김 (29·")	▲대진 (20·")	▲서수중 (29·")	▲김이도 (34·")
--------------------	-------------------	------------	-------------	--------------	--------------

가덕호, 만복호, 태양호, 풍년호 귀환(68.11.1)

중앙일보 (8) 1968年11月1日 (金曜日)



◇5개월간 北俄에 강제억류됐다가 풀려나와 여흥도 앞을 지나 仁川항을 향해 들어오고있는 귀환 어선단들. <本社HL1027機上에서 張洪根記者직음 田濟煥조종>

巨津에는

4척 51명

【巨津11일상오8시경 지남7·8척의 東海漁船선단군 해에서 오징어잡이하다 단북해진 어선 4척의 조부 51명만 태우고 돌아왔다. 巨津항에 돌아온 어선의 선순(장갑소속 가덕호)9척 15마척·7월10일 남북의 巨津항의 만복호(5척)7척도 있었다.

兄弟一家 6명도

한영호船長夫人이 절졸들라

歸還소식에 말 잇어

원덕호船長夫人

지남6월21일 남북원 추북은의선 선장(은근씨)(8)와 장남 전식(21)차남열식(18)등3부자가 타고 있었고 한영호의선 오척의 동생 순근씨(37)와 4촌의 총동생제인가 6명이 타고 있었다. 오순근씨의 처 이선자외 인(46)은 그 동안 친척들의 도움과 협상으로 인권의 상아오다 귀환소식을 알고는 仁川으로 仁川항에서 仁川으로 남쪽과 仁川으로 남쪽을 잇지 못했다.

漁船 38隻 어제 귀환

지난 5월 拉北 댔다... 延坪島에

【本報訊】지남호 조기선 등 북포의 어선 38척이 31일 새벽 5시에 북포항에 돌아왔다. 어선들은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북포항을 떠나 남포항을 돌며 어업을 했다. 이 기간 동안 남포항에 돌아온 어선은 38척이며, 어획량은 1,200톤에 달했다. 남포항에 돌아온 어선들은 31일 오후 1시에 북포항에 도착했다. 이 기간 동안 남포항에 돌아온 어선은 38척이며, 어획량은 1,200톤에 달했다. 남포항에 돌아온 어선들은 31일 오후 1시에 북포항에 도착했다. 이 기간 동안 남포항에 돌아온 어선은 38척이며, 어획량은 1,200톤에 달했다.

▲원미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7명
 ▲북송호(16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4명
 ▲양도호(4.7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4명
 ▲조양호(26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2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3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4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5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6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7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8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9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10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11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12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13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14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15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16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17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18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19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20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21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22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23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24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25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26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27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28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29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30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31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32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33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34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35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36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37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제38조일호(28톤) = 선장 최영호(부산)의 8명

조 선 일 보

4版

西紀1968年11月2日

東海서도 4隻귀환

【東海】1일아침8시쯤 동해 서진(巨津)머진(大津)항에도 지난7월10일 북미에 납북되었던 가덕호(加德號·9톤)등 4척과 어부 59명이 돌아왔다. 또 전항의 돌아온 백여명은 지난 2월9일 납북되었다가 파손된 동진호(5톤)와 의천호(2·0톤)등 16척도 있었다.

◇巨津▲加德號(9톤) Ⅱ 선장 李泰熙(36) 씨 등 12명 ▲滿福號(5톤) Ⅱ 선장 崔瑞龍(51) 씨 등 15명
 ◇大津▲豐年號(9톤) 선장 安在植(45) 씨 등 12명
 파손된 호기관장 金錫煥(36) 씨 등 5명 ▲大陽號(7·9톤) Ⅱ 선장 崔明植(41) 씨 등 10명
 파머선호선장 李永河(32) 씨 등 5명

조선일보

4版

西紀1968年11月2日

또 2隻拉北

【東경】1일차 12시30분경

동해 어로저지선 남쪽에서

연태잡이하던 우리어선 2

척이 또 북포 채수경의

남북포되었다. 이날 속초 아

야선 저지선상 3척항어선 출

어한 3척2척은 70오척이

어로저지선 상항1척 해

상항선 저항해영포 북포

채수경 2척이다. 그러나

포를 남사하며 포위하러하

자도망쳐나왔는데 그중

2척이 강제로 납치되는 것

이 군정방관측소영의 어화

인되었다.

2척중 1척은 월진호(月

進號) 6톤, 20마일(로 밤

허적일때 월진호에탈던 선

원 8톤은 다음북잡다.

▲선장 金龍燮(44) ▲기관

장 李一生(45) ▲선원 金

三擘(68) ▲全金石(54) ▲

安秀一(48) ▲金春瑞(38) ▲

金東燮(32) ▲李昌燾(27)

조선일보

西紀1968年11月2日 土曜日 4版

귀환漁船·漁夫名單

▲영창호 8 ▲서산호 7 ▲
백구호 10 ▲88대양호 8 ▲

영정호 7 ▲지도호 8 ▲덕
진호 8 ▲대창호 7 ▲해양
호 6 ▲제2세창호 9 ▲조

일호 8 ▲제2덕신호 9 ▲
윤덕호 9 ▲복일호 10 ▲영
신호 5 ▲공진호 9 ▲제3
춘덕호 7 ▲태영호 8
▲판영호 8 ▲관산덕성호 8
▲제3금영호 7 ▲삼수호
8 ▲대봉호 9 ▲공영호 8
▲충북호 8 ▲경북호 4

▲제2선북호 8 ▲대양호 8
9 ▲왕선호 9 ▲영신호 5
▲제6복성호 5 ▲대창호 8
▲제3수북호 9 ▲취영호
5 ▲경흥호 4 ▲덕산호 2
▲여선호 8 ▲웅담호 7
(이상 38척 2척 96명)
일부구(북양호)

漁夫37名 또 拉北

어제 東海서 北傀快速艇에, 漁船4隻도

【東京】7일 오전10시쯤 북
한 오십여척의 선박 일부에서
평택항에 도착한 우리 선박 4
척(지인양어선1척, 기동선
3척)과 오부37명(추산)
이 북괴 특수전대 BPL2
대의의 동향 파악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어뢰와 인공부
피 폭발 등을 방심하고 미

리 탈출, 이남북 12시간거
진항에 이남북 두척호(8
동)신장 동정일(계척1·
39)거진1주3반(씨가경
참)에 신고함으로써 방호정
다. 이 남 오십여척의 일부인
동서남북 평택항으로 2척이
착파 지인양어선 4척이 있
었음이었다. 남북 오십여척
오부명단은 파악하지 않고 있

- 라北된 船 32명의 명단
은 다음과 같다.
- ◊ 동명(33명·88마포)
▲신장 동정일(37·영(1))
▲기관장 유원순(48·추(1))
▲신원 이남(27·영(1))
▲신원 이남(27·영(1))
▲신원 이남(27·영(1))
 - ▲정태원(22·영(1)) ▲진(1)
▲이남(21·영(1)) ▲진(1)
▲이남(21·영(1)) ▲진(1)

- 수(31·영(1)) ▲영부(23·
영(1)) ▲신진호(33·추(1))
◊ 동명(33명·12마포)
▲신장 동정일(41·영(1))
▲기관장 유원순(31·영(1))
▲신원 이남(45·영(1))
▲이남(41·영(1)) ▲진(33·
영(1)) ▲이남(26·영(1))
◊ 신원(8명·20마포)
▲신장 동정일(35·거(1))
▲기관장 박종식(44·거(1))
▲신원 진시열(27·거(1))
▲진(40·거(1)) ▲영(34·
거(1)) ▲진(34·거(1))

- ◊ 신원(5명·15마
포)
▲신장 동정일(45·거
진)
▲기관장 진시열(48·거
진)
▲신원 이남(33·거
진)
▲안복삼(48·거
진)
▲송원하(48·거
진)
▲박창기(34·거
진)

漁夫72名 또 拉北

東海서 機関砲 쏘며 船體強占... 끌고 가

【東海에서 嚴文星記者】
8일 오전 10시쯤 동해안트
지선근항에서 機関砲의 하
면 우리어선 왕양호등 8
척과 7일 주위진양출항,
끌어오지 않고 있는 2척등
모두 10척 선원 72명이 북
괴속정 ODL 2척에의
대포 난포됐다.

이 사실은 이날 오후 남
북도중 군사적으로 탈출해
우 기진항소속 범양호(8
톤·20마력·선장 洪基熙·
44)에 의해 밝혀졌다.
이날 북괴속정인 우리
어선 3척이적이 조인하고
있는 어뢰지선인 남쪽 3

마일 해상까지 침입, 기관
포를 쏘며 전선, 기진항 북
으로 물리라고 위협했다.
우리어선들은 다시와그를
동어구(5톤)의 탄환이치 불행
게치고 남으로 탈출했으나
앞에 있던 왕양호, 풍성호,
수진호, 대동2호, 송화호등
5척은 북괴수병이 올라타
장제로 북으로 끌고갔다.
이날 남북의 선원들은 일부 선
원만 남은 구원받았다.

◇王陽號(12톤·20마력·
기진항소속) ▲선장 金秉學
(38) ▲기관장 朴壽君(38)
▲吳元在(32) ▲李顯盛(34)
▲金鍾鎔(29) ▲李昌佐(21)
◇豐盛號(10톤·20마력·
기진항소속) ▲선장 黃元植
(30) ▲기관장 李德岩(49)
▲金鍾三(49) ▲黃學吉(32)
▲金益煥(32) ▲張根德(24)
▲崔炳一(24) ▲金鍾順(43)
◇壽進號(12톤·20마력·
기진항소속) ▲선장 黃東錫
(35) ▲기관장 李秉柱(51)
▲方富燾(51) ▲李雨益(45)
▲張斗鉉(35) ▲鄭溥白(41)
▲朴仁煥(30) ▲鄭道民(18)
◇大東2號(14톤·25마력·
기진항소속) ▲선장 金載洙
(27) ▲기관장 崔昌福(27)
▲李沢鉉(58) ▲金在天(55)
▲吳相旭(30) ▲韓得七(28)
▲印乾植(27) ▲李春雨(27)

북괴선박귀환

북괴선박 22척

【三】가장오래 북괴의 단
북괴선박 22척은 20일 오후 8시 15분
포항에서 19척(19척·한산·한양·한강·
43)에 4척의 선원
31명(22명)이 북괴에서
북괴선박 22척은 20일 오후 8시 15분
포항에서 19척(19척·한산·한양·한강·
43)에 4척의 선원
31명(22명)이 북괴에서
북괴선박 22척은 20일 오후 8시 15분
포항에서 19척(19척·한산·한양·한강·
43)에 4척의 선원
31명(22명)이 북괴에서

호2호(14척·한산·한양·한강·
49)가 20일 오후 8시 15분
포항에서 19척(19척·한산·한양·한강·
43)에 4척의 선원
31명(22명)이 북괴에서
북괴선박 22척은 20일 오후 8시 15분
포항에서 19척(19척·한산·한양·한강·
43)에 4척의 선원
31명(22명)이 북괴에서

납북사건 보도 자료집

70년대 (1970 ~ 1979)

- ▶ 해군 I-2정 납북(70.6.5) 101
- ▶ 신진호 귀환(70.6.19) 104
- ▶ 만복호, 신양호, 어신호, 우진호, 제1만복호 납북(70.7.9) 105
- ▶ 봉산21호, 봉산22호 귀환(70.11.29) 107
- ▶ 시영호 납북(71.1.6) 110
- ▶ 만복1호, 만복2호, 무진호, 신영호, 어신호, 제7남일호 귀환(71.3.20) 111
- ▶ 금강산호, 어신호 귀환(71.3.20) 113
- ▶ 동해호 귀환(71.5.31) 117
- ▶ 탁성호 납북(71.8.30) 119
- ▶ 명성3호 납북(71.10.25) 120
- ▶ 안영35호, 안영36호 납북(72.2.4) 121
- ▶ 금해호 납북(72.5.3) 123
- ▶ 창동호, 협동호 귀환(72.5.10) 124
- ▶ 근진호, 동림호, 일성호, 창동호, 협동호 귀환(72.5.10) 125

▶ 건진호, 동림호, 일선호 귀환(72.5.11)	126
▶ 고흥호, 대복호, 대청호, 명성3호, 승운호, 제2승해호, 제6해부호, 탁성호 귀환(72.9.7)	127
▶ 대양호, 무진호, 삼창호, 해성호 귀환(72.9.15)	128
▶ 해영호 귀환(72.12.27)	131
▶ 금성호, 미조호, 일신호 귀환(73.8.1)	132
▶ 금성3호, 일진6호 귀환(73.8.1)	133
▶ 수원32호, 수원33호 납북(74.2.15)	134
▶ 해경 863함 납북(74.6.28)	137
▶ 제3신진호 납북(76.8.30)	139
▶ 제3신진호 귀환(76.10.14)	141

海軍放送船 被拉

將兵 20名 태운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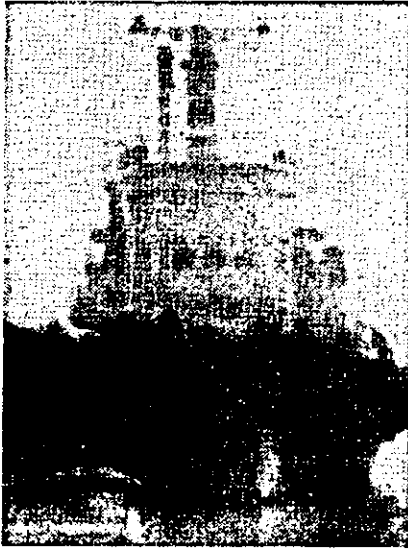
延坪島 近海에서 어로 保護中

北傀快速艇 2隻이 奇襲

【延坪島 5일 아사】 1시간 30분을 걸친 해상 교착상태가 끝났고, 북傀 2척은 남방 해상에서 포위망을 뚫고 북쪽으로 후퇴했다. 남방 해군은 2척의 북傀를 포위하고 있다. <북傀의 후퇴> <남방 해군의 포위>



【북傀의 후퇴】 북傀 2척은 남방 해군의 포위망을 뚫고 북쪽으로 후퇴했다. 남방 해군은 2척의 북傀를 포위하고 있다. <북傀의 후퇴> <남방 해군의 포위>



北傀에 탄 남방 해군放送船과 同型의 船隻

북傀의 후퇴는 남방 해군의 포위망을 뚫고 북쪽으로 후퇴했다. 남방 해군은 2척의 북傀를 포위하고 있다. <북傀의 후퇴> <남방 해군의 포위>

海軍放送船의 拉北

社說

北朝鮮의 海軍放送船이 南朝鮮의 海軍放送船을 拉北한 것은 北朝鮮의 海軍이 南朝鮮의 海軍을 拉北한 것과 마찬가지로 北朝鮮의 海軍이 南朝鮮의 海軍을 拉北한 것이다. 이는 北朝鮮의 海軍이 南朝鮮의 海軍을 拉北한 것과 마찬가지로 北朝鮮의 海軍이 南朝鮮의 海軍을 拉北한 것이다.

II

北朝鮮의 海軍이 南朝鮮의 海軍을 拉北한 것은 北朝鮮의 海軍이 南朝鮮의 海軍을 拉北한 것과 마찬가지로 北朝鮮의 海軍이 南朝鮮의 海軍을 拉北한 것이다. 이는 北朝鮮의 海軍이 南朝鮮의 海軍을 拉北한 것과 마찬가지로 北朝鮮의 海軍이 南朝鮮의 海軍을 拉北한 것이다.

外貨稼獲의 增進을 위한 對策

北朝鮮의 外貨稼獲을 증진하기 위하여 北朝鮮의 政府는 對策을 講求하고 있다. 이는 北朝鮮의 政府가 對策을 講求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北朝鮮의 政府가 對策을 講求하고 있는 것이다.

II

北朝鮮의 外貨稼獲을 증진하기 위하여 北朝鮮의 政府는 對策을 講求하고 있다. 이는 北朝鮮의 政府가 對策을 講求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北朝鮮의 政府가 對策을 講求하고 있는 것이다.

北녘 향해 憤怒의 몸부림


“被拉海軍가족들” 生死만이라도 빨리 알려라



○이제라도 가족들의 생사 소식을 알려달라
 ○가족들이 걱정하는 북녘의 가족들
 ○북녘 가족들의 생사 소식을 알려달라
 ○북녘 가족들의 생사 소식을 알려달라
 <북녘 가족들>

우리만의 悲劇이다

거의 서울 시내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對策을

-  朴正熙 元帥
-  金大중 前首相
-  金日成 北朝鮮 最高指導者
-  金瑬山 北朝鮮 元帥
-  金宗一 北朝鮮 元帥
-  金宗南 北朝鮮 元帥
-  金宗浩 北朝鮮 元帥

北朝鮮의 北녘 海軍 가족들이 生死만이라도 빨리 알려달라... (Main body text describing the plight of military families and the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北朝鮮의 北녘 海軍 가족들이 生死만이라도 빨리 알려달라... (Main body text describing the plight of military families and the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北朝鮮의 北녘 海軍 가족들이 生死만이라도 빨리 알려달라... (Main body text describing the plight of military families and the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拉北신진호 歸還

2百70日만에船員10名도

【仁川】작년 9월 19일 서해
 푸산도 남쪽 15마일 해상에서
 북괴패총정에 납북됐던 여
 수어협소속 유자망어선 Y
 F-7055 신진호(27톤·선
 장 최두용·42)가 남북 2
 백 74일 만인 19일 밤 9시 50
 분 선원 10명용 테우고 인
 천항에 돌아왔다.

1970年7月11日 星期三 (6月11日 壬戌) 中 南 日 報

漁船5隻拉北

船員 29

西海서 흥어잡다 北傀警備艇銃擊받고

【仁川】9일삼오0시20분경 京畿道 漣川郡白翎面蓮和1里 北傀로 두포진 포구 서쪽 6마일 해상에서 흥어잡이 하던 배편어항소속 어신호 등(91관)5척이 선원29명과 함께 북괴부장 경비

정 3, 4척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남파했다. 이 어선들은 지난 8일 하오 5시쯤 두포진포구를 떠나 흥어잡이를 하고있었는데 이들과 함께 북괴정비정에 의해 북괴로 끌려

가던 다른 어선10척은 북傀의 총격을 무릅쓰고 도망쳐나왔다. 남북된 어선과 선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어신호(9·42) ▲선장 유봉선 ▲기관장 유원복 ▲선원 김만규 ▲선유 ▲박사

유 ▲김영국 ▲박재명 ◇신양호(6·5) ▲선장 한봉현 ▲기관장 서상경 ▲선원 조재근 ▲병선원 최상연 ▲최봉원 ◇만복호(2·3) ▲선장 이경찬 ▲기관장 한병조 ▲선원 박부원 ▲최상진 ◇우진호(8·6) ▲선장 박경신

▲기관장 전호신 ▲선원 김대선 ▲최부선 ▲최무석 ▲장종길 ◇제1만복호(4·9) ▲선장 명남 ▲선원 최상원 ▲김태성 ▲김경연 ▲최봉성

漁船5隻 20名被拉

白翎島近海서 北傀경비정 銃撃받고

【仁川】 지난 9일 새벽 0시 10분쯤 서해 용진군 백령면 연화1리 백령도 서쪽 7마일해상에서 홍어잡이하던 백령어협 소속 어신호(9·5톤) 등 어선 5척이 신원 29명을 태운 채 북괴 무장경비정 3척의 총격을 받고 납북됐다.

이같은 사실은 현장에 있던 다들 어선 11척이 가까스로 백령도연화1리 외해 이남아침두무진항에 귀항, 경합에 신고함으로 적발 여겼다.

납북된 어선들은 무전시설이 없어 북괴경비정이 접근해 오는 것을 보고도 경합에 구급요청을 못했었다.

뒤늦게 출동한 해군파견함은 현장에서 주낙의 절된 부표만 발견했을 뿐 어선 5척이 모두 납북된 것으로 추정했다.

봉산21호, 봉산22호 귀환(70.11.29)

第1609號

1970年11月30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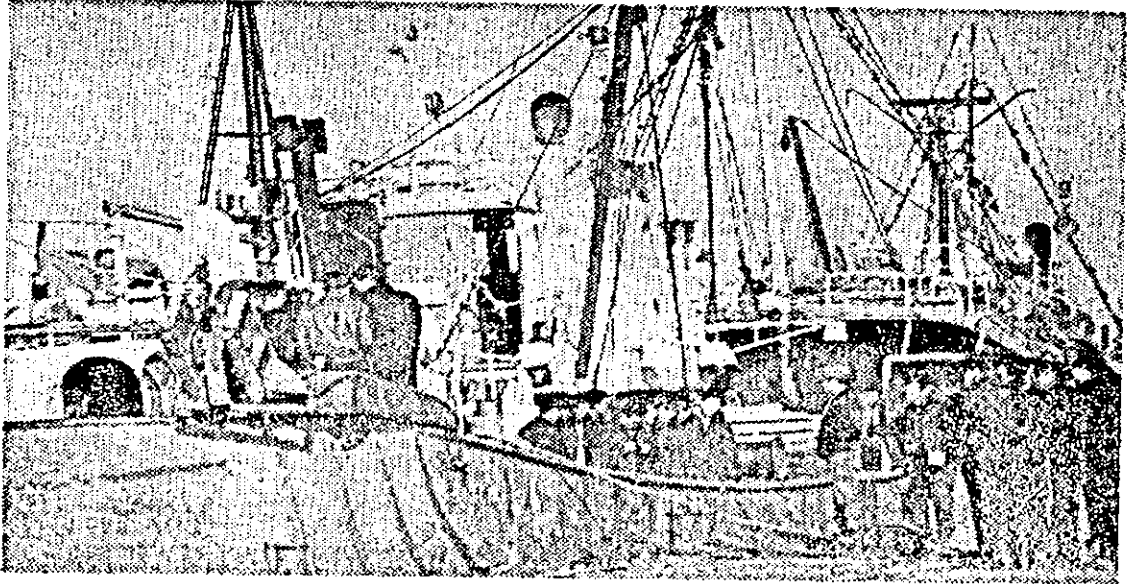
月曜日

중

앙

일

보



돌아온 「8個月」 돌아온 鳳山제22호와 <안> 21호.



自由를 찾은 얼굴. 8개월만에 북괴의 억류에서 풀려난 귀환자들은 억류생활의 고생으로 초췌했으나 안도의 미소를 띠며 仁川에 상륙, 동료들의 품에 안겼다. <金澤鉉기자적음>

봉산21호, 봉산22호 귀환(70.11.29)

【仁川 臨時取材班】 지난 4월 西海 小靑島 남방 해상에서 어로작업중 불법 남획한 북극곰피장에 의해 남획되었던 우리어선 3척과 선원 32명이 28일 하오 2시 8개월만에 북극의 얼룩에 서둘러나 29일 상오 仁川항에 도착, 자유의 품에 돌아왔다. 이날 귀환한 어선은 모두 선적이 慈山인 기선저인망으로 三燈불산주식회사(서울 中區明洞·대표 李八龍·43) 소속 99호짜리 鳳山21호(선장 金京玉·35)·22호(선장 高金수·46)와 慈山어협소속 魏亞호(58)·선장 黃학수(34)이다. 선원은 魏亞호만 13명전원이 귀환했을뿐, 鳳山21호는 피납된 14명중 10명만, 鳳山22호는 12명중 9명만 돌아와 남북어부 39명중 32명만 돌아오고 7명은 계속 북극에 억류되어있다. 鳳山21호와 22호는 3년 전 대일청구권자금으로

本에서 도입한 3조(1조에 2척)중 1조트 3월 20일 仁川항을 떠나 북극의 얼룩을 잡다가 4월 2일 새벽 4시쯤 小靑島 남동 25마일 해상(북위 37도 22분·동경 1백 25도 13분)에서 남북했으며 魏亞호는 이보다 앞서 3월 27일 부덕도 서쪽 6마일 해상에서 역시 흥어잡이를 하다 남북되었었다. 이흥어선이 석방된것은 28일 하오 3시 55분 延坪島 〇〇지리의 「레이다」에 포착된것으로 확인됐으며 대가 중이면 우리해군 862함, 865함과 해상 305함이 출동, 仁川까지 예인했다. 29일 상오 9시 55분 仁川외항에 도착한 귀환선원들은 해상검역소에서 2시간에 걸처 검역을 마치고 삼육, 상오 11시 50분 京畿道경 「버스트」로 뉴·아폴로 여관, (內洞)에 임시수용되었다. 귀환자들은 30일 전장진 단과 함께 피로돌 한고 끝 집으로 돌아갈예정이다.

◇귀환자 명단

○鳳山21호 ▲金京玉(35, 全南高興郡蓬萊面白楊里) ▲선원·명양순(23, 선원·全南高興郡蓬萊面白楊里) ▲송수(32, 선원·京畿道始興郡) ▲정희(30, 선원·慶南統營郡光道面安井里) (이상 9명)
○鳳山22호 ▲高金수(46, 全南高興郡蓬萊面白楊里) ▲선원·李女慈(42, 서울永登浦區銅雀洞56) ▲김관장(仁川市松月洞1街4) ▲이근선(20, 선원·釜山西區堂里洞397) ▲김중주(28, 선원·釜山東萊區民藥洞123) ▲김수옥(30, 선원·慶南統營郡龍南面院坪里) (이상 10명)
○鳳山22호 ▲고광수(46, 全南高興郡蓬萊面白楊里) ▲선원·高炳珍(37, 선원·山里) ▲고영선(37, 선원·서울永登浦區銅雀洞56) ▲김관장(仁川市松月洞1街4) ▲이근선(20, 선원·釜山西區堂里洞397) ▲김중주(28, 선원·釜山東萊區民藥洞123) ▲김수옥(30, 선원·慶南統營郡龍南面院坪里) (이상 13명전원)

◇미귀환자 명단

○鳳山21호 ▲鄭永哲(19, 선원·仁川市花水洞266) ▲장병일(230, 선원·仁川市北城洞2街) ▲최종동(19, 선원·全南康津郡康津邑) ▲김태양(27, 선원·全南莞島郡莞島面) (이상 4명)
○鳳山22호 ▲박희권(24, 감관장·浦項市汝南洞197) ▲이재근(33, 선원·蔚山古沙洞491) ▲황성근(32, 선원·忠南瑞山郡近興面程竹2里) (이상 3명)

(火曜日)

西紀1970年12月1日

9版

보 일 선 조

拉北漁夫 32명귀환

【仁川】서해연평도(延坪島) 근해에서 북피경비정에 강제로 끌려갔던 부산원양어업소속 저인망어선(쌍두기) 봉산21호(99톤·선장 김경우·44), 22호(5톤·선장 고금수·46), 풍아호(58톤·선장 황학수·34) 등 3척이 남북 7개월만인 29일 오전 8시 30분 어부 32명 을 태우고 해군경비정의 보 호를 받으며 인천항에 돌아왔다.

이들은 28일 오후 1시 남 북피해주항에서 풀려남 하중 오후 2시 30분 접 연 평도 근해에서 초계중인 우 리해군함정의 편이대로 포 작, 인계되어왔다.

北傀艦砲에 漁船 침몰

拉北企圖 무차별射擊 12명死亡

白翎近海서

대간첩대첩본부는 지난 6일 밤 휴전선 남쪽 서해상에서 어르조업중인 우리 어선 2척이 北傀함정의 무차별사격으로 1척은 화염에 사멸되고 1척은 1척은 침몰하고 나머지 1척은 해군함정의 해 구조했다고 7일 발표했다.

상에서 어르조업중 수척의 北傀정비정이 어들을 툼라 남쪽을 북쪽으로 접근해와 무차별발포. 이중 1척이 본 길에 빠져 침몰했다고 밝혔다.

대간첩대첩본부는 이날 해군은 구조에 성공한 1척의 어선을 7일 하오 仁川항에 귀환시켰다고 발표했다.

선 시영호(82·5, 仁川 원양어업소속)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선은 지난 1일 상오 9시 仁川항을 출항 어르조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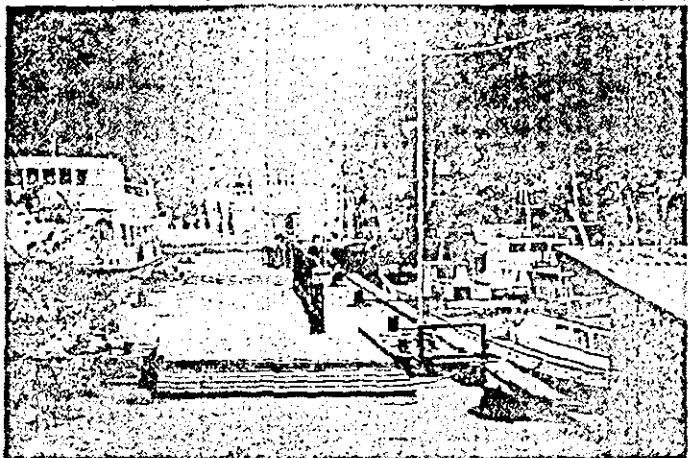
또 어선엔 12명의 선원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선장 박천행(43·경남 남해군 남면면민 1리) ▲기관장 정해운(48·거제군 장동면 면민 38) ▲박정구(34·부산 시) ▲김인철(21·웅진군 백령면대침리 32) ▲정삼용(21·부산시 부산진구 동현동 603) ▲김복판(30·남해군 남면면민리) ▲김태승(25·남해군 남면면민리) ▲이창규(21·남해군 남면면민리) ▲김동수(42·제주도 북제주군 자천사암리) ▲강창우(37·웅진군 목지면동함리) ▲송복만(27·남해군 남면면민리) ▲정도복(27·남해군 남면면민리)

浦口에 댓너리고 밤새워

仁川埠頭한때 緊張...바람자기 기다려

【仁川21일 특보】북한군정권은 20일 밤 12시경 인천항을 침범한 후, 21일 새벽 1시경 인천항을 완전히 장악했다. 북한군정권은 인천항을 장악한 후, 인천항을 완전히 장악했다. 북한군정권은 인천항을 장악한 후, 인천항을 완전히 장악했다.



◆森林한 埠頭 仁川에서 北軍이 侵入한 것을 映한 사진이다. (이 사진은 인천항에 대한 침입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북한군정권은 인천항을 장악한 후, 인천항을 완전히 장악했다. 북한군정권은 인천항을 장악한 후, 인천항을 완전히 장악했다. 북한군정권은 인천항을 장악한 후, 인천항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젠 한숨 놓겠다 (A man expressing relief or exhaustion.)

북한군정권은 인천항을 장악한 후, 인천항을 완전히 장악했다. 북한군정권은 인천항을 장악한 후, 인천항을 완전히 장악했다. 북한군정권은 인천항을 장악한 후, 인천항을 완전히 장악했다.

仁川署-自衛支隊의 고신
 仁川署-自衛支隊의 고신... (News about the self-defense force in Incheon.)
船員들은 자기漁船에 있다
 船員들은 자기漁船에 있다... (Fishermen are on their own fishing boats.)
海軍서 1次조사 시작했다
 海軍서 1次조사 시작했다... (The navy has started the first investigation.)

이젠 한숨 놓겠다
 이젠 한숨 놓겠다... (A man expressing relief or exhaustion.)

第126號 (71年 3月21日)
 발매대금... 220원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김수환

週刊朝鮮

이제 북한정부는... (News about North Korea's government.)

북한정부는... (North Korea's government...)

제3신 (3000호)
 제3신 (3000호)... (News item 3000.)

제2신 (2000호)
 제2신 (2000호)... (News item 2000.)

西紀1971年3月21日

(西紀1920年3月5日創刊)

The Chosun Ilbo

拉北漁夫33名 귀환

6隻백령도入港, 오늘仁川에

【仁川이사회社臨時取材班】20일 오후 6시경 33명의 어부들이 서울로 귀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이들은 백령도(北嶺島)의 어부들이며, 10개월간 백령도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10개월간 백령도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10개월간 백령도를 지키고 있다.

해군802함대 이범익후
 사령관 장준하(장준하)
 사령관 장준하(장준하)
 사령관 장준하(장준하)
 사령관 장준하(장준하)
 사령관 장준하(장준하)
 사령관 장준하(장준하)
 사령관 장준하(장준하)
 사령관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장준하(장준하)

◇臨時取材班
 ▲社會部 尹海海 崔
 ▲求 曹外興 高學用
 成漢杓記者
 ▲寫眞部 任熙澤 李
 相模記者
 ▲地方部 劉德次 張
 星植 金珠德記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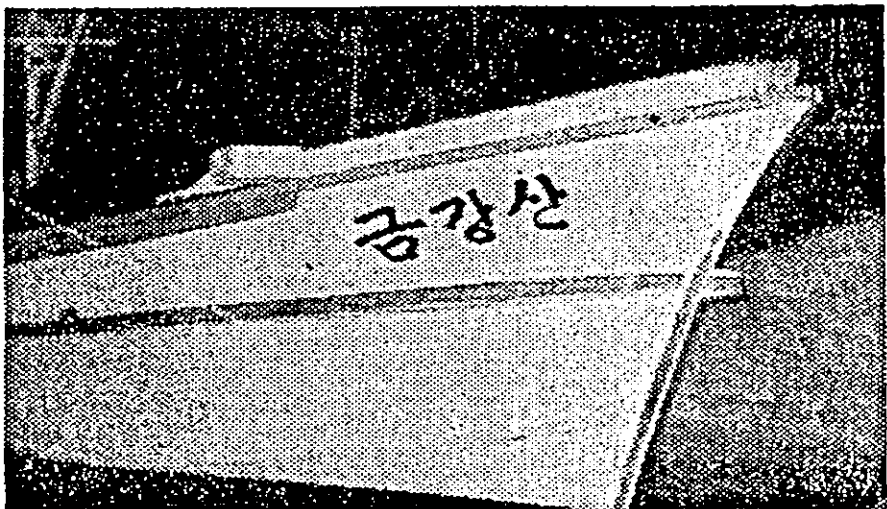
금강산호, 어신호 귀환(71.3.20)

1971年3月22日 月曜日 (陰二月二十六日 丙午) 중 앙 일 보

拉北漁夫 36명 歸還



男便과 아빠를 기다리며 귀환어부의 가족들은 8개월여만에 풀려 돌아오는 남편·아빠들의 모습을 보려고, 仁川부두에 나와 이륙동안을 안타깝게 기다렸다. 왼쪽으로부터 魚信호선원 方원유씨를 기다리는 누이 현비씨, 누나 玟梅씨, 누이 玟梳씨.



自由에의 歸港—巨濟港에 닿을 내린 금강산호.

傾木(三)

北傀에 拉北됐던 漁夫33名을 태운 漁船6隻이 지난 20일 下午 5시 30분 우리 海軍의 보호를 받으며 西海 白翎島에 入港했고 東海에선 21일 밤 漁夫 4명을 태운 1隻이 巨津港에 돌아왔다.

이때 西海에는 10「노트」의 심한 西北風과 波高 1.5m의 파도가 운파도가 굽이치고 있었다. 9개월 가까이나 연류하고있다가 왜 하필이면 이런 날을 택해 다시 바다로 내몰았는지 새삼 北傀의 非人道的處사가 끔찍스럽기만 하다.

拉北漁夫

地上에서와 마찬가지로 海上에도 主權이 미친다.

公領海權·大陸棚資源에 대한 排他的 占有權發權·漁業專管水域 등이 그것가지 實例이다. 이 중에서 國際條約으로 成文化된 慣例로는 領海權과 大陸棚主權 등이 있다.

領海에 있어서는 12海里를 주장하는 나라들이 1968년 당시엔 32個國이었다. 6海里는 15個國, 4海里國은 3個國이다.

地上에서의 國境線을 바다로 얼마까지 延長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의 領土 및 領

海主權은 全韓半島에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 地上에서의 事實상의 領土主權이 미치지 않는 休戰線과 함께 領海上 休戰線 남쪽에는 바로 漁撈禁止線이라는 게 있다. 이것만은 어떤 일에도 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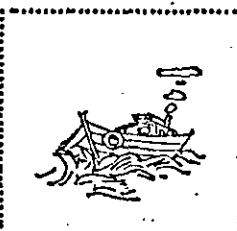
더 말할 것도 없이 地上에서는 境界의 표시가 있지만 海上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따라서 魚群을 좇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境界를 넘어 서게 된다. 12海里나 바다 밖으로 나가면 더욱 알질이 어렵게

된다.

더우기 漁船이란 대개가 時速 7.2「노트」의 5, 6「차리」 소형이다. 큰 파도 하나만 잘못타도 線을 넘게 되고 파도를 이겨낼만한 能力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고기는 언제나 잡히는 것은 아니다. 고기떼를 언제나 만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공교롭게도 고기떼는 저지선 북쪽에 더 많다. 그러나 拉北의 나 漂流의 위험을 자오하면서 고기잡이에 나서면 우리의 漁夫들에게 있어서는 漁撈禁止線은 二



重으로 生命線이 되는 것이다.

이때서 拉北됐던 우리네 漁夫들이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얼마나 더 많은 漁夫들이 北傀의 暗黒世上에 갇혀 있는지 도 분명치 않다.

뿐만 아니라 무슨 生色이나 내는 것 처럼 拉北漁夫의 送還을 알리면서도 北傀는 돌려보내는 때와 漁夫의 姓名 또는 出發地點·時間 같은 것은 일체 밝히지 않았는 다. 拉北漁夫들에게 別의 별 腦工作을 다하고 있는 실정

차린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고기잡이에 政治가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개의 경우, 우리 내 한 사람의 漁夫에게는 으레 대역적의 食口가 달려 있기 마련이다. 이런 生活의 기둥이 무너지면 나머지 食口들은 모두 끼니마저 어렵게 된다.

이런 漁夫들을 몇달씩 잡아두고 갇은 凶計를 꾸미는 北傀는 적어도 사람은 아닌 것이다.

는 실정
과 함께
바로 이
런게 북
傀의 속
셈은 알

拉北되었던 漁夫들의 눈물겨운 歸還

拉北漁夫 36명이 9個月에 이르는 긴 期間의 倭國의 捕에 안기게 되었다. 昨年 7월 8일 西海 白翎島 西南方 漁撈禁止線南 方 10마일海上에서 倭어선이 침하된 後 6척의 우리 漁船이 夜暗中 捕獲 侵入한 北德蘇爾蘇에 拘留되었던 漁夫들이 3월 23일 北德蘇爾蘇에 歸還했다. 그러나 이

의 앞서 6월 23일에는 東海의 漁撈界限 線附近에서 倭어선이 침하 金剛山號 가 8명의 漁夫와 船員들과 더불어 北 德蘇爾蘇에서 事件이 발생하였었다. 이 事件의 東海海上으로 歸還한 漁夫들은 以上の 被擄者중의 大部分이며, 아직도 그중 10명은 北德蘇爾蘇의 인류 전체 中에서 未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生死 消息을 알 수 없었던 이들 漁夫가 生死 의 고비를 넘어 歸還하였던 것을 우선 그 家族들과 同胞이 기뻐하는 時에 北德蘇爾蘇에 계속 留置하고 있는 10명의 漁夫들의 安否를 새삼 근심 하는 한편, 北德蘇爾蘇의 處理에 대해 民族的, 人道主義的 抗議를 보내는 것 이다. 休戰線南方 漁撈禁止線上에서 우리 漁船들이 不法 拉致된 事件이 屢번이 일어나고, 結果는 以上 北德蘇爾蘇의 行爲를 구할 必要性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상무적 行爲가 休戰 協定の 趣旨에 비추어 보나, 國際法의 例에서 보나, 民族的 見地에서 보나 文明人으로서 는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殘行이므로 金日成一派의 拉致政策에 대해서도 叱咤는 人間の 憤怒를 發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激憤과 不平을 알고자 하면, 食口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이들 漁夫들을 생각하면 拉致하고, 洗滌하고, 洗滌 작업을 強제하고, 洗滌하는 경우라도 이들의 姓名을 洗滌하는 場所는 豫告하는 必要가 없다.

이 들어들은 大海이다. 내동녕이치는 自 己들의 怨憤을 무엇으로 辨明하려는가. 이 것이 「人民」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革命」을 촉진하는 길이요, 祖國統一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倭의 致作風을 人類主義의 末期徵兆로서 認할 만 한 일인가. 이들을 強제하는 手段으로서 北德蘇爾蘇의 「發展相」을 示하고 平壤을 구성시키고, 金日成의 出 生地인 萬景臺를 巡視시킨다고 해서, 이 들이 感激하고, 大韓民國의 國民들이 感激 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인가. 捕獲자인 이 政治捕虜들에게 아무리 「思想 教授」이란 것을 強國하고, 教育을 授與해 보았는가. 그것이 效果를 얻을 리는 萬無 하나이다. 이것을 모르면, 北德蘇爾蘇의 工作 目的은 神祕戰과 挑撥行爲를 行하고 있는 것 이 그들의 眞情이다. 그러나 한편 이 들은 被拉漁夫들이 아니라, 北德蘇爾蘇의 工作에 參與하여 從事하는 者가 되었으므로 法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當局이 難選漁夫들을 反共法違反으로 認定 立件하고 제벌이 適當한 것이 아니라, 措施 勿論 무리하고 못마땅하다 할 수가 없다. 北德蘇爾蘇의 浸透工作를 阻礙한 것이 勿論 不可避한 事實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當局의 立場이 北德蘇爾蘇의 被擄者 들을 立場과 그들의 眞情 處地에 充分 配慮를 할 것이고, 또 그들은 同胞들로서도 勿論 尊重할 만하고, 또 만민과 同等待遇를

拉北漁夫 6명歸還

〔東草〕 지난해 10월 10일 동해어로저지선근해에서 북어잡이를하다 북괴에 남북뺏던 東草항소속어선 동해호(9·6t·선장 박기순·61)의 어부 6명이 동해호를 타고 31일하오 3시쯤高城郡巨津항 앞바다에서 해양경찰대경비함의해에인, 巨津항에 귀항했다.

拉北漁夫 5명귀환

【東草】작년 10월 10일 동해

어로저지선 근해에서 북어
잡이물 하다 북피에 남북
되었던 속초항소속 동해호
(9.6톤·선장 박기순·61)
와 선원 5명이 31일 오후 2
시 20분 거진(巨津)항으로
돌아왔다. 귀환선원들은 다음
과 같다.

- ▲박기순 (61) · 선장 · 속초시
동명동 361) ▲차동탁 (43) ·
기관장 · " 166) ▲박용
구 (46) · 선원 · " 261)
▲임영수 (59) · " 364)
▲권동혁 (23) · " 364)
▲이영진 (34) · " 25)
고성군

漁夫30명 拉北 東海

出動한 海軍艦에 "끌려간다" 無電

19톤 탁성호

「東京」張島縣「자」30원하
오 2시41분 海軍의로저지

선 군해의사 이로작업중의
선 탁성호(19·6·1·선적
濟州道 南濟州郡 南元面南元
里 德安邑社 500)가

피경비정의 추적을 받던중
의 뒤쪽이 나타난 북극의
인선의 선인 30명용 배를
채 끌려갔다.

이날 출몰한 해군함정
선한 동양부천함안개포
선호가 끌려가자 함정용수
를 없애고나 끌려간다는
지막포신피용도로써 남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동해의로보보함부위
의하면 이배는 출항신보용
양은제 불발출항있었다는것
이다.

이단하오 유전선 군해의
서 유의해관과 육의경비
정이 도착하고있는 사이와
있던탁성호는 하오2시41분
북극장전함에서 나타난50·
급의 예인선에 끌려간다는
마지막 부전술 탁성호의 소
식이 풀렸다.

남북전 선원이합동 다
과한다.

▲화성주(선장·62·全南
高陽郡樂田)▲우동(기관
장·32·全南麗水市西校洞)
▲진동원(37·麗水市西校洞)
▲박준하(46·여수시서교동)
▲심영배(32·여수시서교동)
▲김한영(49·여수시서교

- ▲공(▲윤승익(40·여수시서교동)
- ▲김도암(33·全南麗水市安島邑)
- ▲서미남(32·全南의천군남면안도리)
- ▲김여중(30·全南의천군남면안도리)
- ▲안도리(▲심영수(35·全南의천군남면안도리)
- ▲김석부(34·全南麗水市西校洞)
- ▲김창희(62·全南麗水市西校洞)
- ▲김낙태(30·全南麗水市西校洞)
- ▲박만(37·全南麗水市西校洞)
- ▲김성안(50·麗水市東山洞)
- ▲김석수(29·麗水市東山洞)
- ▲김영수(62·麗水市東山洞)
- ▲김재수(47·麗水市東山洞)
- ▲김유근(46·麗水市東山洞)
- ▲김우순(41·麗水市東山洞)
- ▲김희현(53·麗水市東山洞)
- ▲김소성(39·麗水市東山洞)
- ▲안장부(33·麗水市東山洞)
- ▲박영환(27·麗水市東山洞)
- ▲이성재(35·麗水市東山洞)
- ▲김삼보(53·麗水市東山洞)
- ▲유재중(54·麗水市東山洞)
- ▲진인호(27·麗水市東山洞)
- ▲유준호(18·麗水市東山洞)
- ▲유준호(18·麗水市東山洞)

20名탄 漁船납북

東草歸航中

【북포】 25일 오전 6시 47분
 남포에서 귀환하던 남포 15마
 일 해상에서 어선 20척의 어선
 정 3정전선(19·02명·선
 장 1명·33)가 선 20
 마 7시 31분 남포 25
 마 21일 오전 8시 25
 미 「이라크」로 보냈다가
 24
 가 입 4시 25분 남포 24
 향 24마 25분 남포 24
 입 24마 25분 남포 24
 장 24마 25분 남포 24

속초시청(남포)에서 24
 월 21일 오후 6시 25분(16
 ·9분)가 남포 24
 우고 어선 20척의 어선
 가 24마 25분 남포 24
 장 24마 25분 남포 24
 장 24마 25분 남포 24



△잡이선 어선 제35안영호(左)와 36안영호.

北傀艇砲擊 1척被沈

大青島근해公海上서 海軍출동 殘餘어선保護

【서울 6日電】북괴가 대청도 근해 공해상을 6일 새벽에 포격하여 1척의 어선을 침몰시켰다. 북괴는 또 다른 2척의 어선을 포격하였으나 침몰시키지는 않았다. 북괴는 또 다른 2척의 어선을 포격하였으나 침몰시키지는 않았다.

脱出선원 數名 부상

【서울 6日電】북괴가 대청도 근해 공해상을 6일 새벽에 포격하여 1척의 어선을 침몰시켰다. 북괴는 또 다른 2척의 어선을 포격하였으나 침몰시키지는 않았다.

北船員 1명 부상

【서울 6日電】북괴가 대청도 근해 공해상을 6일 새벽에 포격하여 1척의 어선을 침몰시켰다. 북괴는 또 다른 2척의 어선을 포격하였으나 침몰시키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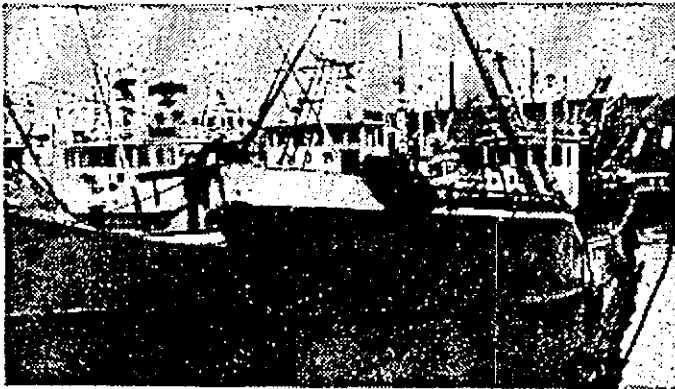


북괴가 대청도 근해 공해상을 6일 새벽에 포격하여 1척의 어선을 침몰시켰다. 북괴는 또 다른 2척의 어선을 포격하였으나 침몰시키지는 않았다. 북괴는 또 다른 2척의 어선을 포격하였으나 침몰시키지는 않았다.

북괴는 또 다른 2척의 어선을 포격하였으나 침몰시키지는 않았다. 북괴는 또 다른 2척의 어선을 포격하였으나 침몰시키지는 않았다. 북괴는 또 다른 2척의 어선을 포격하였으나 침몰시키지는 않았다.

북괴는 또 다른 2척의 어선을 포격하였으나 침몰시키지는 않았다. 북괴는 또 다른 2척의 어선을 포격하였으나 침몰시키지는 않았다. 북괴는 또 다른 2척의 어선을 포격하였으나 침몰시키지는 않았다.

北拉50여명 5척 漁船



◇ 北拉된 어선 제35안영호 (左) 와 36안영호.

北傀艇砲擊... 1척被沈

大青島근해公海上서 海軍출동 殘餘어선保護

5일 北傀艇(北傀艇)가 大青島근해公海上에서 35안영호(35안영호)와 36안영호(36안영호)를 砲擊(砲擊)하여 1척(1척)을 沈沒(沈沒)시켰다. 北傀艇(北傀艇)는 35안영호(35안영호)와 36안영호(36안영호)를 砲擊(砲擊)한 후 大青島(大青島)로 逃竄(逃竄)했다. 北傀艇(北傀艇)는 35안영호(35안영호)와 36안영호(36안영호)를 砲擊(砲擊)한 후 大青島(大青島)로 逃竄(逃竄)했다.

北傀艇(北傀艇)는 35안영호(35안영호)와 36안영호(36안영호)를 砲擊(砲擊)한 후 大青島(大青島)로 逃竄(逃竄)했다. 北傀艇(北傀艇)는 35안영호(35안영호)와 36안영호(36안영호)를 砲擊(砲擊)한 후 大青島(大青島)로 逃竄(逃竄)했다.

조선일보

9版

西紀1972年5月5日 (金曜日)

西海小靑島 近海서

漁船 남북

北傀래속정이 発砲

【전문】 3일밤 10시쯤 서해

소청도(小靑島) 근해에서 고

기를 잡던 안장망어선 금

해호(24톤·선장 金富根·

42)가 북괴패속정에 남북

되고 있다고 인천어협무선

국에 구조요청을 보내온후

소식이 끊겼다.

해경에의하면 북괴패속정

이 조업중이던 우리어선에

발포했다는 것이다.

금해호에는 선장 김석봉

8명이 타고있다.

(休曜日)

西紀1972年5月11日

拉北漁夫 18명 귀환

협동호-창동호 1年만에... 모두 拘束키로

【東京】동해안에서 고기잡이하고 있던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10일 오후 북피에서 출항한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9版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보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일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선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조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해안에서 출항한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西海서도 귀환연락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창동호(15명)와 창동호(16명)가 창동호(32)와 창동호(49)가 각각 7명씩 태우고

拉北漁船5척歸還

海警、漁夫42명 전원拘束방침

보 일 1972年5月11日 木曜日 第2056號

【仁川·東草】지난해 5월과 6월 서해 및 동해 어로 저지선 근해에서 고기잡이하다 북괴 경비정에 강제 납북된 어선 5척(서해 3척·동해 2척)과 어부 42명이 남북북 1년만에 풀려 10일 하오 및 11일 상오 仁川항과 東草항에 각각 돌아왔다.

이들 어선에 탔던 남북 어부 가운데 창동호(10)·선장 김봉호(49) 어부 김載洙씨(29·東草市東明洞16반)만 이날 돌아오지 않았다.

- △仁川항▽◇일성호(8명)
 ▲선장 한행준(37) ▲어부 성원일(47) 김갑석(32) 최양동(47) 이선기(33) 이성준(31) 정윤섭(47) 한영민(29)
 ◇동림호(9명) ▲선장 심태욱(38) ▲어부 심진홍(58) 강복윤(29) 김종학(31) 김무운(33) 심영호(22) 최현부(46) 김용일(33) 이창일(29)
 ◇근진호(8명) ▲선장 김장선(45) ▲어부 박용출(23) 김순우(21) 이기호(65) 오혁진(19) 천종복(21) 이철성(33) 안대성(24)
 △東草항▽◇협동호▲선장 李正鎬(31) ▲기관장 車치용(31) ▲어부 李길용(17)

拉北어부25명 仁川港에歸還

【仁川】송파=북부역시 북

문다상업선(호) (8통), 동

호(5통), 호진호(17통) 등

어선3척과 어부25명이

일선호1시점 해상경비장에

의해인선호의 인선호였다.

신선호는 인선호였다.

부25명선(호) 반경반과 수

산업선과북한선의로구송했다.

◇귀환어부명단

▲인선호=황정환(36)·선장

최양동(47)·기관장 이선환

(31) 안영민(39) 유선진(34)

민희(49) 김규태(32) 장

▲진진호=김장선(45)·선장

박영철(24)·기관장 김승구

(21) 변영복(28) 이철선(33) 이

기호(35) 안태선(25) 오

진(19)

▲동림호=신청우(34)·선장

김부용(31)·기관장 신진봉

(53) 이상안(28) 이만(22)

최영호(46) 김선학(31) 김

고흥호, 대북호, 대청호, 명성3호, 승운호, 제2승해호, 제6해부호, 탁성호 귀환(72.9.7)

1972년 9월 7일 木曜日 東草 張昌榮기자

【東草 張昌榮기자】 지난해 8월 동해에서 고기잡이하다 남북쟁전 東草항소속고흥호(15·9)·선장 尹순철(42) 등 어선 7척이 1백61명의 어부와함께 7일 상오 7시 30분쯤 울려 휴전선을 넘어와 해경의 보호를 받으며 이날 하오 3시 東草항으로 귀환했다.

이들 7척의 어선은 지난해 8·9·10월 동해어로 저지선 근해에서 고기잡이하다 남북쟁전이다.

이날 돌아온 어선과 어부는 지난 8월 30일 남북쟁전 東草항소속 탁성호(9·65)·선장 郭성규(41)와 어부 31명, 지난해 10월 25일 남북쟁전 東草항소속 명성3호(19)·선장 南홍준(33)와 어부 22명, 지난해 8월 18일 남북쟁전 제6해부호(17)·선장 金재원(35)와 어부 22명, 지난해 8월 26일 남북쟁전 제2승해호(13·09)·선장 金정인(39)와 어부 21명, 고흥호와 어부 22명, 注文漁항소속 대북호와 어부 20명, 我也津소속 승운호와 어부 23명 등 어선 7척과 어부 1백61명이다.

西海서도 한척 7일 낮 12시 45분쯤 西海해상으로 남북어선 1척(선원 6명)이 남방한계선을 넘어 仁川항으로 귀환중인 것으로 경찰에 보고됐다.

이 어선은 지난 7월 27일 어로작업중 남북쟁전 대청호

拉北漁夫 百61명 歸還

잡혀간 漁船 7척도

인것으로 알려졌다.

대양호, 무진호, 삼창호, 해성호 귀환(72.9.15)

1972年9月15日 金日 總 覽 日 報

拉北漁船 4척 93명 歸還

【東京】15일 상오 0시 15분쯤 지난 8월 23일과 24일 동해어로 저지선 근해에서 오징어잡이하다 남북전쟁 東草합소속 무진호(16·99)·선장 孫영구·37) 등 4척의 어선이 어부 93명과 함께 북한에서의 어류에서 돌아왔다. 東草합소속으로 돌아왔다. ▲무진호(16·99)·선장 孫영구·37·선원 23명·선적 東草合(孫英九)

▲삼창호(18·92)·선장 洪재천·37·선원 26명·선적 東草合(洪在千)
 ▲대양호(10·98)·선장 金남영·51·선원 19명·선적 交津(金南英)
 ▲해성호(19·97)·선장 池순식·39·선원 25명·선적 濟州(池順植)

西紀1972年9月15日 金曜日 (陰曆 8月8日 巳酉)

拉北漁夫귀환

【북부】지간8월28일 동해

상동선 5박차간행 1박차
 뽕뽕 속초항수속 어선4척
 파 85명외 어부가 15명
 새점 이선8척을 속초항이로
 부하했다.

조 선 일 보
 이틀이 5박차속초로

진수의의해 화양을 마친후

상항, 간동행할수록 이송됐
 부의 추천간장 장항청의
 이틀을 머무 3박차다 수
 간행하여간행이때 2간차로
 했다.

노병5척을 속초간행하다

음과했다.

- ▲우진회 (17명·선장 손영
 부동28명) ▲삼창회 (19명·
 선장 최자성동28명) ▲동양
 회 (11명·선장 김철동28
 명) ▲해성회 (25명)

金哲씨에 3年구형

反共法위반抗訴審

【金哲(金哲, 46)씨에 3年구형...】

反共法위반抗訴審... 金哲씨에 3年구형... 反共法위반抗訴審... 金哲씨에 3年구형...

歸還어부 84명 家族품에

身元보증받고 不拘束... 35명인拘束

【家歸】... 歸還어부 84명 家族품에... 身元보증받고 不拘束... 35명인拘束

歸還어부 84명 家族품에... 身元보증받고 不拘束... 35명인拘束... 歸還어부 84명 家族품에...

歸還어부 84명 家族품에... 身元보증받고 不拘束... 35명인拘束... 歸還어부 84명 家族품에...

어부 8명 태운 漁船 1隻 귀환

어제, 北韓서

【東洋】 지난 달 동해어로한
계선근해에서 공치잡이할 하
다 남북위원 주문진항소속해
영호(19톤·선장 백차화)가
27일 북한에서 출렁나 속초
항으로 돌아오고 있다.
해영호의 귀환은 벌써 동8
평의 선원이 타거었다.

금성호, 미조호, 일신호 귀환(73.8.1)

1973年8月1日 水曜日 忠 南 日 報

拉北漁船 3척귀환

漁夫 82명 東草로

【東草】작년 8월과 9월의

鬱陵島근해에서 오징어잡이

하다 남쪽됐던 어선 3척과

어부 82명이 1일 東草로돌

아왔다.

이날 巨津항소속 금성호

(19·9t)와 일신호(28

·7t) 미조호(15·9t)

중 남쪽됐던 3척의 배가

상오 7시반쯤남하하는 것을

東海를 경비하던 해군함정

이 발견, 東草港에 예인했

다.

拉北어부 歸還

80名... 1年만에 束草에

【束草】1년 어부 43, 1남 1녀 8명 등 51명. 7월 28일 1차 귀환. 2차 귀환은 8월 1일. 3차 귀환은 8월 3일. 4차 귀환은 8월 5일. 5차 귀환은 8월 7일. 6차 귀환은 8월 9일. 7차 귀환은 8월 11일. 8차 귀환은 8월 13일. 9차 귀환은 8월 15일. 10차 귀환은 8월 17일. 11차 귀환은 8월 19일. 12차 귀환은 8월 21일. 13차 귀환은 8월 23일. 14차 귀환은 8월 25일. 15차 귀환은 8월 27일. 16차 귀환은 8월 29일. 17차 귀환은 8월 31일. 18차 귀환은 9월 2일. 19차 귀환은 9월 4일. 20차 귀환은 9월 6일. 21차 귀환은 9월 8일. 22차 귀환은 9월 10일. 23차 귀환은 9월 12일. 24차 귀환은 9월 14일. 25차 귀환은 9월 16일. 26차 귀환은 9월 18일. 27차 귀환은 9월 20일. 28차 귀환은 9월 22일. 29차 귀환은 9월 24일. 30차 귀환은 9월 26일. 31차 귀환은 9월 28일. 32차 귀환은 9월 30일. 33차 귀환은 10월 2일. 34차 귀환은 10월 4일. 35차 귀환은 10월 6일. 36차 귀환은 10월 8일. 37차 귀환은 10월 10일. 38차 귀환은 10월 12일. 39차 귀환은 10월 14일. 40차 귀환은 10월 16일. 41차 귀환은 10월 18일. 42차 귀환은 10월 20일. 43차 귀환은 10월 22일. 44차 귀환은 10월 24일. 45차 귀환은 10월 26일. 46차 귀환은 10월 28일. 47차 귀환은 10월 30일. 48차 귀환은 11월 1일. 49차 귀환은 11월 3일. 50차 귀환은 11월 5일. 51차 귀환은 11월 7일. 52차 귀환은 11월 9일. 53차 귀환은 11월 11일. 54차 귀환은 11월 13일. 55차 귀환은 11월 15일. 56차 귀환은 11월 17일. 57차 귀환은 11월 19일. 58차 귀환은 11월 21일. 59차 귀환은 11월 23일. 60차 귀환은 11월 25일. 61차 귀환은 11월 27일. 62차 귀환은 11월 29일. 63차 귀환은 12월 1일. 64차 귀환은 12월 3일. 65차 귀환은 12월 5일. 66차 귀환은 12월 7일. 67차 귀환은 12월 9일. 68차 귀환은 12월 11일. 69차 귀환은 12월 13일. 70차 귀환은 12월 15일. 71차 귀환은 12월 17일. 72차 귀환은 12월 19일. 73차 귀환은 12월 21일. 74차 귀환은 12월 23일. 75차 귀환은 12월 25일. 76차 귀환은 12월 27일. 77차 귀환은 12월 29일. 78차 귀환은 1월 1일. 79차 귀환은 1월 3일. 80차 귀환은 1월 5일.

被擊 3 分에 침몰

水原32號

남북상환 中 韓 通信員 말 대피중 北 倭艦 또出現



△水原33號의 부전용 받아 해경에 항계해한 모란31號의 통신장 송씨가 그의 부전기앞에서 당시의 피신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新聞記者 朴慶植

【本報水原32號訊】北軍의 倭艦이 水原32號의 韓軍을 擊沈한 뒤 3分에 침몰했다고 韓軍의 通信員 송씨가 20일 水原에서 本報에 말했다. 송씨는 "北軍의 倭艦이 水原32號의 韓軍을 擊沈한 뒤 3分에 침몰했다"고 말했다.

수원32호의 부전용 받아 해경에 항계해한 모란31호의 통신장 송씨가 그의 부전기앞에서 당시의 피신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송씨는 "北軍의 倭艦이 水原32號의 韓軍을 擊沈한 뒤 3分에 침몰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北軍의 倭艦이 水原32號의 韓軍을 擊沈한 뒤 3分에 침몰했다"고 말했다.

北軍의 倭艦이 水原32號의 韓軍을 擊沈한 뒤 3分에 침몰했다고 韓軍의 通信員 송씨가 20일 水原에서 本報에 말했다. 송씨는 "北軍의 倭艦이 水原32號의 韓軍을 擊沈한 뒤 3分에 침몰했다"고 말했다.

1974年2月20日 水原 北傀艦이 航路막고 北上강요

北傀艦이 航路막고 北上강요

水原號 無電중계한 모란號 귀항



모란호통신장 김수희씨

【仁川=朴正源·張虎根기자】
지난15일 西海 白翎島근해 공해상에서 飛化함계 용의 잠이하던 水原32호를 격침한 北傀함은 중무장한 제XX호X합이요 水原33호를 남치

사건당시 水原32, 33호와 仁川의 白翎島 서북방 18마일 「지정」에서 조업하던 모란호 31호통신장 김수희씨가 (32·仁川市 區 鎮洞13)가

한것은 北傀제XX호X합이요 용이·사건당시 水原32, 33호와 12「마일」밖 飛化함계 조업하던 仁川·南一수산소(모란31호) 84·선장 李若忠(37)와 32號(선장 李若忠)와 18일 하오 11시 仁川항에 귀항함으로써

남북어선 水原33호와 仁川어업부선국잔의 교섭상대가 나뉘어 중계교신했다. 김씨는 水原33호통신장 朴宗柱씨가 타전한것을 자신 30여차례 무선중계해주었는데 北傀XX호X합은 2

남북어선 水原33호와 仁川어업부선국잔의 교섭상대가 나뉘어 중계교신했다. 김씨는 水原33호통신장 朴宗柱씨가 타전한것을 자신 30여차례 무선중계해주었는데 北傀XX호X합은 2



水原市 북괴안영규탄대회에서 金日成화형식을 가졌다.

북傀XX호X합은 10여명의 北傀의 잠복에 나섰었다는 것도 통신으로 알았다. 김씨는 水原33호통신장 朴宗柱씨가 타전한것을 자신 30여차례 무선중계해주었는데 北傀XX호X합은 2

金日成 火刑式도

水原·開川 北傀蠻行 규탄대회

【開川=북괴의 비인도적인 만행은 규탄하는 水原·開川시민 규탄대회가 19일 오후 10시30분 水原市 中央洞 「로터리」에서 열렸다. 5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

반송형 水原33호가 시종 3시17분 開川항에서 北傀(제XX호X합)의 잠복에 나섰었다는 것도 통신으로 알았다. 김씨는 水原33호통신장 朴宗柱씨가 타전한것을 자신 30여차례 무선중계해주었는데 北傀XX호X합은 2

【開川】전주출판사(주)의 출판사 김수희씨가 타전한것을 자신 30여차례 무선중계해주었는데 北傀XX호X합은 2

“殘惡한 海賊행위” 오늘 東草서 斜彈大會

海警 836號艇 被侵사건

“계획적挑發”市民분노

【서울 28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74년 6월 28일 오후 10시 30분경 동해안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경 836호 경비정 납북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수감된 납북 경비정 승무원인 장영진(왼쪽) 부인 장영희(오른쪽)가 장영진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 장영진씨는 28일 오전 10시 30분경 동해안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경 836호 경비정 납북사건의 피해자이다.

해경 836호 경비정 납북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납북사건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경 836호 경비정은 28일 오후 10시 30분경 동해안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2척의 침입을 당했다. 북한 경비정들은 해경 836호 경비정을 납북시키려는 목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해경 836호 경비정 승무원 10명은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다.

“품적도 北傀와 싸우더니...”

【서울 28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해경 836호 경비정 납북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납북사건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경 836호 경비정은 28일 오후 10시 30분경 동해안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2척의 침입을 당했다. 북한 경비정들은 해경 836호 경비정을 납북시키려는 목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해경 836호 경비정 승무원 10명은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서 피랍된 승무원

【서울 28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해경 836호 경비정 납북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납북사건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경 836호 경비정은 28일 오후 10시 30분경 동해안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2척의 침입을 당했다. 북한 경비정들은 해경 836호 경비정을 납북시키려는 목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해경 836호 경비정 승무원 10명은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836호 납북

【서울 28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해경 836호 경비정 납북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납북사건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경 836호 경비정은 28일 오후 10시 30분경 동해안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2척의 침입을 당했다. 북한 경비정들은 해경 836호 경비정을 납북시키려는 목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해경 836호 경비정 승무원 10명은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836호 납북

【서울 28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해경 836호 경비정 납북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납북사건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경 836호 경비정은 28일 오후 10시 30분경 동해안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2척의 침입을 당했다. 북한 경비정들은 해경 836호 경비정을 납북시키려는 목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해경 836호 경비정 승무원 10명은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836호 납북

【서울 28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해경 836호 경비정 납북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납북사건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경 836호 경비정은 28일 오후 10시 30분경 동해안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2척의 침입을 당했다. 북한 경비정들은 해경 836호 경비정을 납북시키려는 목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해경 836호 경비정 승무원 10명은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836호 납북

【서울 28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해경 836호 경비정 납북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납북사건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경 836호 경비정은 28일 오후 10시 30분경 동해안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2척의 침입을 당했다. 북한 경비정들은 해경 836호 경비정을 납북시키려는 목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해경 836호 경비정 승무원 10명은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836호 납북

【서울 28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해경 836호 경비정 납북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납북사건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경 836호 경비정은 28일 오후 10시 30분경 동해안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2척의 침입을 당했다. 북한 경비정들은 해경 836호 경비정을 납북시키려는 목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해경 836호 경비정 승무원 10명은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다.

海警言警言備艇被沈 항의

유엔軍側 北傀선생떼... 생존자錄音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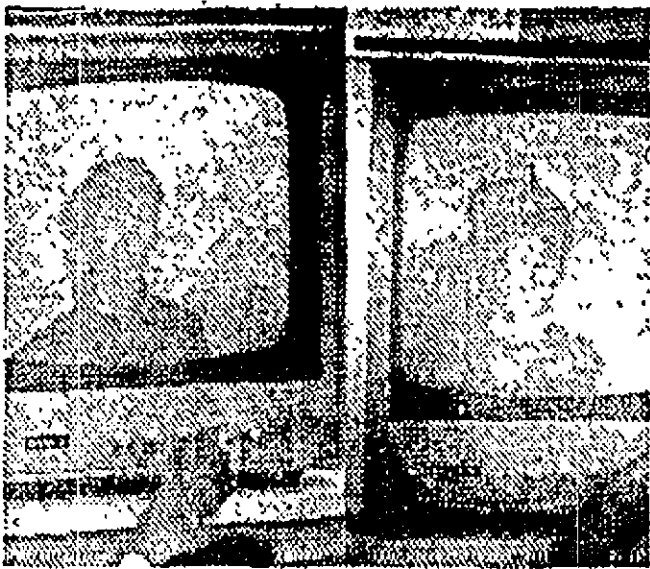
어제 停戰條約締結

【板門店=華盛頓기자】北傀停戰委員會는 28일 23차 회의를 열어 1일 共融條約의 締結을 환영하고,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한다.

북傀는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하고,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한다.

우린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하고,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한다.

이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하고,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한다.



◇ 1일 판문점 정전위에서 북괴는 이날 863점 통신장 陳濼承씨(右)와 김판원 申明贊씨(左)의 모습을 북한로 보냈다.

이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하고,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한다.

우린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하고,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한다.

이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하고,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한다.

우린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하고,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한다.

유엔軍側 北傀선생떼... 생존자錄音 공개

이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하고,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한다.

우린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하고,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한다.

이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하고,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한다.

우린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하고,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한다.

이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하고,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한다.

우린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하고,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한다.

이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하고,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한다.

우린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하고,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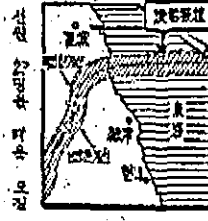
이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하고,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한다.

우린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하고, 停戰條約의 締結을 환영한다.

北傀、우리漁船銃擊拉致

어제아침東海에서 漁夫23명 탄채 경비비정에 끌려가

惡天候今故障... 표류하다 잘못越線 水産廳



이날 오후 10시 40분경 동해상에서 北傀 1척이 우리 漁船 23명 탄채를 발견하고 銃擊하였다. 北傀는 漁船을 銃擊한 후 漁船을 끌고 갔다. 北傀는 漁船을 끌고 가는 도중에 漁船의 漁夫 23명을 拘束하였다. 北傀는 漁船을 끌고 가는 도중에 漁船의 漁夫 23명을 拘束하였다.



〈선장 李重典氏〉

▲金明植(38) 서울 山陰區 江院2街63 ▲金吉熙(47) 서울 永登浦區 瑞源路3街98 ▲全在源(35) 高城郡 仁城區 瑞源路2街23號78 ▲林南植(31) 서울 瑞源路2街23號78 ▲安相浩(22) 廣州府 在文洞(22)

北傀 漁船 銃擊 拉致 漁夫 23명 탄채 경비비정에 끌려가

어제아침 東海에서 漁夫 23명 탄채 경비비정에 끌려가

“漂流船에 가지 北傀만행”

신길로 拉北 大津港 漁民들 분노

家族들 失神! 悲곡

【신길】 北의 官艦이 大津港에 停泊하면서 漁民들 對해 恣意적으로 擧行한 暴行에 對해 漁民들 對해 悲憤한 氣憤을 表출하고 있다. 漁民들은 北의 官艦이 大津港에 停泊하면서 漁民들 對해 恣意적으로 擧行한 暴行에 對해 悲憤한 氣憤을 表출하고 있다.

北의 官艦이 大津港에 停泊하면서 漁民들 對해 恣意적으로 擧行한 暴行에 對해 悲憤한 氣憤을 表출하고 있다. 漁民들은 北의 官艦이 大津港에 停泊하면서 漁民들 對해 恣意적으로 擧行한 暴行에 對해 悲憤한 氣憤을 表출하고 있다.



◆선장 朴某氏



◆기관장 盧柄在氏

납북사건 보도 자료집

80년대 (1980 ~ 1989)

- ▶ 해왕6호, 해왕7호 납북(80.1.26) 145
- ▶ 제2남진호 납북(80.9.8) 147
- ▶ 해왕6호, 해왕7호 귀환(80.11.12) 148
- ▶ 제2남진호 귀환(81.5.20) 151
- ▶ 제2태창호 귀환(81.8.4) 153
- ▶ 제1공영호 납북(81.6.11) 154
- ▶ 제1공영호 귀환(81.12.18) 156
- ▶ 제5마산호 납북(82.7.13) 157
- ▶ 제5마산호 귀환(82.9.29) 160
- ▶ 제12광남호, 제2동주호 납북(85.2.5) 164
- ▶ 제12광남호, 제2동주호 귀환(85.3.2) 165
- ▶ 제2계영호 납북(85.10.6) 167
- ▶ 제2계영호 귀환(85.10.19) 169
- ▶ 제27동진호 납북(87.1.15) 171

▶ 제37태양호, 제38태양호 납북(89.1.28)	178
▶ 제37태양호, 제38태양호 귀환(89.2.12)	179
▶ 명성2호 납북(89.5.7)	183
▶ 명성2호 귀환(89.5.24)	184

拉北어부·漁船 조속送還 촉구

【板門店—金元泰기자】南北
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南北
실무대표 3차접촉에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李東根
남북회담 사무국장은 4일
상오 西海上에서 납북된 것
으로 알려진 제6, 제7海
旺號어선 및 어부의 송환문
제에 대해 北韓측이 인도
적견지에서 조속한 시일안
내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
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北韓측 林春吉
은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조사가 끝나
면 적절한 대책이 있을 것」
이라고 답변했다.

被拉漁夫 22명 送還 추구

李韓赤총재 板門店 통해 北赤에 서한 전달

대륙적십자사 李韓赤총재는 지난 1월 26일 西海上에 서 20명 남짓의 해왕6호, 해왕7호 납북, 연류된 것으로 믿어지는 21인 수산승제 6, 7海旺號의 타고 있던 이 부 22명을 하루하루의 수색해줄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北韓적십자회의중앙위원회의 李韓赤위원장을 제 전달하기위해 17일 낮 12시 30명의 연락관을 板門店 韓朝접안처 위원회의의뢰에 파견했다. 이의파해 北韓적십자회의수령관 2명도 12시의 板門店상영관접안처의회의실로 보내 서한을 받아왔다. 李韓赤총재가 이 서한에서 「원인은 지난 1월 26일 西海上에 서 평화스럽게 어로하던 중 北韓측의 해방기관에의해 단속을 받고 포획되었던 것으로 믿어지는 21인 수산승제 6, 7海旺號의 타고 있던 이 부 22명에게 하루하루의 수색해줄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北韓적십자회의중앙위원회의 李韓赤위원장을 제 전달하기위해 17일 낮 12시 30명의 연락관을 板門店 韓朝접안처 위원회의의뢰에 파견했다. 이의파해 北韓적십자회의수령관 2명도 12시의 板門店상영관접안처의회의실로 보내 서한을 받아왔다. 李韓赤총재가 이 서한에서 「원인은 지난 1월 26일 西海上에 서 평화스럽게 어로하던 중 北韓측의 해방기관에의해 단속을 받고 포획되었던 것으로 믿어지는 21인 수산승제 6, 7海旺號의 타고 있던 이 부 22명에게 하루하루의 수색해줄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北韓적십자회의중앙위원회의 李韓赤위원장을 제 전달하기위해 17일 낮 12시 30명의 연락관을 板門店 韓朝접안처 위원회의의뢰에 파견했다. 이의파해 北韓적십자회의수령관 2명도 12시의 板門店상영관접안처의회의실로 보내 서한을 받아왔다. 李韓赤총재가 이 서한에서 「원인은...

北傀、漁夫18명 납치

水産廳 발표

제2남진호 巨津앞바다 公海서 歸港중 끌려가

수출연호 남진호 제2남진호는 9월 8일 오후 5시 30분경 남해안 남해군 남면 앞바다에서 북한 경비정 1척과 충돌했다. 충돌 당시 남진호는 북한 경비정 1척과 충돌하여 18명(남자 15명, 여자 3명)이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진호는 충돌 후 남해항으로 귀항 중이던 중 끌려갔다고 밝혔다.

수출연호 측은 "북한 경비정 1척이 남진호를 추격하던 중 남해안 남면 앞바다에서 충돌했다"고 말했다. 남진호는 충돌 후 남해항으로 귀항 중이던 중 끌려갔다고 밝혔다.

수출연호 측은 "북한 경비정 1척이 남진호를 추격하던 중 남해안 남면 앞바다에서 충돌했다"고 말했다. 남진호는 충돌 후 남해항으로 귀항 중이던 중 끌려갔다고 밝혔다.

"북괴도발 책임져야"

국방부 대변인 "북한 경비정 1척이 남진호를 추격하던 중 남해안 남면 앞바다에서 충돌했다"고 말했다. 남진호는 충돌 후 남해항으로 귀항 중이던 중 끌려갔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경비정 1척이 남진호를 추격하던 중 남해안 남면 앞바다에서 충돌했다"고 말했다. 남진호는 충돌 후 남해항으로 귀항 중이던 중 끌려갔다고 밝혔다.

수출연호 측은 "북한 경비정 1척이 남진호를 추격하던 중 남해안 남면 앞바다에서 충돌했다"고 말했다. 남진호는 충돌 후 남해항으로 귀항 중이던 중 끌려갔다고 밝혔다.

수출연호 측은 "북한 경비정 1척이 남진호를 추격하던 중 남해안 남면 앞바다에서 충돌했다"고 말했다. 남진호는 충돌 후 남해항으로 귀항 중이던 중 끌려갔다고 밝혔다.

海王號선원들 家族 재회

死亡者은 7명 선장 10개월 업무생활로 23명 초회한 모습

喜悲가 엇갈린 船員 가족

海王6호, 7호가 11월 11일 12월 12일 귀환했다. 선원 가족들은 10개월의 긴 기다림 끝에 가족 재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선장 7명은 사망했고, 선원 23명은 10개월의 업무생활로 초회한 모습으로 귀환했다.

집마련하면 안전한 직업 태어났다고... 기다림이 끝났으니 7號船長가 울었다

선장 7명은 사망했고, 선원 23명은 10개월의 업무생활로 초회한 모습으로 귀환했다. 선원 가족들은 10개월의 긴 기다림 끝에 가족 재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선장 7명은 사망했고, 선원 23명은 10개월의 업무생활로 초회한 모습으로 귀환했다.



선장 7명은 사망했고, 선원 23명은 10개월의 업무생활로 초회한 모습으로 귀환했다. 선원 가족들은 10개월의 긴 기다림 끝에 가족 재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선장 7명은 사망했고, 선원 23명은 10개월의 업무생활로 초회한 모습으로 귀환했다.

해왕6호, 해왕7호 귀환(80.11.12)

1980年11月12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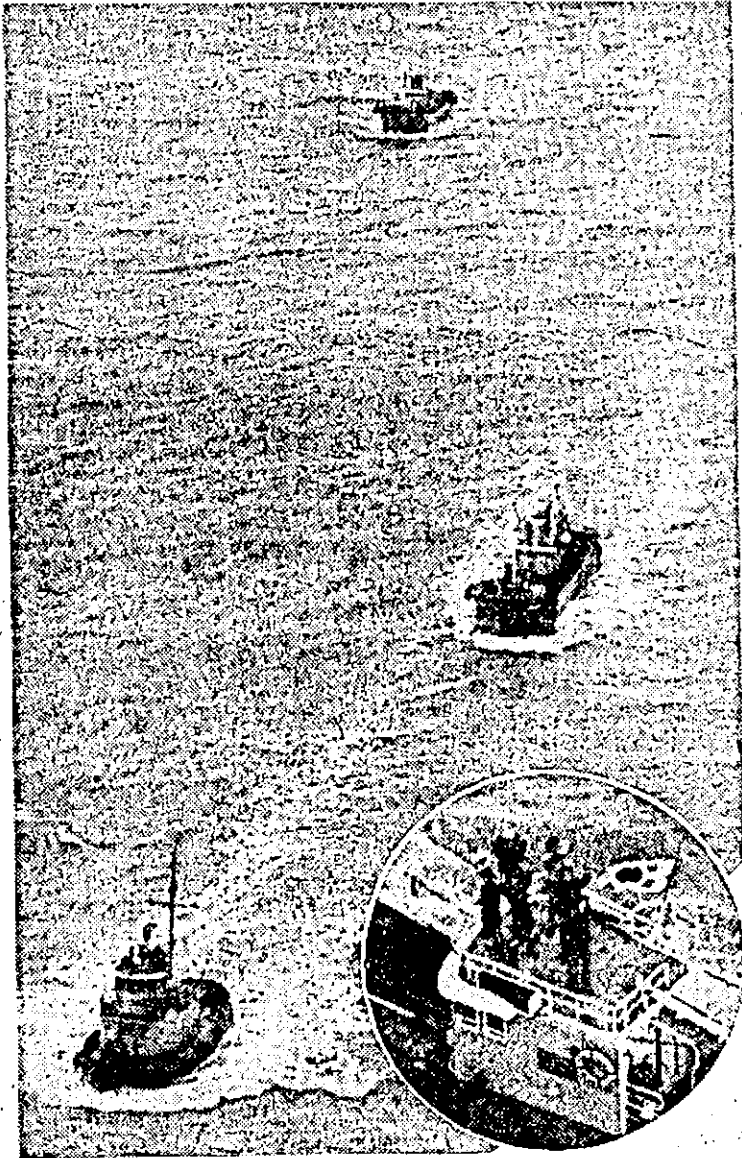
水曜日

中

央

日

報



拉北 292日만의 歸還

仁川港으로 入港하고있는 海旺 6,7號

2백92일 만의 歸還, 북극의 역사에
서 輝어난 海旺 6,7호가 12일날 12
시 8분경에 仁川 仁川에 入
항하고 있다. 기원고작을 일으킨 海旺
6호(가운데)는 수리해양경관대 경비장
에 의해 檢査되고있다.

귀환선원들은 本誌 비평기가 쿠사귀
환을 축하하자 歡聲을 聞히며 떠는
것 見聞되도 韓의나와 手을 握이
켜고 韓의 韓의 韓의 韓의 韓의
사 H.L.1027號上 韓의 韓의 韓의 韓의 韓의



○부수원들의 대기하고 있던 해왕 6호의 귀환 어부들. (21일 부수원기자)

【부산 12일 특파원 송기환 기자】 해왕 6호, 7호 부수원들이 귀환한 부산항에 귀환 어부들이 기다리고 있다. 해왕 6호는 11월 12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왕 7호는 11월 13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왕 6호는 11월 12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왕 7호는 11월 13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선원들의 귀환... 해왕 6호, 7호의 귀환

해왕 6호, 7호 부수원들이 귀환한 부산항에 귀환 어부들이 기다리고 있다. 해왕 6호는 11월 12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왕 7호는 11월 13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왕 6호는 11월 12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왕 7호는 11월 13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왕 6호는 11월 12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왕 7호는 11월 13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왕 6호는 11월 12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왕 7호는 11월 13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왕 6호는 11월 12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왕 7호는 11월 13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왕 6호는 11월 12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왕 7호는 11월 13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왕 6호는 11월 12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왕 7호는 11월 13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海軍 경비정 호송... 仁川港에

Advertisement for 'Haewang 6 & 7' (해왕 6호, 7호) featuring a large graphic of the ship's name and the text 'Ship Crew Family Product' (선원들 가족품에).

北北어부 19명 送還

北德중앙공신報道 제2南進號 8개월만에

【서울 14일】北德중앙공신(北德中央公信)이 14일 19명의 어부(어부 19명)를 8개월만에 南進號(南進號)에서 南進號(南進號)로 送還(送還)했다고 報載(報載)했다. 北德中央公信(北德中央公信)은 14일 19명의 어부(어부 19명)를 南進號(南進號)에서 南進號(南進號)로 送還(送還)했다고 報載(報載)했다.

北德中央公信(北德中央公信)은 14일 19명의 어부(어부 19명)를 南進號(南進號)에서 南進號(南進號)로 送還(送還)했다고 報載(報載)했다. 北德中央公信(北德中央公信)은 14일 19명의 어부(어부 19명)를 南進號(南進號)에서 南進號(南進號)로 送還(送還)했다고 報載(報載)했다.

신 일 보

拉北 태창호가 돌아왔다

어제 오후 5시 5분 일할 선원 17명 2백 45일만에

3일전부터 家族들대기... "꿈만같다"
 "同族이 蘇보다 늦게 돌려보내다니"

【근북=평양(北)】항일정권 수립 3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열린 태창호 귀환 환영회에서 태창호 선원 17명 2백 45일만에 돌아왔다. 태창호는 1950년 8월 15일 북한으로 넘어가 3년 11개월 동안 30여 차례의 해상 순찰을 수행하며, 1954년 11월 15일 평양에서 귀환했다. 태창호 선원들은 귀환 후 3일전부터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태창호 선원들은 귀환 후 3일전부터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태창호 선원들은 귀환 후 3일전부터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태창호 선원들은 귀환 후 3일전부터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태창호 선원들은 귀환 후 3일전부터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태창호 선원들은 귀환 후 3일전부터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태창호 선원들은 귀환 후 3일전부터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태창호 선원들은 귀환 후 3일전부터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태창호 선원들은 귀환 후 3일전부터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태창호 선원들은 귀환 후 3일전부터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태창호 선원들은 귀환 후 3일전부터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태창호 선원들은 귀환 후 3일전부터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태창호 선원들은 귀환 후 3일전부터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태창호 선원들은 귀환 후 3일전부터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태창호 선원들은 귀환 후 3일전부터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태창호 선원들은 귀환 후 3일전부터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태창호 선원들은 귀환 후 3일전부터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태창호 선원들은 귀환 후 3일전부터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北傀漁船 또 남치

제1공영호 21명...西海 한계선서

11일 오후 1시경 연천현 연천읍 남치리 인근 수면에서

북괴 어선 제1공영호(총장 김철호)가 서해안연안어업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하여 남치리 인근 수면에서 어획물을 채취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남치리 인근 수면에서 어획물을 채취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철호(총장) (49)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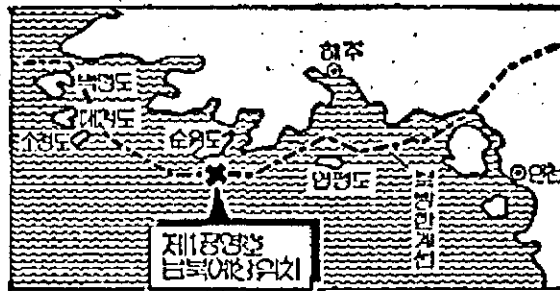
수면에서 어획물을 채취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남치리 인근 수면에서 어획물을 채취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남치리 인근 수면에서 어획물을 채취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김철호(부총장) (57)

21명 탄 漁船 拉北

제1공영호 西海 北方한계선 남쪽서



水産廳 발표
 11일 하오 1시쯤 선원 21명을 태운 어선 제1공영호(471·선장 孫舜熙·49·仁川水協소속)가 境界를 탐

으로 함포 착륙한 일으려 함해도중 西海의 北方한계선부근 해상에서 북의정비정에 의해 남획되었다고 수산청이 12일 하오 발표했다. 수산청은 제1공영호가 조업을 마치고 이날 仁川항으로 일시 귀항할 예정이었는데 시계불합과 해류때문에 함포를 잃고 北方한계선으로 접근하였으나 일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제1공영호선원명단 ▲선장 孫舜熙(49) ▲기판장 李煥(27) ▲선원 변영복(27) ▲李현식(24) ▲尹철호(20) ▲南국태(20) ▲李은주(22) ▲金종천(20) ▲金용선(22) ▲李상국(20) ▲金영철(33) ▲金창근(23) ▲李장규(21) ▲李무빈(28) ▲朴현중(24) ▲朴석천(32) ▲崔석균(42) ▲崔양현(22) ▲李남석(42) ▲都행봉(43) ▲朴중우(27)

35명 탄 漁船 拉北

제5馬山號 東海公海上서 조업중 北傀기습받아

수상선박 13인 탄 12사 5년
 제5馬山號는 1월 70
 만 원에 해상에서 조업중이
 던 중 8월 13일 제5馬山
 호(14.4톤) 선상 35명
 (현)가 북傀 공격을 받
 해 납북되었다고 발표했

수상선박 13인 탄 12사 5년
 제5馬山號는 1월 70
 만 원에 해상에서 조업중이
 던 중 8월 13일 제5馬山
 호(14.4톤) 선상 35명
 (현)가 북傀 공격을 받
 해 납북되었다고 발표했

총계정인 100여 명을 탄 북
 괴 4척이 제5馬山號에
 승선, 추기포 위협하며 선
 수를 납북하려 시도하려 했
 고 있다.
 이날 제5馬山號가 납북된
 지점은 지난 5월 하순 5시 30
 분쯤 북傀가 접근하였던 수
 역이던 것으로 보인다. 북傀
 가 화염포를 쏘아 공격한
 뒤 수역 근처에서 인양을 하
 고 납북했다.
 수상선박 13인 탄 12사 5년
 제5馬山號는 1월 70
 만 원에 해상에서 조업중이
 던 중 8월 13일 제5馬山
 호(14.4톤) 선상 35명
 (현)가 북傀 공격을 받
 해 납북되었다고 발표했

제5마산호 남북(82.7.13)

공해서 漁船 또 拉北

충북도 東北方 제5마산호...어부 35명 모두 끌려가

충북도에 따르면 제5마산호에서 13일 밤에 발생한 공해로 인해 어부 35명 모두 끌려가 버렸다. 이 공해는 제5마산호에서 발생한 것으로, 어부들은 공해로 인해 어선을 잃고 버렸다. 충북도에서는 이 공해로 인해 어부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충북도에서는 이 공해로 인해 어부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제5마산호에서 13일 밤에 발생한 공해로 인해 어부 35명 모두 끌려가 버렸다. 이 공해는 제5마산호에서 발생한 것으로, 어부들은 공해로 인해 어선을 잃고 버렸다. 충북도에서는 이 공해로 인해 어부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충북도에서는 이 공해로 인해 어부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제5마산호에서 13일 밤에 발생한 공해로 인해 어부 35명 모두 끌려가 버렸다. 이 공해는 제5마산호에서 발생한 것으로, 어부들은 공해로 인해 어선을 잃고 버렸다. 충북도에서는 이 공해로 인해 어부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충북도에서는 이 공해로 인해 어부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제5마산호에서 13일 밤에 발생한 공해로 인해 어부 35명 모두 끌려가 버렸다. 이 공해는 제5마산호에서 발생한 것으로, 어부들은 공해로 인해 어선을 잃고 버렸다. 충북도에서는 이 공해로 인해 어부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충북도에서는 이 공해로 인해 어부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馬山號 등 拉北선원 國赤통해 送還교섭

경남 창원시 마산포구 소재의 마산호 선원 5명(남자 3명, 여자 2명)을 국赤통해 북으로 송환할 수 있는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산호 선원 5명은 지난 7월 13일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바 있다. 마산호 선원 5명은 현재 북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호 선원 5명은 현재 북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호 선원 5명은 현재 북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拉北 제5馬山號 곧석방 北傀

날자·送還방법은 안밝혀

【서울 11 內外】北傀는 지난 7월 13일 날 12시 5분쯤

陵島동북방 1백70마일 공해상에서 이로작업중 北傀 정비정에 의해 납북된 東華어업협동조합 소속 제5馬山號(1백14t·선장 洪준원)와 선원 35명중 곧 석

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北傀는 판영 中央통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으나 구체적인 송환일자 및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拉北 제5馬山號 곤송환”

北傀통신 보도

【서울】북괴는 지난 7월 13일 울릉도·독도·북방 1면 70마일 공해상에서 납치한 송초어협 소속 제5마산호(1백14·48t, 선장 홍준열)와 선원 35명을 곧 석방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内外通衢에 따르면 북괴는 이날 밤 8시경 울릉도를 통해 이같이 납치했다. 구체적인 석방일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韓】

拉北 마산號 東草 歸港

78일만에... 北傀방송 28일 석방 보도

북괴가 78일만에 인양호에 귀환한 마산호는 28일 석방 보도를 통해 귀환했다. 북괴는 마산호를 인양호로 옮겼으며, 인양호는 마산호의 남쪽 100여 km 떨어진 곳에 있다. 마산호는 1978년 11월 15일 북괴에 인양호로 귀환했다. 마산호는 인양호로 귀환한 후, 인양호에서 28일 석방 보도를 통해 귀환했다. 마산호는 인양호로 귀환한 후, 인양호에서 28일 석방 보도를 통해 귀환했다. 마산호는 인양호로 귀환한 후, 인양호에서 28일 석방 보도를 통해 귀환했다.

西紀 1982年 9月 30日

기 신 일 보

拉北馬山號

束草港 귀환

【馬山】마산, 동해안 1번 국도 동
해안고속도로 1번 국도 동
해안고속도로 1번 국도 동
1번 국도 동해안고속도로 1번
1번 국도 동해안고속도로 1번
1번 국도 동해안고속도로 1번
1번 국도 동해안고속도로 1번
1번 국도 동해안고속도로 1번
1번 국도 동해안고속도로 1번
1번 국도 동해안고속도로 1번
1번 국도 동해안고속도로 1번

漁船 2척 拉北

自領島근해 公海上서 21명 탄 채 北傀경비정에

북傀경비정 2척이 12일 오후 6시경 남해상에서 21명 탄 채 北傀경비정에 2척의 漁船을 拉北한 사실이 北傀경비정에서 확인됐다. 北傀경비정 12일 오후 6시경 남해상에서 21명 탄 채 北傀경비정에 2척의 漁船을 拉北한 사실이 北傀경비정에서 확인됐다.

北傀경비정 12일 오후 6시경 남해상에서 21명 탄 채 北傀경비정에 2척의 漁船을 拉北한 사실이 北傀경비정에서 확인됐다. 北傀경비정 12일 오후 6시경 남해상에서 21명 탄 채 北傀경비정에 2척의 漁船을 拉北한 사실이 北傀경비정에서 확인됐다.

拉北어선 歸還중

【丙外】北傀는 지난달 28일 하오 7시 이른바 중앙동해선사 보도를 통해 지난달 5일 西海上에서 남괴해간 제12광남호와 제2동주호의 선체 및 선원 2명을 이날 송환했다고 밝혔다.

北傀는 이 기간에 북해제 12광남호와 제2동주호가 이 두 선박을 통해 북傀는 13일이 뒤 송환된다. 북傀는 2명 선원 송환중 중해 동괴동적 인원이 2명이다. 전지정리 1명도 있다.

拉北船 仁川입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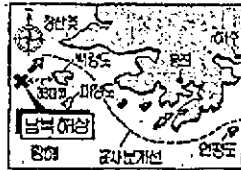
〔仁川=具滋虎기자〕지난달 5

일 신항을 방문하여 북부근해 어항의
 사정조사와 어민들의 생활실태를
 직접 조사한 김현수(88)·477·신창 玉光錫(43)
 와 제2동주호(99)·977·선
 장 박相龍(32)가 선원 21명
 과 함께 포박 25일만에 인천
 어진 인천항에 이르러 배를 하강

北傀, 漁船 2척 拉致

어제 백령도 근해서... 20명 乘船

북傀(北傀)가 2척의 어선을 포박한 후, 20명의 선원을 인질로 삼고 백령도 근해에 있는 한 섬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傀는 지난 1월 21일 인천항에서 포박된 후, 25일 만에 인천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傀는 지난 1월 21일 인천항에서 포박된 후, 25일 만에 인천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傀가 포박한 2척의 어선은 각각 10명씩의 선원을 인질로 삼고 백령도 근해에 있는 한 섬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傀는 지난 1월 21일 인천항에서 포박된 후, 25일 만에 인천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계영호 남북(85.10.6)

1985年10月7日 星期三 中央日報

어선 1隻 강제라北

12명 乘船 白翎島부근 公海에서 北傀경비정에

挑發행위 중지... 즉각 送還 촉구

수산청의 어선인 새해의 새어선이 남쪽을 향해 출항하고 있는데, 12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어선은 지난 6일 오후 4시경 남해안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선의 선장은 김대중(85·50)으로, 부산에서 출항한 것으로 보인다.

수산청은 새해의 새어선이 남쪽으로 출항하고 있는데, 12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어선은 지난 6일 오후 4시경 남해안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선의 선장은 김대중(85·50)으로, 부산에서 출항한 것으로 보인다.

수산청은 새해의 새어선이 남쪽으로 출항하고 있는데, 12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어선은 지난 6일 오후 4시경 남해안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선의 선장은 김대중(85·50)으로, 부산에서 출항한 것으로 보인다.

수산청은 새해의 새어선이 남쪽으로 출항하고 있는데, 12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어선은 지난 6일 오후 4시경 남해안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선의 선장은 김대중(85·50)으로, 부산에서 출항한 것으로 보인다.

수산청은 새해의 새어선이 남쪽으로 출항하고 있는데, 12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어선은 지난 6일 오후 4시경 남해안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선의 선장은 김대중(85·50)으로, 부산에서 출항한 것으로 보인다.

北傀 우리漁船 1척 납치

12명 乘船

北傀 무장 重武裝 警戒이 發砲하며 위협

북괴는 2척의 어선과 함께 우리 어선 1척을 납치하고, 12명의 어민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북괴는 우리 어선과 함께 1척의 어선을 인질로 삼았다.

제2계영호 귀환(85.10.19)

조선 일보 西紀 1985年 10月 20日

북극 제2계영호 귀환
 【두영=영】 북극 제2계영호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제2계영호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제2계영호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제2계영호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제2계영호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제2계영호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제2계영호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제2계영호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제2계영호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제2계영호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The Chosun Ilbo 西紀 1985年(檀紀 4318年) 10月 19日

북극 오션 귀환
 【오=영】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북극 오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귀환

“拉北어선 送還”

北傀匪班 제 2 계영호 13일 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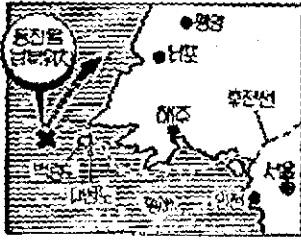
【北傀=중문】북傀匪班 2계영호 어선 13일 만에 귀환했다. 북傀匪班은 1985년 10월 13일 13시에 귀환했다. (중문=중문) 13일

남편 영계 항해한 뒤 13일 만에 귀환했다. 북傀匪班은 1985년 10월 13일 13시에 귀환했다. (중문=중문) 13일

北傀公海서 우리漁船남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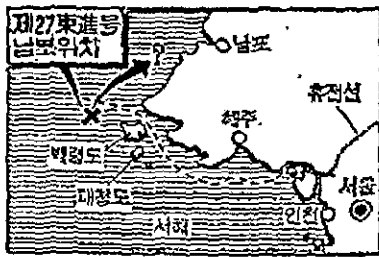
麗水선적 27東進號 경비정이銃쏘며 끌고가

15일 삼천포에서 출발한 우리 수협 어선 27동진호는 남해상에서 경비정 2척에 의해 남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27동진호는 15일 삼천포에서 출발하여 남해상에서 경비정 2척에 의해 남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경비정들은 우리 어선을 추격하며 남해상에서 우리 어선을 남치했다. 우리 어선들은 경비정들의 남치에 대해 항의하며 남해상에서 경비정들을 추격했다. 경비정들은 우리 어선들을 남해상에서 남치했다. 우리 어선들은 경비정들의 남치에 대해 항의하며 남해상에서 경비정들을 추격했다.

경비정들은 우리 어선들을 남해상에서 남치했다. 우리 어선들은 경비정들의 남치에 대해 항의하며 남해상에서 경비정들을 추격했다. 경비정들은 우리 어선들을 남해상에서 남치했다. 우리 어선들은 경비정들의 남치에 대해 항의하며 남해상에서 경비정들을 추격했다.



麗水선적 93t 급 제27東進호

25일 오전 11시 45분경 서해 북위선과 제27동진호의 충돌사고 현장. 충돌 당시 북위선은 93t 급 제27동진호와 충돌했다. 충돌 당시 북위선은 93t 급 제27동진호와 충돌했다.

북위선과 제27동진호의 충돌 사고는 25일 오전 11시 45분경 서해에서 발생했다. 충돌 당시 북위선은 93t 급 제27동진호와 충돌했다. 충돌 당시 북위선은 93t 급 제27동진호와 충돌했다.

北傀、우리漁船남치

어제 白翎島 서북公海

銃擊 가하며 끌고가

북위선과 제27동진호의 충돌 사고는 25일 오전 11시 45분경 서해에서 발생했다. 충돌 당시 북위선은 93t 급 제27동진호와 충돌했다. 충돌 당시 북위선은 93t 급 제27동진호와 충돌했다.

拉北어선 送還 北赤서 협조를

金韓赤총재 通知文

金相浹 대한적십자사총재는
 20일삼오 北赤 孫成弼위원장
 앞으로 전화 통지문을 보내
 지난 15일 白翎島근해 공해상
 에서 어로작업중 北韓경비정
 에 의해 강제남북된 제 27東進
 號와 어부 12명의 즉각 송환
 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拉北 동진호 송환을”

韓赤, 추석 앞두고 北赤에 촉구

추석앞이며 정중 명우하 가
 韓赤 동 안선입된 양자간 양행
 제로 1월 30일 12월 1일
 신항과 1월 30일 12월 1일
 동 안선입된 양행 제로 1월 30일
 동 안선입된 양행 제로 1월 30일

金相浹 대한
 적십자사 총재
 는 30일 지난
 1월 서해상
 에서 남북된
 동진호 어부 12
 명이 빠진 시
 일약에 송환
 될 수 있도록
 인도적 노력
 을 기울여 줄
 것을 북측에 촉
 구했다.

“拉北 어부와 어선 즉각 送還을”

韓赤 총재, 北赤에 電話 통지문

북측을 촉구했다.

金相浹 대한 적십자사 총재는 20
 일 오전 11시 30분 北赤에 電話 통지문
 을 보내 북측에 1월 30일 12월 1일
 동진호 어부 12명 및 어선 1척을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북측은 1월 30일 12월 1일
 동진호 어부 12명 및 어선 1척을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북측은 1월 30일
 12월 1일 동진호 어부 12명 및 어선
 1척을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라고 말했다.

동진호선원석방仲裁요청

정부 訪韓 국제적십자社를마루가 총재에

국제적십자社(ICRC)가 동진호선원석방을 요청하는 한편, 동진호선원석방을 위한 국제적십자社를마루가 총재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동진호선원석방을 위한 국제적십자社를마루가 총재에 대한 압력은 동진호선원석방을 위한 국제적십자社를마루가 총재에 대한 압력이다. 동진호선원석방을 위한 국제적십자社를마루가 총재에 대한 압력은 동진호선원석방을 위한 국제적십자社를마루가 총재에 대한 압력이다.

동진호선원석방을 위한 국제적십자社를마루가 총재에 대한 압력은 동진호선원석방을 위한 국제적십자社를마루가 총재에 대한 압력이다. 동진호선원석방을 위한 국제적십자社를마루가 총재에 대한 압력은 동진호선원석방을 위한 국제적십자社를마루가 총재에 대한 압력이다. 동진호선원석방을 위한 국제적십자社를마루가 총재에 대한 압력은 동진호선원석방을 위한 국제적십자社를마루가 총재에 대한 압력이다.

동진호선원석방을 위한 국제적십자社를마루가 총재에 대한 압력은 동진호선원석방을 위한 국제적십자社를마루가 총재에 대한 압력이다. 동진호선원석방을 위한 국제적십자社를마루가 총재에 대한 압력은 동진호선원석방을 위한 국제적십자社를마루가 총재에 대한 압력이다. 동진호선원석방을 위한 국제적십자社를마루가 총재에 대한 압력은 동진호선원석방을 위한 국제적십자社를마루가 총재에 대한 압력이다.

「李仁模씨 문제」 합의 실패

南北대표 5일 재접촉

북한측은 1일 판문점에 서고의남연락 대표전화를 찾노부들이 송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李仁模씨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할 법없다. 합의할 보지못해 오는 5일 재접촉하기로 했다. 북측은 이날 ▲판문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이산가족 고향방문 정례화 ▲87년 남북관 동전호선원 12명 송환 등 3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후씨를 돌려보낼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과 관련, 판문점을 중립적 장소에서 중립적 방법을으로 대상자들의 귀환의사를 확인, 원하는 사람만 송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으나 남북선원 송환은 강력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東敏대표대변인은 접촉이 끝나 뒤 「북측이 우리의 3가지 조건 제시 사실은 협의진행사항이 외부에 알려진데 대해 불만을 표시해 이번 접촉 결과는 공개치 않기로 했다」며 오는 5일 접촉에서 후씨

문제를 가부간 매듭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生死라도 알았으면...”

『너무 가슴이 찢려 혼났습니다.』 李守葉씨 (48·전남 여주시 고소동675)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고 했다.



◇제27동진호 金順植선장의 부인 李守葉씨가 남편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을 보며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소식을 가져다주길 믿고 있다.

동진號 피랍 7년째 이번엔 소식 오려나

선장부인 李守葉씨 소망

『저는 참사단인민군에게 납북당한 남편의 소식을 알고 싶습니다.』 동진호 선장 부인 李守葉씨는 남편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1987년 동진호 선장으로 북한에 납북된 후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동진호 선장은 북한에서 7년째 납북된 채 있습니다. 동진호 선장은 북한에서 7년째 납북된 채 있습니다. 동진호 선장은 북한에서 7년째 납북된 채 있습니다.

울며 지낸 날들... 가슴엔 病까지

『남편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합니다.』 동진호 선장 부인 李守葉씨는 남편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1987년 동진호 선장으로 북한에 납북된 후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동진호 선장은 북한에서 7년째 납북된 채 있습니다. 동진호 선장은 북한에서 7년째 납북된 채 있습니다. 동진호 선장은 북한에서 7년째 납북된 채 있습니다.

코흘리개 4형제 벌써 청년으로 생활고 선원가족들 연락 끊겨

『남편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합니다.』 동진호 선장 부인 李守葉씨는 남편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1987년 동진호 선장으로 북한에 납북된 후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동진호 선장은 북한에서 7년째 납북된 채 있습니다. 동진호 선장은 북한에서 7년째 납북된 채 있습니다. 동진호 선장은 북한에서 7년째 납북된 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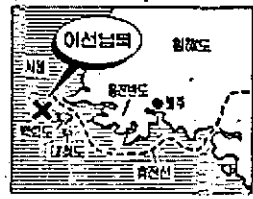
北韓 우리漁船 2척 拉北

水産庁発表

오세백령도近海서 21명 탄저인망선 태양호 37·38호

북한이 우리 연안에서 불법적으로 어획한 2척의 북한 어선인 태양호 37호와 38호를 21명의 탄저인망선 어부들과 함께 북쪽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우리 수산청은 28일 오전 11시경 남해상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2시간 동안 추적한 끝에 이들을 포획했다. 이 어선들은 1월 28일 오후 10시경 남해상에서 우리 경비정대에 의해 포획되었다. 이 어선들은 21명의 탄저인망선 어부들과 함께 북쪽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우리 수산청은 28일 오전 11시경 남해상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2시간 동안 추적한 끝에 이들을 포획했다. 이 어선들은 1월 28일 오후 10시경 남해상에서 우리 경비정대에 의해 포획되었다. 이 어선들은 21명의 탄저인망선 어부들과 함께 북쪽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북한이 우리 연안에서 불법적으로 어획한 2척의 북한 어선인 태양호 37호와 38호를 21명의 탄저인망선 어부들과 함께 북쪽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우리 수산청은 28일 오전 11시경 남해상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2시간 동안 추적한 끝에 이들을 포획했다. 이 어선들은 1월 28일 오후 10시경 남해상에서 우리 경비정대에 의해 포획되었다. 이 어선들은 21명의 탄저인망선 어부들과 함께 북쪽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韓漁아크 탄저인망선 각량정 조사

【서울 28일 특파원 특보】 한국 수산청이 북한이 우리 연안에서 불법적으로 어획한 2척의 북한 어선인 태양호 37호와 38호를 21명의 탄저인망선 어부들과 함께 북쪽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우리 수산청은 28일 오전 11시경 남해상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2시간 동안 추적한 끝에 이들을 포획했다. 이 어선들은 1월 28일 오후 10시경 남해상에서 우리 경비정대에 의해 포획되었다. 이 어선들은 21명의 탄저인망선 어부들과 함께 북쪽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拉北어부 22명 내일 귀환

【서울 11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북조선에서 22명 남한으로 귀환한 북한어부들이 11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에 도착했다. 이들은 평壤에서 10년간 고된 노동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귀환 후 1주일간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귀환자들은 평壤에서 10년간 고된 노동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귀환 후 1주일간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북조선에서 22명 남한으로 귀환한 북한어부들이 11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에 도착했다. 이들은 평壤에서 10년간 고된 노동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귀환 후 1주일간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가장 빠르게 귀환한 어부들

【서울 11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북조선에서 22명 남한으로 귀환한 북한어부들이 11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에 도착했다. 이들은 평壤에서 10년간 고된 노동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귀환 후 1주일간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北赤선 오늘 송환

北赤통지...선원 22명 함께

북한에서 온 선원 22명,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
성원이 金相濟(김상제) 씨와
함께 오고 있다. 선원 22명 등

해군 1함 28인, 서해상의
서 5함 28인 등 56인 등 북한
의 해군 56명, 제37 및 제
38태양호의 선원 22명 등 78
명 등 11명 등 송환되었
다. 북미회담이다.

이날의 송환 시간과 그
지점의 정황은 남과 북
측에서 보도된 바와 같
은 것이며, 평안남도
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측은 이 선원 22명 중
제37태양호의 선원 12명, 제
38태양호의 선원 10명 등
12명 등 22명이라고
전하고 있다. 남측은
이와 같은 선원 22명
중 4명 등 18명이라고
전하고 있다. 남측은
이와 같은 선원 22명
중 4명 등 18명이라고
전하고 있다.

북한측은 이 선원 22명
중 4명 등 18명이라고
전하고 있다. 남측은
이와 같은 선원 22명
중 4명 등 18명이라고
전하고 있다.

북한측은 이 선원 22명
중 4명 등 18명이라고
전하고 있다. 남측은
이와 같은 선원 22명
중 4명 등 18명이라고
전하고 있다.

海警과 교신 "모두 건강"

15일만의 南海海警과 나남하여

北어선 오늘오후 仁川도착

【서울 12일 특파원 김민준 기자】 남해상에서 15일 만에 교신한 북한 어선 2척이 오늘 오후 1시 30분경 인천항에 도착했다. 남해상에서 15일 만에 교신한 북한 어선 2척이 오늘 오후 1시 30분경 인천항에 도착했다. 남해상에서 15일 만에 교신한 북한 어선 2척이 오늘 오후 1시 30분경 인천항에 도착했다.

남해상에서 15일 만에 교신한 북한 어선 2척이 오늘 오후 1시 30분경 인천항에 도착했다. 남해상에서 15일 만에 교신한 북한 어선 2척이 오늘 오후 1시 30분경 인천항에 도착했다. 남해상에서 15일 만에 교신한 북한 어선 2척이 오늘 오후 1시 30분경 인천항에 도착했다.

北韓의 對南 新 政策에 80년 이후 9천만 人

김민준 특파원

【서울 12일 특파원 김민준 기자】 북한은 오늘 오후 1시 30분경 인천항에 도착했다. 남해상에서 15일 만에 교신한 북한 어선 2척이 오늘 오후 1시 30분경 인천항에 도착했다. 남해상에서 15일 만에 교신한 북한 어선 2척이 오늘 오후 1시 30분경 인천항에 도착했다.

남해상에서 15일 만에 교신한 북한 어선 2척이 오늘 오후 1시 30분경 인천항에 도착했다. 남해상에서 15일 만에 교신한 북한 어선 2척이 오늘 오후 1시 30분경 인천항에 도착했다. 남해상에서 15일 만에 교신한 북한 어선 2척이 오늘 오후 1시 30분경 인천항에 도착했다.

西紀 1989年 2月 14日

조선원보

越線·拉北경위등 조사

태양호 선원 22명 仁川도착

船長등 4명 拘束키로

【仁川=추홍욱기자】지난달 28일 북한경비정외의해 탈북했던 인천태양호 선원 37명과 양호(1백1호, 선장 郭良奎)와 제38태양호(99·7호, 선장 朴日勇)의 선원 22명이 15일(만인 12일) 오후 3시 20분쯤 북한 판문점항에 도착했다. 시간만외인선항의 도착했다.

선원들의 부속가역 10여 분동안 가림지들과 만다 열사안과 재회의 기쁨을 나타냈다. 이들을 38선 항을 향해 대영진 육군편 기대보였으며, 15일간의 부분해항행의 지친것 대부분 영해의 귀환의 기쁨이였다. 선원들의 이 이 첫시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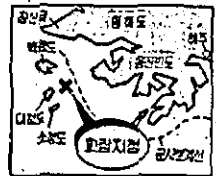
서 마련한 2대의 대형버스에 분승, 인천시 북구 호성동산 54의 1 수협중앙회요수원으로 옮겨져 해양경찰대, 수사청, 인천시청, 해군계기관으로부터 원선, 북경위와 북한외무성합동조사반에 대해 조사받았다.

해양경찰대는 제37태양호 선장 郭良奎씨(30)와 기관장 朴日勇씨(47), 제38태양호 선장 朴日勇씨(33) 기관장 양명우씨(45) 등 4명이 어뢰함계선을 넘기후 모의한 사실이 밝혀진데 따라 수사업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키로 방침을 세웠다.

어선1척 拉北

4명승선... 西海 홍어잡이중

【서울 9일 특보】 북한 어선 1척이 남해안 서해상에서 4명승선한 채 홍어잡이 중이라는 사실이 9일 오전 11시 42분께 서울 남해안 서해상에서 관측됐다. 관측된 어선은 길이 10미터, 폭 3미터, 승선 4명, 엔진 1기, 선상에는 홍어잡이망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관측 당시 어선은 남해안 서해상에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관측된 어선의 선상에는 홍어잡이망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관측 당시 어선은 남해안 서해상에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선1척 拉北

西海서 조업중 北韓경비정예

선원 4명 태운 채 7일 오후 4시 50분경 京畿道 漣川郡 大浦里 附近에서 5마일 공해상에서 고기잡이하던 大浦선적 漁船 1척이 11·42에 선주집 선상에서 관측됐다. 관측된 어선은 길이 10미터, 폭 3미터, 승선 4명, 엔진 1기, 선상에는 홍어잡이망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관측 당시 어선은 남해안 서해상에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조선경비정예(9·선원·漣川郡 大浦里 102) ▲선수정(90·선원·서울 大浦洞 34의 1) ▲李만갑(27·仁川市 西海漁業 102의 31)

명성2호 귀환(89.5.24)

中 央 日 報 1989年5月23日

拉北어선「명성 2호」
오늘 仁川港도착

【仁川=송정환기자】지난 7일 서해상에서 선원 4명이 타고 고기잡이하던 북한어선명「명성 2호」가 대관저소 소속 명성 2호(411·선장 白炳奎·총기 16명)에 의해 23일 오후 1시 15분경 인천 남동구 송도항에 도착했다. 선원 4명은 모두 건강하고 무사했다. 「명성 2호」는 5월 16일 오후 10시 30분경 서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어선명「명성 2호」에 의해 선원 4명이 인질로 붙잡혔다. 「명성 2호」는 5월 16일 오후 10시 30분경 서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어선명「명성 2호」에 의해 선원 4명이 인질로 붙잡혔다. 「명성 2호」는 5월 16일 오후 10시 30분경 서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어선명「명성 2호」에 의해 선원 4명이 인질로 붙잡혔다.

주 신 일 보 西紀 1989年 5月 24日

拉北선원 4명 귀환
명성 2호 16일만에
【仁川=송정환기자】지난 7일 서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북한어선명「명성 2호」에 의해 선원 4명이 인질로 붙잡혔던 북한어선명「명성 2호」가 23일 오후 1시 15분경 인천 남동구 송도항에 도착했다.

의해 납북된 경기도 용진주협대청지소 소속 11·417급 명성 2호(선장 白炳奎·42)가 피랍 16일만인 23일 오후 1시 15분경 인천 남동구 송도항에 도착했다. 선원 4명은 모두 건강하고 무사했다. 「명성 2호」는 5월 16일 오후 10시 30분경 서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어선명「명성 2호」에 의해 선원 4명이 인질로 붙잡혔다. 「명성 2호」는 5월 16일 오후 10시 30분경 서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어선명「명성 2호」에 의해 선원 4명이 인질로 붙잡혔다.

남북사건 보도 자료집

90년대 이후

- ▶ 남해어6호 납북(91.2.5) 187
- ▶ 제86우성호 납북(95.5.30) 189
- ▶ 제86우성호 귀환(95.12.26) 191

18명 탄 어선 拉北

【仁川 崔在鎔기자】충주산 동반도부근 해역에서 조업중 이던 한루수산(대표 崔一權·서울마포구마포동33의1) 소속 어망어선 남해006호(선장 郭기복·1백60t)가

북한잠비정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 관계면대이 조 사에 나섰다. 이 어선에 1등항해사 金문철씨(34)를 비롯 화북인 각부선원 5명과 중부인선원

13명 등 모두 18명이 타고 있었으며, 남해시의 정월한정 임우천와 북해시의 철암역 부등은 아직 발원하지 않고 있다.

拉北어선 승환 요청
韓赤、北赤에 통지문

金相浹 대한적십자사총재
는 11일 北韓적십자의 李
성호위원장대리에게 전화통
지문을 보내 지난5일 白
翎島 서북방 28마일 해상
에서 北韓측의 경비정에 피
랍된 어선과 선원의 승환
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피랍된 006 南海漁號는
韓中합작의 中國선적 1백
60t급 원양트를 어선으로
우리선원 4명과 中國선원
12명이 타고 조업중이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송환문제 정부소극 접근에 분노

선원 신변-협상상황 알려줘야



○(왼쪽) 이명희 기자, ○(오른쪽) 이명희 기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어선 총격남치 관련
정부 어선 對北성명
정부도 30일 우성호 남

북시진과 관련된 남북 어선 과 어선들의 송환을 위해 서우선 대한진상자사를 통한 송환 노력을 촉구키 로했다. 정부는 이날 宋榮大통일 원차관 주재로 긴급 협의 를 갖고 어선의 결정을 하고 31일 대북 성명을 발표하 다. 기로 한 것이므로 알려졌다.

〈具재영기자〉

가정통신료 별도

北, 납북 우성호 일부死傷 발표 "法따라 처리" 보도

【서울 21일 특보】 북한은 납북된 우성호의 일부가 사망하고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또 우성호의 다른 일부가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21일 평壤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북한은 우성호의 일부가 사망했다고 발표하면서, "우성호의 일부가 사망하고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우성호의 다른 일부가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21일 평壤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북한은 우성호의 일부가 사망했다고 발표하면서, "우성호의 일부가 사망하고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우성호의 다른 일부가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의도적 일방통행 "또 韓國 무시"

우성호선원 송환

北측의 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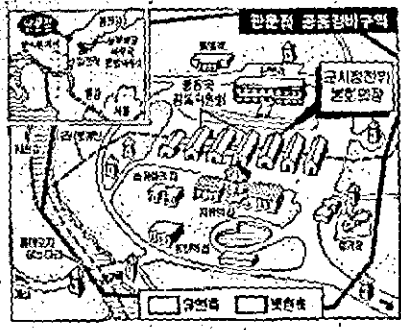


△남측의 선원 송환
북측의 선원 송환을 기다리는 남측의 선원들. 남측의 선원들은 북측의 선원들과 함께 송환될 예정이다. (우성호선원 송환)

북측의 선원 송환을 기다리는 남측의 선원들. 남측의 선원들은 북측의 선원들과 함께 송환될 예정이다. (우성호선원 송환)

절차·越境루트 등 사전통보 생략 公海대신 판문점 선택... 宣傳노려

북측은 이번 선원 송환을 통해 남측의 선원 송환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의 선원 송환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의 선원 송환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성호의 위치
우성호는 북측의 선원 송환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의 선원 송환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의 선원 송환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찾아보기

(가)

가덕호	90, 93
갑진호	30
강인호	30
강화호	30
거성호	65, 77
건설호	96
건진호	126
경인호	65, 77
고려호	25
고흥호	127
광덕호	30
광명호	81
광영호	10, 12, 76
광왕호	30
광진호	82
구우호	4, 6
궁지호	6
근진호	125
금강산호	113
금강호	21, 23
금구호	9
금능호	10, 12
금성3호	133
금성호	65, 68, 77, 81, 132
금영호	84
금윤희	65
금창호	65, 77
금철호	80
금해호	123
기성호	87, 89
길성호	87
길영호	30

(나)

남성호	61
남풍호	65
남해어6호	187

(다)

단국호	10, 12
당수호	61
대덕호	21, 23
대동호	45, 97
대북1호	86
대북호	30, 127
대성호	3
대안호	30
대양호	128
대창호	13, 14, 91, 92
대천호	61
대청호	127
덕길호	4, 6, 21, 23
덕산호	95
덕삼호	45
덕성호	30, 61
덕수2호	86
덕인호	79
동림호	125, 126
동명호	48, 53
동성호	30
동안호	30
동어호	4, 6
동일호	96
동해호	117
동호2호	98

(마)

만리호	24
만복1호	111
만복2호	111
만복호	90, 93, 105
명규호	8
명길호	30
명덕호	51
명성2호	183, 184
명성3호	120, 127
목선호	30
무궁호	30
무진호	70, 111, 128
물경호	30
미조호	132

(바)

반도호	25
백마강호	61
백악호	87, 88
보수호	76, 81
복덕호	30
복룡호	30
복미호	39
복성호	57
복해호	30
봉산21호	107
봉산22호	107
봉성호	30
부성호	30
부승1호	74
부승2호	74
부안호	56
부영호	30
북성호	13, 14
불새호	4, 6

(사)

산길호	13, 14
삼능호	30
삼산호	30
삼창호	128
삼판호	30
선덕호	61
선수호	92
성신호	30, 69, 81
성운호	83
성진호	76, 81
세창호	84, 92
송강호	30
송양호	74
송영호	75
수북호	13, 14
수영호	13, 14
수원32호	134
수원33호	134
수진호	97
순광호	21, 23, 65, 77
순덕호	30, 61
순복호	30, 84
순익호	30
순일호	30
순풍호	30
순흥호	30
승리호	43
승용호	61
승운호	127
시영호	110
신광호	30, 78, 82
신길호	88
신명호	9
신성호	25, 30
신양호	82, 105
신영호	111

신용호	15
신진호	104
신창호	82
신흥호	30

(아)

안영35호	121
안영36호	121
안흥호	46, 61
양성2호	84
양성호	91, 92
어성호	4, 6, 10, 12, 65, 77
어신호	105, 111, 113
어장호	30
어재호	87, 88
연흥호	30
영락호	43
영명호	65
영신호	21, 23, 95
영종호	30
영창호	87, 88
영충호	30
영풍호	30, 48, 53
영흥호	65, 77
외포호	30
요나호	85
용명호	65, 77, 87
용명호	88
용미호	43
용복호	43
용유호	13, 14
용정호	30
용진호	15
용흥호	21, 23
우진호	105
월진호	94
일선호	126

일성호	125
일신호	132
일진6호	133

(자)

장복호	4, 6
장성2호	81
장성호	81
장흥호	30
정성호	65, 77
정진호	74
제12광남호	164, 165
제17대영호	40
제1공영호	154, 156
제1만복호	105
제1보승호	26
제1장진호	82
제21동림호	64
제27동진호	171
제2계영호	167, 169
제2광명호	30, 36
제2남진호	147, 151
제2대성호	55
제2동주호	164, 165
제2보승호	26
제2성복호	95
제2승해호	127
제2태창호	82, 153
제37태양호	178, 179
제38태양호	178, 179
제3신진호	139, 141
제3용진호	60
제5공진호	92
제5마산호	157, 160
제6대영호	40
제6복성호	95
제6부모호	42

제6해부호	127
제7갱생호	61
제7남일호	111
제86우성호	189, 191
제성호	70
제장호	82
준호	96
진양호	45

(차)

창덕호	80
창동호	124, 125
창선호	10, 12
창성호	13, 14, 61
천대11호	58
청길호	96
청룡호	30
축복호	84, 91
춘곡호	53
취영호	95
치수호	45
칠복호	43

(타)

탁성호	119, 127
태아3호	70
태아9호	70
태양호	61, 90, 93

(파)

판부호	25
-----	----

풍년호	90, 93
풍성호	97
풍어호	10, 12

(아)

하영호	10, 12
학성호	25
한진호	61
해경863합	137
해군 1-2정	101
해룡호	4, 6, 30
해복호	25
해성호	128
해성호	45
해양호	65, 77, 95
해영호	131
해왕6호	145, 148
해왕7호	145, 148
해진호	87, 89
행덕호	82
행영호	51
협동호	124, 125
흥근호	30
흥미호	65, 77
흥익호	79, 82
흥일호	30
흥진호	73, 81
황일호	30
흥덕호	98
흥신호	15
흥천호	30